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세미나

2020.02.07(금) 오전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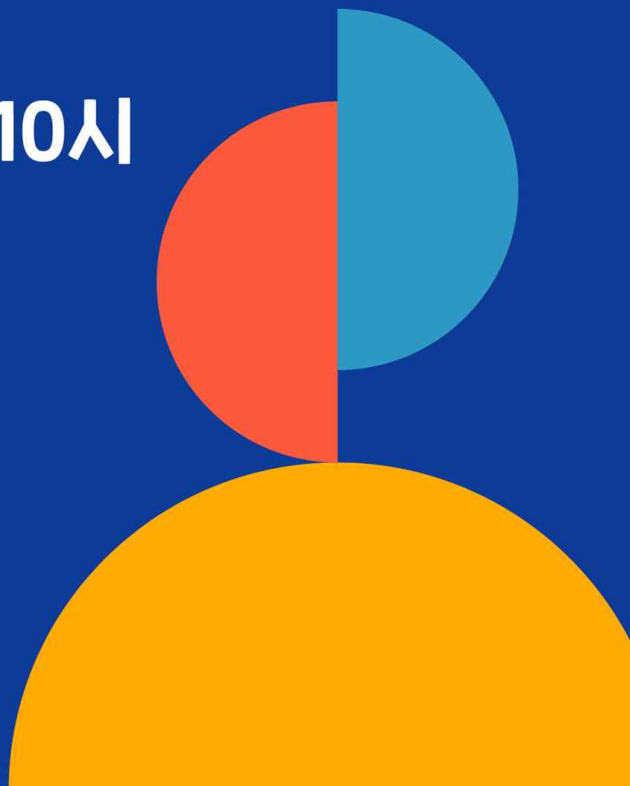
여전도회관 제1강의실(14층)

(서울 종로구 율곡로 190)

주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수행기관 지앤컴리서치

후원 우리들교회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세미나

발행일 2020년 2월 7일(금)

발행인 백종국

편집인 정병오

편 집 윤신일

발행처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0438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Tel_02-794-6200 Fax_02-790-8585 Homepage_ www.cemk.org

-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 자료실과 SNS에서 파일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세미나

순서 및 목차

■ 인사말 - 정 병 오 대표 (기윤실 공동대표)

■ 여론조사 결과 기초보고서 3

■ 여론조사 질문지 51

■ 기조발제 - 정 연 승 교수 (단국대 경영학과, 본 여론조사 책임연구원)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분석 58

■ 주제발제 1 - 조 성 돈 교수 (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 88

■ 주제발제 2 - 김 진 양 부대표 (지앤컴리서치 - 본 여론조사 수행기관)
한국교회 신뢰도 저하의 원인에 대한 분석 94
- 빅데이터 및 기타 설문조사 분석에 대하여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조직구성 / 진행일정 / 후원자 명단 106

2020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기초보고서



기초보고서 차례

제 1 장. 조사 개요	5
1. 조사목적	6
2. 조사차수	6
3. 조사 설계	6
4. 응답자 특성	7
제 2 장. 조사 결과 분석	9
1. 한국교회의 신뢰도	10
1-1. 전반적 신뢰도	10
1-2(a). 속성별 신뢰도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13
1-2(b). 속성별 신뢰도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15
2. 가장 신뢰하는 종교	18
3. 종교 관련 인식	20
3-1. 사회봉사 활동 적극 수행 종교	20
3-2.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	22
4. 한국교회 평가	24
4-1. 한국교회의 교회 밖 세상과 소통 평가	24
4-2. 한국교회의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 기여도 평가	26
5. 한국교회의 과제	28
5-1.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28
5-2.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30
5-3.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32
5-4.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34
6.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37
6-1. 가짜 뉴스 심각성	37
6-2. 가짜 뉴스의 유통 경로	39
7. 4월 총선에 대한 인식	41
7-1. 목사의 정치적 참여 허용 정도	41
8. 기윤실 인지도	43
9. 기타	46
9-1. 종교분포	46
9-2. 종교적 믿음의 깊이	47
9-3. 종교별 이념성향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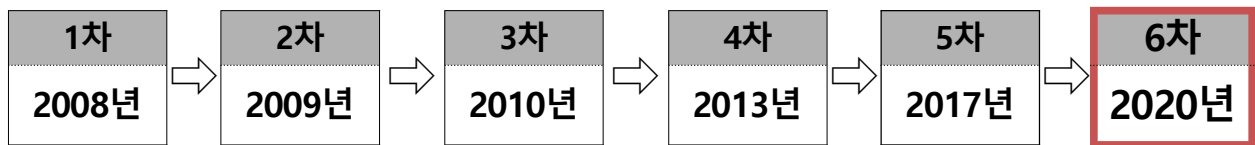
제1장 _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지난 2008년 첫 번째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여섯 번째로 진행되는 추적 조사 연구로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파악 및 교회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차수



3.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만 19세 이상 남녀
조사 지역	● 전국 (제주 제외)
조사 방법	● 유무선전화 RDD(Random Digit Dialing) 듀얼 프레임 추출틀로 진행한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전화면접조사 (무선 80%, 유선 20%)
표본 규모	● 총 1,000명 (유효표본)
표본 추출	●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법(Random Sampling)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자료 처리 및 분석	● 수집 된 자료는 Editing - Coding - Punching - Clean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 2020년 1월 9일 ~ 11일(3일간)
주요 조사 내용	● 한국교회의 신뢰도 평가 : 전체, 속성별 종교 관련 인식 : 신뢰하는 종교, 사회봉사 활동 적극적 종교 한국교회 평가 : 세상과 소통 평가, 사회통합 기여도 한국교회의 과제 : 한국교회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사회적 활동 목회자 및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기타 : 이념성향
조사 기관	● (주)지앤컴리서치

4.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1000)	100.0
성별	남자	(500)	50.0
	여자	(500)	50.0
연령	20대	(167)	16.7
	30대	(171)	17.1
	40대	(204)	20.4
	50대	(216)	21.6
	60대 이상	(242)	24.2
직업	자영업	(181)	18.3
	블루칼라	(104)	10.6
	화이트칼라	(319)	32.4
	가정주부	(175)	17.7
	학생	(83)	8.4
	무직/기타	(124)	12.6
종교	기독교(개신교)	(193)	19.3
	가톨릭교	(83)	8.3
	불교	(178)	17.8
	기타 종교	(6)	0.6
	종교 없음	(540)	54.0
지역	서울	(193)	19.3
	인천/경기	(312)	31.2
	대전/충청/세종	(109)	10.9
	광주/전라	(95)	9.5
	대구/경북	(99)	9.9
	부산/경남/울산	(151)	15.1
	강원/제주	(41)	4.1
지역크기	대도시	(439)	43.9
	중소도시	(482)	48.2
	읍/면	(79)	7.9
소득수준	상	(192)	19.2
	중	(494)	49.4
	하	(313)	31.3
이념성향	보수	(264)	26.4
	중도	(454)	45.4
	진보	(283)	28.3

제2장 _ 조사 결과 분석



1. 한국교회의 신뢰도

1-1. 전반적 신뢰도

문1

○○님께서 한국교회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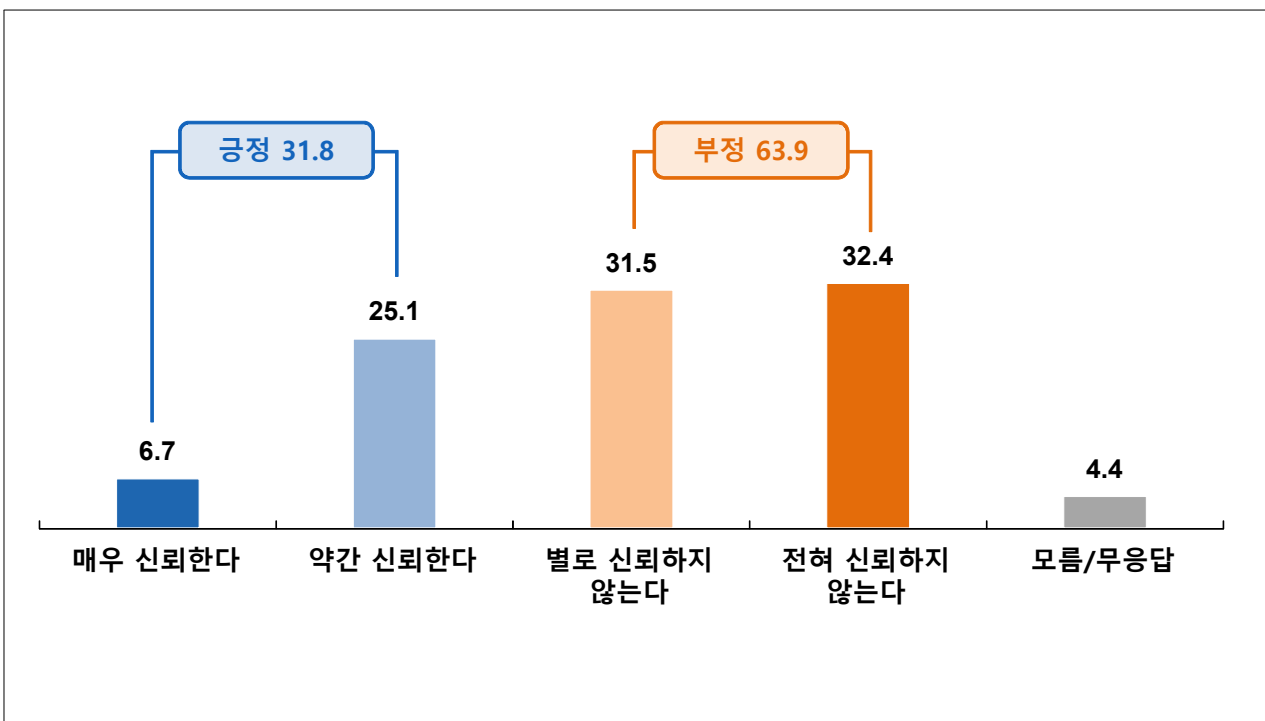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질문한 결과, 신뢰한다(매우+약간) 31.8%, 신뢰하지 않는다(별로+전혀) 63.9%로, 국민 3명 중 1명 정도 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는 2008년 이후 이번 조사까지 총 6차례 조사했는데, 5차까지는 본 문항에 대해 '보통'이 포함된 5점 척도로 질문하였는데, 이번 조사에는 '보통'을 제외한 4점 척도로 질문하였기에 과거 차수와 직접적인 비교는 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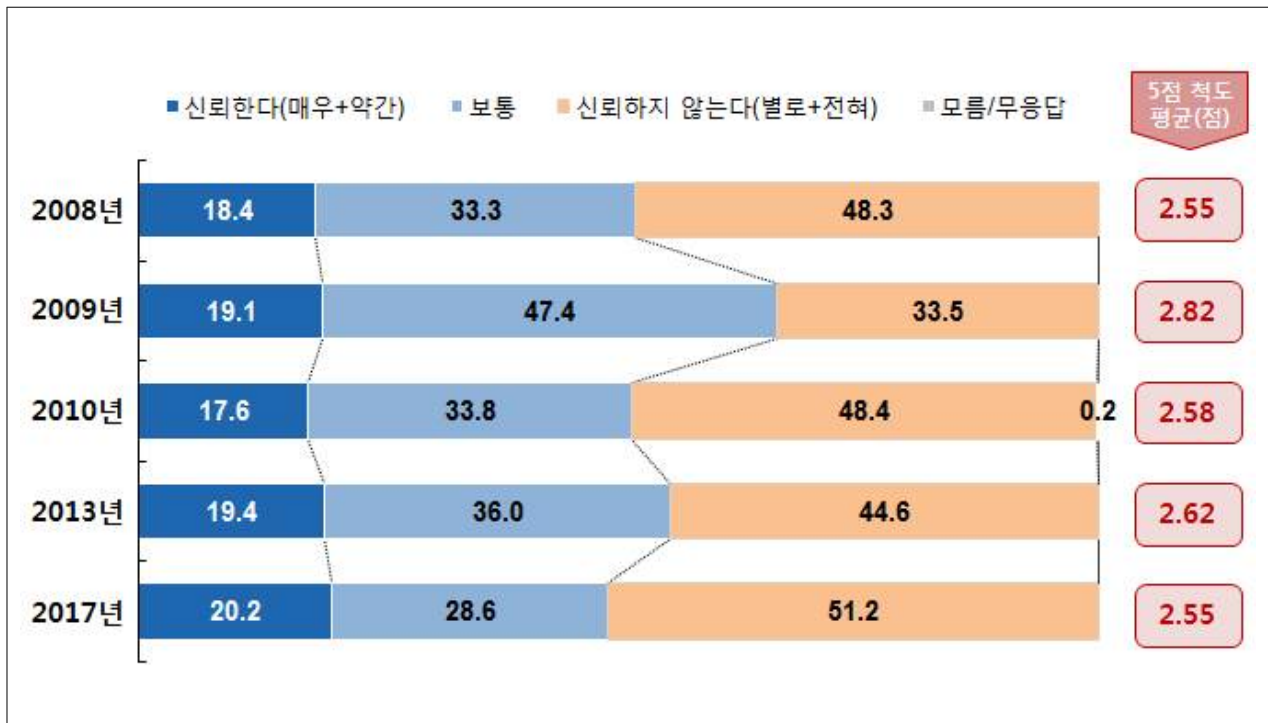
계층별로 한국교회 신뢰도는 50대 이상 고연령층, 가정주부층, 소득수준 중하층, 이념적으로 보수성향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종교별로 개신교인은 한국교회에 대해 75.5%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나, 타종교인과 무종교인들에서는 신뢰보다는 불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무종교인들의 경우 신뢰 17.2%, 불신 78.2%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전반적 신뢰도

(N=1000, %)





[표] 전반적 신뢰도(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평균 (4점 척도)
전체		(1000)	6.7	25.1	31.5	32.4	31.8	63.9	4.4	100.0	2.06
성별	남자	(500)	4.8	24.9	30.4	35.5	29.8	65.9	4.4	100.0	1.99
	여자	(500)	8.6	25.2	32.6	29.3	33.8	61.9	4.4	100.0	2.14
연령	20대	(167)	1.9	25.6	32.0	37.1	27.4	69.1	3.5	100.0	1.92
	30대	(171)	5.1	17.1	37.6	35.8	22.2	73.5	4.4	100.0	1.91
	40대	(204)	1.4	20.1	28.6	46.1	21.5	74.7	3.8	100.0	1.76
	50대	(216)	7.5	25.7	33.3	32.9	33.2	66.2	0.6	100.0	2.08
	60대 이상	(242)	14.9	34.0	27.6	14.7	48.9	42.3	8.8	100.0	2.54
직업	자영업	(181)	7.0	21.4	32.8	37.0	28.4	69.7	1.9	100.0	1.98
	블루칼라	(104)	2.4	26.4	33.1	33.0	28.8	66.2	5.0	100.0	1.98
	화이트칼라	(319)	3.2	20.8	37.1	36.3	24.0	73.4	2.5	100.0	1.91
	가정주부	(175)	15.3	31.3	22.1	22.8	46.6	44.9	8.4	100.0	2.43
	학생	(83)	4.7	17.0	34.6	42.3	21.8	76.9	1.4	100.0	1.84
	무직/기타	(124)	8.7	36.7	24.9	20.7	45.4	45.6	9.0	100.0	2.37
종교	기독교(개신교)	(193)	24.2	51.4	14.6	7.9	75.5	22.4	2.0	100.0	2.94
	가톨릭교	(83)	7.5	27.8	32.0	26.6	35.3	58.6	6.1	100.0	2.17
	불교	(178)	4.4	23.0	35.4	31.8	27.4	67.2	5.4	100.0	2.00
	기타 종교	(6)	3.9	11.3	29.0	51.9	15.2	81.0	3.8	100.0	1.66
	종교 없음	(540)	1.1	16.1	36.2	42.0	17.2	78.2	4.6	100.0	1.75
지역	서울	(193)	8.5	20.9	37.1	32.6	29.3	69.7	0.9	100.0	2.05
	인천/경기	(312)	6.9	25.7	31.8	29.7	32.6	61.5	5.9	100.0	2.10
	대전/충청/세종	(109)	3.7	24.9	36.7	30.8	28.6	67.5	3.9	100.0	2.02
	광주/전라	(95)	5.4	25.9	29.1	37.1	31.3	66.2	2.5	100.0	2.00
	대구/경북	(99)	7.1	28.3	29.5	29.8	35.4	59.3	5.3	100.0	2.13
	부산/경남/울산	(151)	6.6	24.1	24.3	37.8	30.7	62.1	7.2	100.0	2.00
	강원/제주	(41)	7.0	34.1	25.3	31.2	41.0	56.6	2.4	100.0	2.17
지역크기	대도시	(439)	6.4	23.7	31.6	34.0	30.1	65.6	4.3	100.0	2.02
	중소도시	(482)	6.7	25.1	31.9	32.2	31.9	64.1	4.1	100.0	2.07
	읍/면	(79)	8.4	32.1	28.3	24.5	40.5	52.9	6.6	100.0	2.26
소득수준	상	(192)	5.9	18.7	34.8	39.2	24.5	74.0	1.5	100.0	1.91
	중	(494)	6.0	27.1	32.2	31.3	33.1	63.5	3.4	100.0	2.08
	하	(313)	8.4	25.7	28.2	30.0	34.1	58.2	7.7	100.0	2.14
이념성향	보수	(264)	10.6	33.1	26.7	25.1	43.7	51.8	4.5	100.0	2.30
	중도	(454)	6.1	24.1	32.8	31.4	30.2	64.2	5.7	100.0	2.05
	진보	(283)	4.1	19.1	33.8	40.8	23.2	74.6	2.2	100.0	1.86

1-2(a). 속성별 신뢰도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문2-1

○○님께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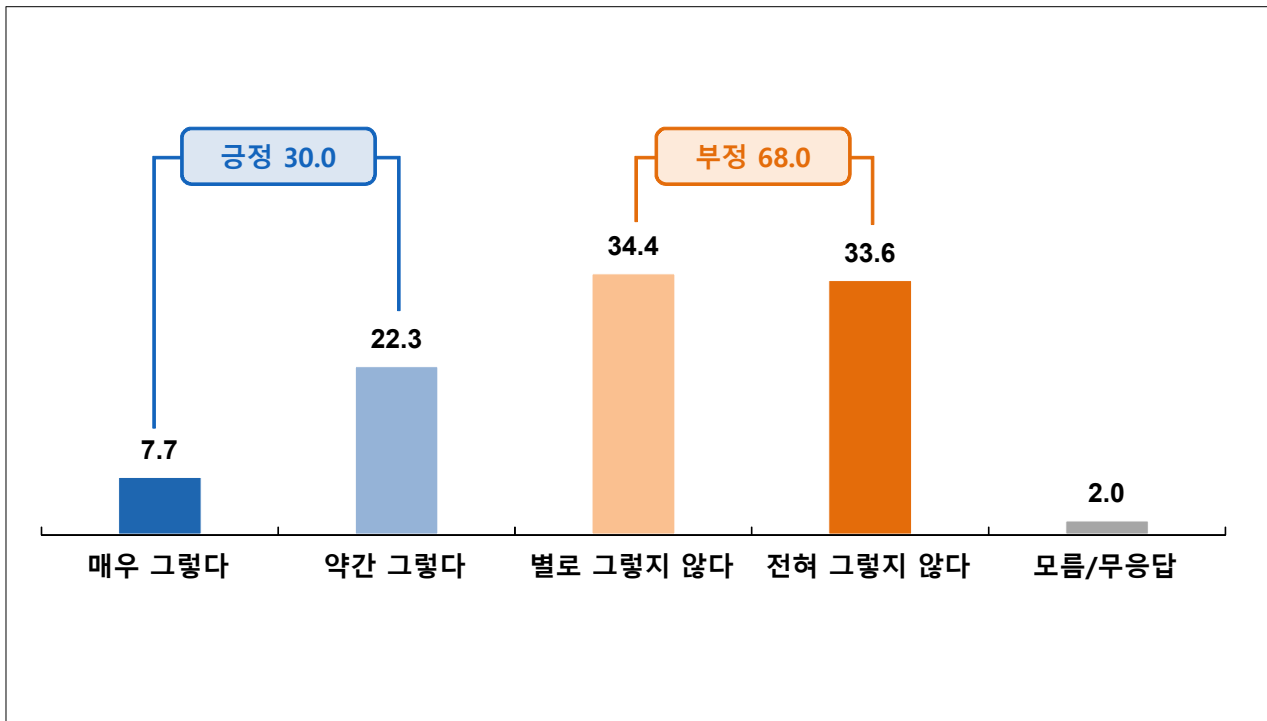
이번에는 한국교회 목사와 기독교인의 언행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얼마나 믿음이 가는지 알아본 결과, 신뢰 30.0%, 불신 68.0%로 앞에서의 한국교회 신뢰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계층별로 기독교 목사 신뢰도는 한국교회 신뢰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50대 이상 고연령층, 이념적으로 보수성향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종교별로 개신교인은 목사에게 대해 71.5%의 높은 신뢰를 보이는 반면, 타종교인과 무종교인들은 불신도가 70%이상으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속성별 신뢰도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N=1000, %)



[표] 속성별 신뢰도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평균 (4점 척도)
전체		(1000)	7.7	22.3	34.4	33.6	30.0	68.0	2.0	100.0	2.04
성별	남자	(500)	6.0	22.3	35.7	34.1	28.2	69.8	1.9	100.0	2.00
	여자	(500)	9.4	22.3	33.1	33.0	31.7	66.1	2.2	100.0	2.08
연령	20대	(167)	1.9	23.1	39.6	35.4	25.0	75.0	0.0	100.0	1.92
	30대	(171)	3.1	12.5	39.3	42.0	15.6	81.3	3.1	100.0	1.76
	40대	(204)	3.3	20.2	30.3	44.5	23.5	74.8	1.7	100.0	1.82
	50대	(216)	10.0	20.2	33.6	34.8	30.2	68.3	1.4	100.0	2.06
	60대 이상	(242)	16.6	32.1	31.7	16.0	48.8	47.7	3.5	100.0	2.51
직업	자영업	(181)	6.2	23.6	35.7	33.4	29.8	69.0	1.1	100.0	2.03
	블루칼라	(104)	5.4	17.3	37.0	35.8	22.7	72.8	4.4	100.0	1.92
	화이트칼라	(319)	2.6	18.6	38.6	39.6	21.2	78.2	0.7	100.0	1.84
	가정주부	(175)	18.0	26.3	22.5	28.0	44.3	50.5	5.2	100.0	2.36
	학생	(83)	2.9	18.3	38.5	40.3	21.2	78.8	0.0	100.0	1.84
	무직/기타	(124)	13.9	32.3	32.0	19.8	46.2	51.7	2.1	100.0	2.41
종교	기독교(개신교)	(193)	26.2	45.3	20.0	7.6	71.5	27.6	0.9	100.0	2.91
	가톨릭교	(83)	8.3	14.2	36.7	38.3	22.5	74.9	2.5	100.0	1.92
	불교	(178)	6.9	17.8	38.4	34.6	24.7	73.0	2.2	100.0	1.97
	기타 종교	(6)	3.9	24.9	36.7	34.4	28.9	71.1	0.0	100.0	1.98
	종교 없음	(540)	1.3	16.7	37.9	41.8	18.0	79.7	2.3	100.0	1.77
지역	서울	(193)	8.4	19.9	38.8	32.5	28.3	71.3	0.4	100.0	2.04
	인천/경기	(312)	7.6	23.6	34.6	31.6	31.2	66.2	2.6	100.0	2.07
	대전/충청/세종	(109)	6.2	23.6	38.5	30.0	29.8	68.5	1.8	100.0	2.06
	광주/전라	(95)	6.1	20.0	34.0	36.6	26.1	70.6	3.3	100.0	1.95
	대구/경북	(99)	9.3	25.2	37.9	25.5	34.5	63.4	2.1	100.0	2.19
	부산/경남/울산	(151)	7.7	20.1	24.7	44.7	27.8	69.4	2.8	100.0	1.90
	강원/제주	(41)	9.6	25.6	30.5	34.3	35.1	64.9	0.0	100.0	2.10
지역크기	대도시	(439)	7.0	21.6	34.2	35.5	28.6	69.7	1.7	100.0	2.00
	중소도시	(482)	8.1	22.2	35.0	32.6	30.2	67.6	2.1	100.0	2.06
	읍/면	(79)	9.6	26.2	32.3	28.7	35.8	60.9	3.3	100.0	2.17
소득수준	상	(192)	5.2	20.3	35.8	38.4	25.4	74.2	0.4	100.0	1.92
	중	(494)	7.9	22.8	35.2	33.2	30.7	68.4	0.9	100.0	2.05
	하	(313)	9.0	22.6	32.4	31.2	31.6	63.5	4.8	100.0	2.10
이념성향	보수	(264)	11.2	29.7	33.4	22.3	40.9	55.7	3.4	100.0	2.31
	중도	(454)	7.8	21.5	34.4	34.0	29.3	68.4	2.3	100.0	2.03
	진보	(283)	4.3	16.5	35.5	43.3	20.9	78.8	0.3	100.0	1.82

1-2(b). 속성별 신뢰도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문2-2

○○님께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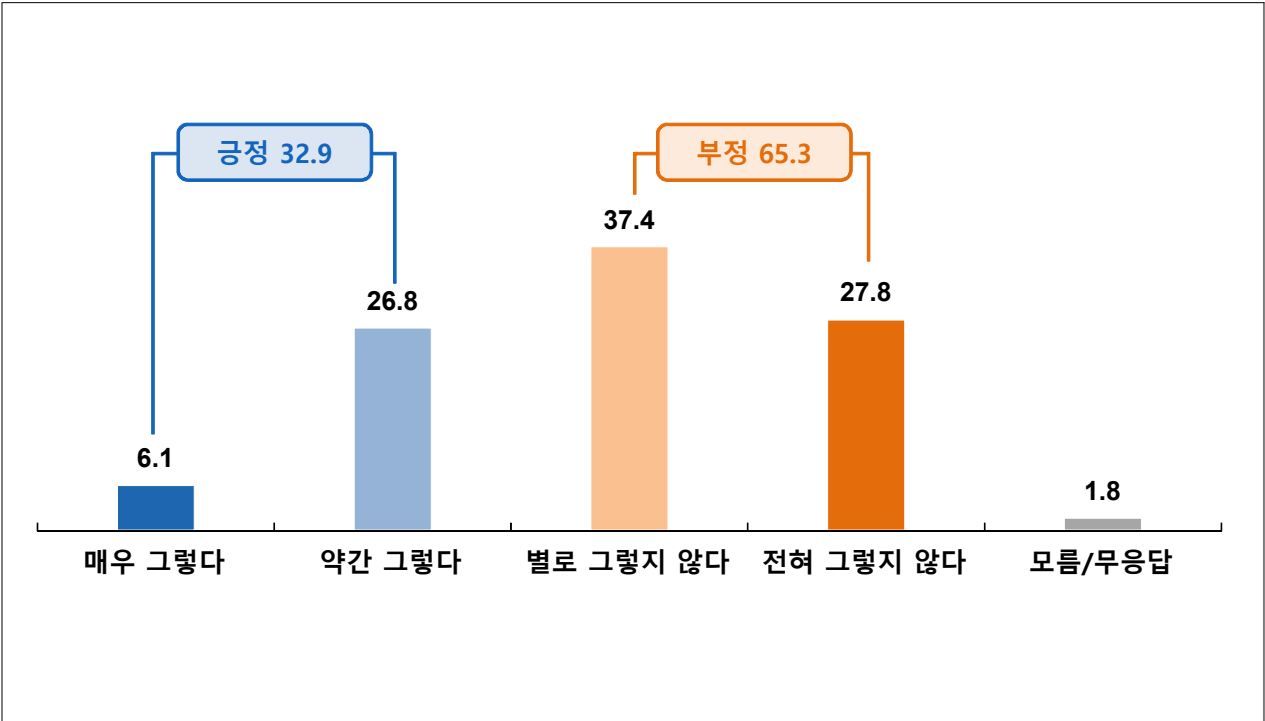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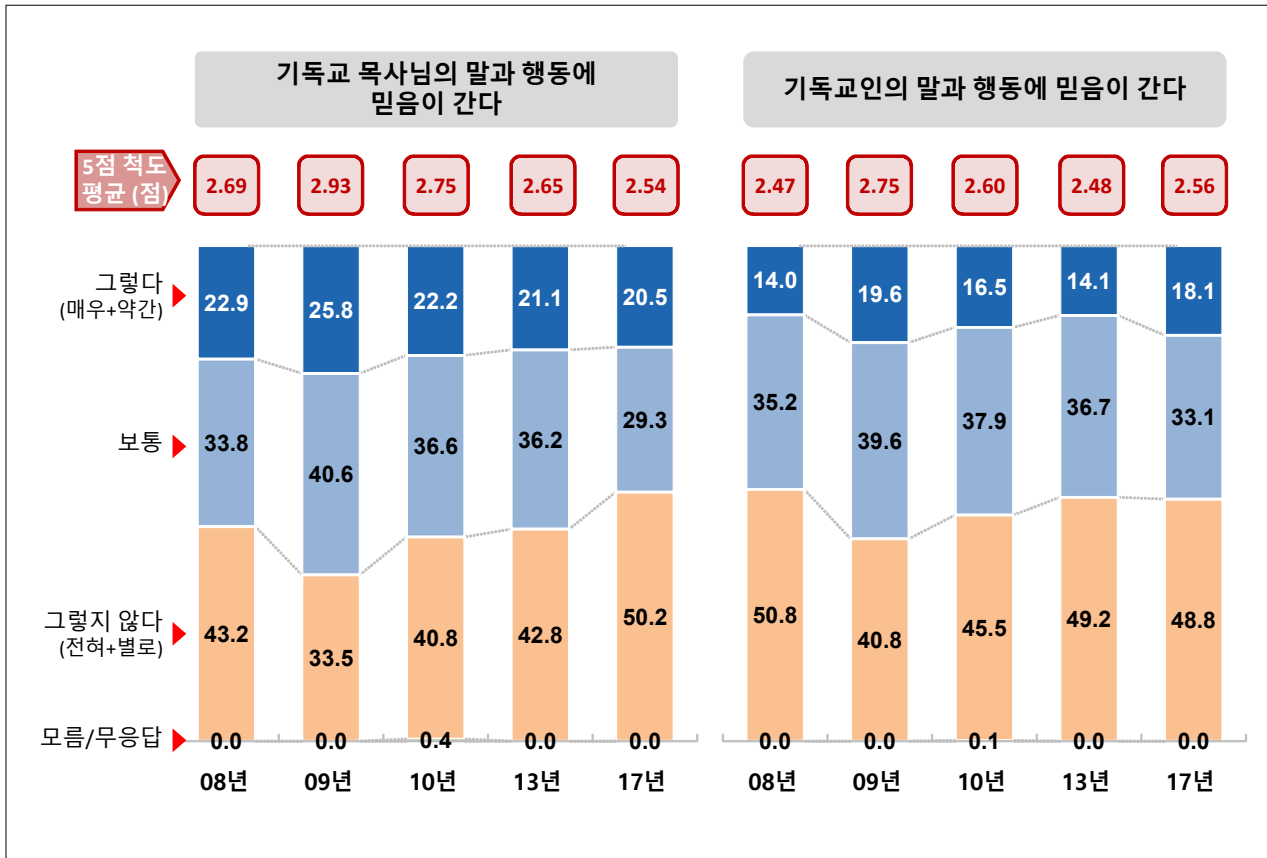
우리 국민은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 조사 결과, 신뢰 32.9%, 불신 65.3%로 나타났는데, 목사 대비 신뢰도가 약간 높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계층별로는 앞에서의 기독교 목회자 신뢰도와 거의 비슷한 특성을 보였다.

[그림] 속성별 신뢰도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N=1000, %)





[표] 속성별 신뢰도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평균 (4점 척도)
전체		(1000)	6.1	26.8	37.4	27.8	32.9	65.3	1.8	100.0	2.11
성별	남자	(500)	5.2	28.5	35.8	28.9	33.7	64.7	1.6	100.0	2.10
	여자	(500)	7.1	25.0	39.1	26.7	32.1	65.9	2.1	100.0	2.13
연령	20대	(167)	1.9	22.9	42.0	33.2	24.8	75.2	0.0	100.0	1.93
	30대	(171)	3.0	22.3	41.6	30.7	25.3	72.3	2.4	100.0	1.97
	40대	(204)	3.8	21.4	40.3	33.2	25.2	73.5	1.3	100.0	1.96
	50대	(216)	7.8	27.8	34.0	29.8	35.6	63.9	0.5	100.0	2.14
	60대 이상	(242)	11.8	36.2	31.9	15.7	48.0	47.6	4.4	100.0	2.46
직업	자영업	(181)	3.1	29.3	43.4	23.6	32.4	67.0	0.6	100.0	2.12
	블루칼라	(104)	4.9	27.2	37.2	25.1	32.1	62.3	5.6	100.0	2.13
	화이트칼라	(319)	3.5	22.6	41.2	32.5	26.1	73.7	0.3	100.0	1.97
	가정주부	(175)	13.3	29.3	27.2	26.3	42.6	53.5	3.8	100.0	2.31
	학생	(83)	2.8	18.8	38.9	39.5	21.6	78.4	0.0	100.0	1.85
	무직/기타	(124)	10.7	37.1	31.1	17.9	47.9	49.0	3.2	100.0	2.42
종교	기독교(개신교)	(193)	19.5	48.7	23.6	6.8	68.2	30.4	1.4	100.0	2.82
	가톨릭교	(83)	8.2	21.8	31.4	34.9	30.0	66.2	3.8	100.0	2.03
	불교	(178)	5.1	23.2	39.8	30.2	28.3	70.0	1.7	100.0	2.03
	기타 종교	(6)	0.0	28.4	45.0	26.7	28.4	71.6	0.0	100.0	2.02
	종교 없음	(540)	1.4	20.9	42.5	33.5	22.3	75.9	1.8	100.0	1.90
지역	서울	(193)	6.9	25.6	42.8	24.1	32.6	66.9	0.5	100.0	2.15
	인천/경기	(312)	5.5	28.1	36.4	28.8	33.6	65.2	1.2	100.0	2.10
	대전/충청/세종	(109)	4.9	27.8	42.5	22.6	32.7	65.1	2.2	100.0	2.15
	광주/전라	(95)	6.0	22.6	34.9	33.2	28.7	68.0	3.3	100.0	2.02
	대구/경북	(99)	12.2	25.1	38.2	21.3	37.3	59.5	3.2	100.0	2.29
	부산/경남/울산	(151)	2.9	25.1	35.9	32.8	28.0	68.7	3.3	100.0	1.98
	강원/제주	(41)	7.8	39.1	16.9	36.3	46.8	53.2	0.0	100.0	2.18
지역크기	대도시	(439)	5.1	26.5	39.3	27.1	31.6	66.4	2.0	100.0	2.10
	중소도시	(482)	6.9	25.9	36.7	28.9	32.8	65.6	1.6	100.0	2.11
	읍/면	(79)	7.0	33.7	31.3	25.6	40.8	57.0	2.3	100.0	2.23
소득수준	상	(192)	4.7	26.9	32.6	35.0	31.6	67.6	0.8	100.0	2.01
	중	(494)	6.4	26.2	42.3	24.2	32.6	66.5	0.9	100.0	2.15
	하	(313)	6.6	27.6	32.6	29.1	34.2	61.8	4.0	100.0	2.12
이념성향	보수	(264)	10.9	29.4	40.5	15.9	40.4	56.4	3.2	100.0	2.37
	중도	(454)	5.1	27.6	36.1	29.2	32.7	65.2	2.0	100.0	2.09
	진보	(283)	3.2	23.0	36.8	36.8	26.2	73.6	0.3	100.0	1.93

2. 가장 신뢰하는 종교

문7

다음의 종교 중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개신교 신뢰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상대평가로 종교 신뢰도를 측정해 보았다. 현재 종교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질문하였는데, 2017년과 동일하게 가톨릭>불교>개신교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개신교는 신뢰도 측면에서 가톨릭, 불교와 비교해 가장 낮았다.

개신교는 2017년 대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반면, 반면 불교는 약간 상승, 가톨릭은 약간 하락세를 보였다.

종교별 상대적 신뢰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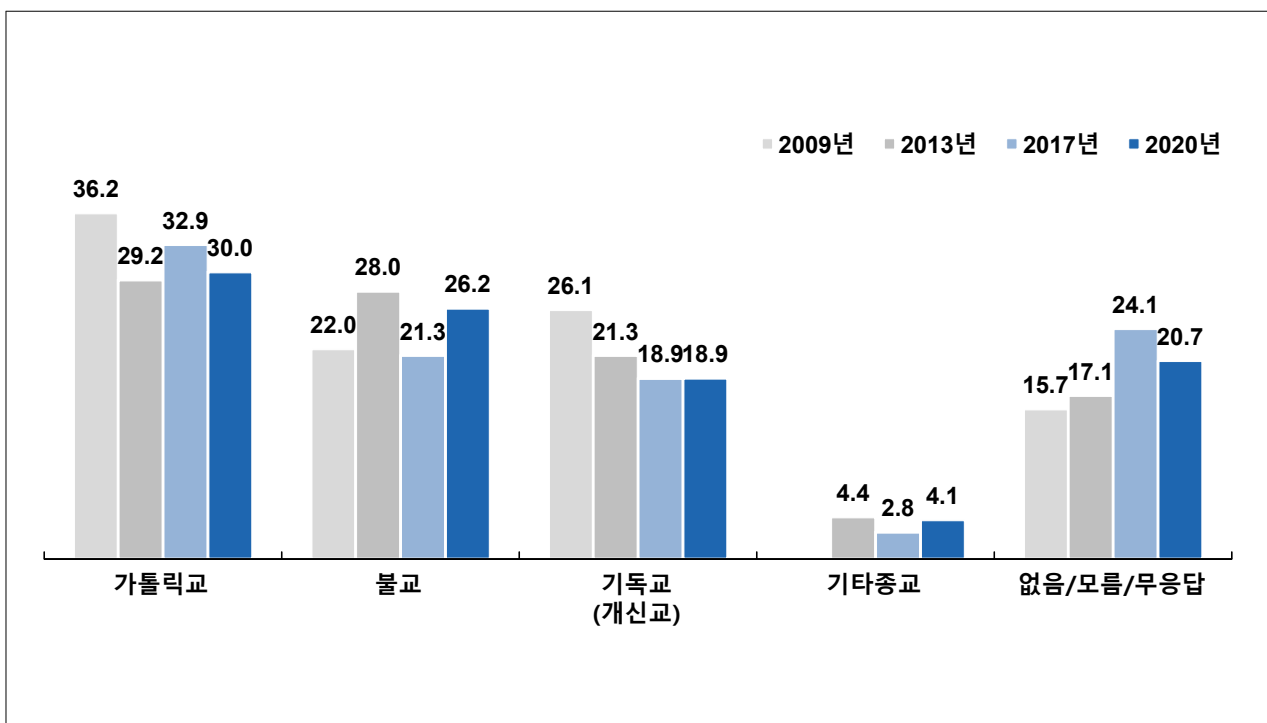
연령별로 20대는 불교, 30대부터 50대까지는 가톨릭이 각각 신뢰도 1위를 기록했고,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가톨릭, 불교, 개신교가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차이없이 비슷한 신뢰도를 보였다.

종교인은 자기 종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무종교인은 가톨릭 33.0%, 불교 23.8%, 개신교 6.1%의 응답률을 보여, 개신교를 매우 낮게 평가했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성향층은 가톨릭을, 중도성향층은 불교를 각각 1위로 지적하였고, 보수성향층은 세 종교를 비슷하게 지적하였다.

[그림] 가장 신뢰하는 종교

(N=1000, %)



[표] 가장 신뢰하는 종교(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가톨릭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30.0	26.2	18.9	2.2	1.8	0.0	20.7	100.0
성별	남자	(500)	32.0	27.3	16.1	2.6	2.2	0.1	19.7	100.0
	여자	(500)	28.1	25.2	21.7	1.8	1.4	0.0	21.8	100.0
연령	20대	(167)	16.8	27.7	19.7	1.5	2.4	0.2	31.7	100.0
	30대	(171)	31.7	28.8	15.8	1.4	1.8	0.0	20.4	100.0
	40대	(204)	36.2	19.1	14.3	3.2	2.2	0.0	24.9	100.0
	50대	(216)	34.4	26.8	17.8	3.3	0.5	0.0	17.1	100.0
	60대 이상	(242)	28.8	28.9	25.5	1.5	2.1	0.0	13.1	100.0
직업	자영업	(181)	29.6	30.9	14.3	5.5	2.5	0.0	17.2	100.0
	블루칼라	(104)	25.9	29.3	19.9	0.0	0.4	0.0	24.5	100.0
	화이트칼라	(319)	37.6	23.0	12.7	1.8	1.4	0.1	23.4	100.0
	가정주부	(175)	27.9	25.3	28.3	2.0	1.5	0.0	15.1	100.0
	학생	(83)	19.0	27.2	20.7	1.5	2.9	0.0	28.7	100.0
	무직/기타	(124)	23.0	28.1	26.9	1.4	2.8	0.0	17.7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93)	10.6	3.0	77.1	0.7	0.7	0.0	7.8	100.0
	가톨릭교	(83)	82.9	5.4	3.0	1.7	2.2	0.0	4.8	100.0
	불교	(178)	17.9	69.1	2.3	2.7	0.0	0.0	8.0	100.0
	기타 종교	(6)	21.9	9.3	11.9	17.5	24.1	6.4	8.9	100.0
	종교 없음	(540)	33.0	23.8	6.1	2.5	2.4	0.0	32.2	100.0
지역	서울	(193)	32.1	22.2	19.0	2.1	3.2	0.0	21.4	100.0
	인천/경기	(312)	32.1	22.3	22.6	1.8	2.0	0.1	19.2	100.0
	대전/충청/세종	(109)	28.4	28.6	19.4	0.6	0.0	0.0	23.0	100.0
	광주/전라	(95)	33.5	25.8	21.2	3.2	2.5	0.0	13.9	100.0
	대구/경북	(99)	30.3	23.6	15.6	1.3	2.2	0.0	27.1	100.0
	부산/경남/울산	(151)	25.1	37.9	10.7	5.2	0.8	0.0	20.3	100.0
	강원/제주	(41)	18.3	33.0	23.1	0.0	0.0	0.0	25.6	100.0
지역크기	대도시	(439)	30.6	27.9	15.3	1.3	2.2	0.0	22.7	100.0
	중소도시	(482)	31.4	23.8	21.8	2.8	1.4	0.1	18.7	100.0
	읍/면	(79)	18.5	31.9	21.8	3.9	1.7	0.0	22.3	100.0
소득수준	상	(192)	35.0	21.5	18.2	4.8	1.3	0.0	19.2	100.0
	중	(494)	32.2	26.9	17.2	1.6	1.6	0.0	20.5	100.0
	하	(313)	23.6	28.2	22.1	1.6	2.4	0.1	22.0	100.0
이념성향	보수	(264)	26.9	24.2	25.5	2.5	3.0	0.0	17.9	100.0
	중도	(454)	24.7	29.1	17.4	1.8	1.7	0.0	25.3	100.0
	진보	(283)	41.5	23.6	15.1	2.6	0.9	0.1	16.1	100.0

3. 종교 관련 인식

3-1. 사회봉사 활동 적극 수행 종교

문 8

다음 중 어느 종교가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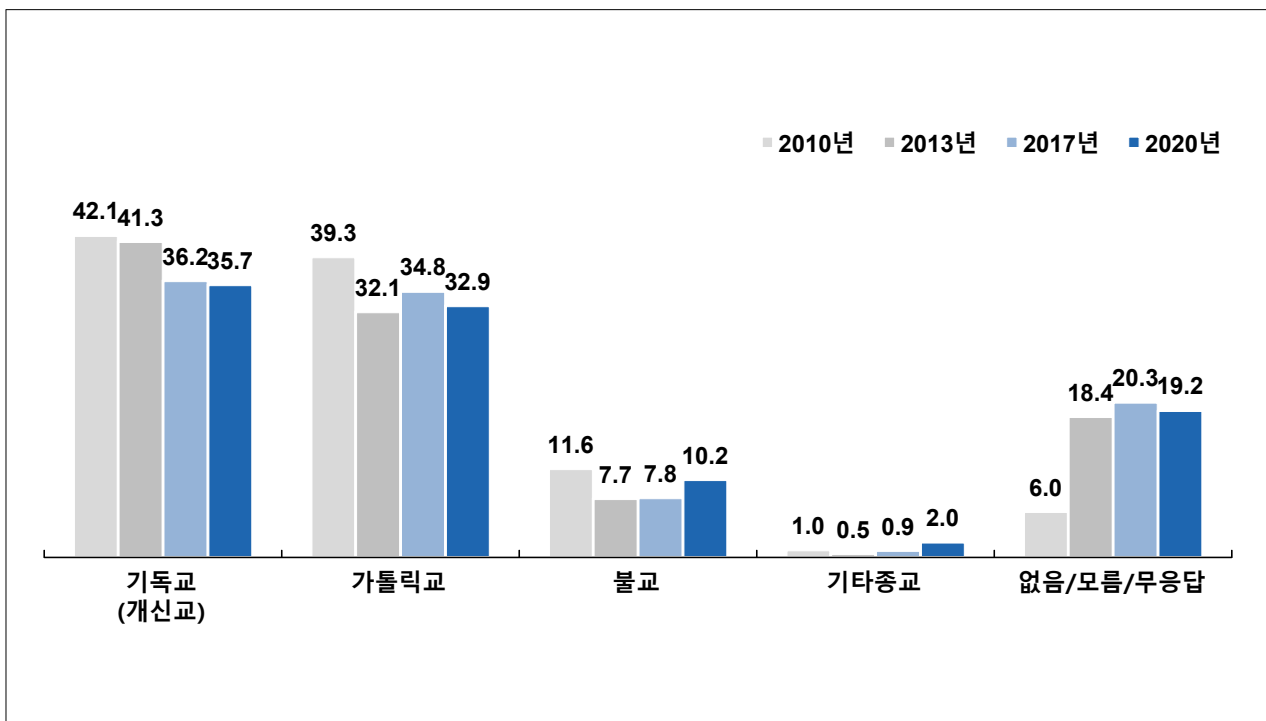
사회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를 질문한 결과, 2017년에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비슷하게 1위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개신교가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근소하게 1위를 차지했다.

계층별로, 20대 연령층에서 개신교가, 40-50대에서는 가톨릭이 각각 1위로 지적됐다. 개신교인과 가톨릭인은 자신의 종교를 가장 높게 지적한 반면, 불교인은 개신교와 가톨릭을 비슷하게 지적했고, 무종교인은 가톨릭을 근소하게 높게 지적했다.

한편 이념성향별로 보수와 중도층은 개신교를, 진보층은 가톨릭을 1위로 지적했다.

[그림] 사회봉사 활동 적극 수행 종교

(N=1000, %)



[표] 사회봉사 활동 적극 수행 종교(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기독교	가톨릭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없음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35.7	32.9	10.2	1.4	0.5	0.1	0.8	18.4	100.0
성별	남자	(500)	36.3	33.1	10.2	1.6	0.5	0.3	0.4	17.8	100.0
	여자	(500)	35.0	32.7	10.2	1.1	0.6	0.0	1.3	19.1	100.0
연령	20대	(167)	46.2	15.1	14.1	2.7	1.0	0.2	2.2	18.5	100.0
	30대	(171)	32.4	34.9	13.8	1.1	1.5	0.0	0.7	15.6	100.0
	40대	(204)	31.3	37.8	9.8	0.7	0.6	0.0	0.9	18.9	100.0
	50대	(216)	33.2	39.3	6.7	2.1	0.0	0.4	0.4	17.9	100.0
	60대 이상	(242)	36.5	33.9	8.4	0.6	0.0	0.0	0.3	20.3	100.0
직업	자영업	(181)	29.2	31.2	16.5	2.4	0.0	0.5	1.1	19.1	100.0
	블루칼라	(104)	40.4	31.8	9.3	0.0	0.4	0.0	0.0	18.1	100.0
	화이트칼라	(319)	31.9	42.7	7.7	0.4	0.8	0.1	1.5	15.0	100.0
	가정주부	(175)	39.0	29.5	6.9	1.2	0.7	0.0	0.0	22.6	100.0
	학생	(83)	41.5	13.0	19.4	6.1	1.4	0.0	1.5	17.0	100.0
	무직/기타	(124)	44.4	30.3	7.8	0.6	0.0	0.0	0.6	16.3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93)	67.9	20.3	2.0	0.4	0.0	0.0	0.0	9.3	100.0
	가톨릭교	(83)	13.9	61.2	6.6	1.7	0.0	0.0	0.0	16.6	100.0
	불교	(178)	30.5	29.5	19.4	1.0	0.0	0.0	1.1	18.5	100.0
	기타 종교	(6)	25.2	39.7	7.3	0.0	6.7	6.4	0.0	14.7	100.0
	종교 없음	(540)	29.3	34.1	10.7	1.8	0.9	0.2	1.2	21.9	100.0
지역	서울	(193)	32.3	40.4	8.6	2.3	1.3	0.0	0.6	14.5	100.0
	인천/경기	(312)	40.4	33.9	7.3	0.8	0.4	0.1	0.4	16.7	100.0
	대전/충청/세종	(109)	34.2	30.4	14.0	0.6	0.0	0.9	0.0	19.9	100.0
	광주/전라	(95)	36.3	30.3	9.5	3.8	0.0	0.0	1.0	19.1	100.0
	대구/경북	(99)	27.9	32.5	9.0	1.3	0.4	0.0	2.5	26.5	100.0
	부산/경남/울산	(151)	33.1	26.0	16.9	0.6	0.8	0.0	1.7	20.9	100.0
	강원/제주	(41)	45.9	29.2	9.3	0.0	0.0	0.0	0.0	15.5	100.0
지역크기	대도시	(439)	31.5	35.7	8.9	1.3	0.8	0.2	1.0	20.4	100.0
	중소도시	(482)	39.3	32.2	10.7	1.3	0.3	0.1	0.5	15.5	100.0
	읍/면	(79)	36.6	21.2	13.9	1.7	0.0	0.0	1.6	25.0	100.0
소득수준	상	(192)	32.5	41.7	10.3	4.6	0.7	0.0	0.0	10.2	100.0
	중	(494)	35.4	33.6	10.2	0.6	0.8	0.2	0.9	18.3	100.0
	하	(313)	37.9	26.4	10.1	0.5	0.0	0.1	1.3	23.6	100.0
이념성향	보수	(264)	38.3	33.2	9.6	1.7	0.4	0.0	0.3	16.5	100.0
	중도	(454)	40.9	24.8	8.9	1.0	0.6	0.2	1.4	22.2	100.0
	진보	(283)	24.7	45.7	12.8	1.7	0.4	0.1	0.4	14.1	100.0

3-2.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

문9

다음 중 어느 종교의 사회봉사활동이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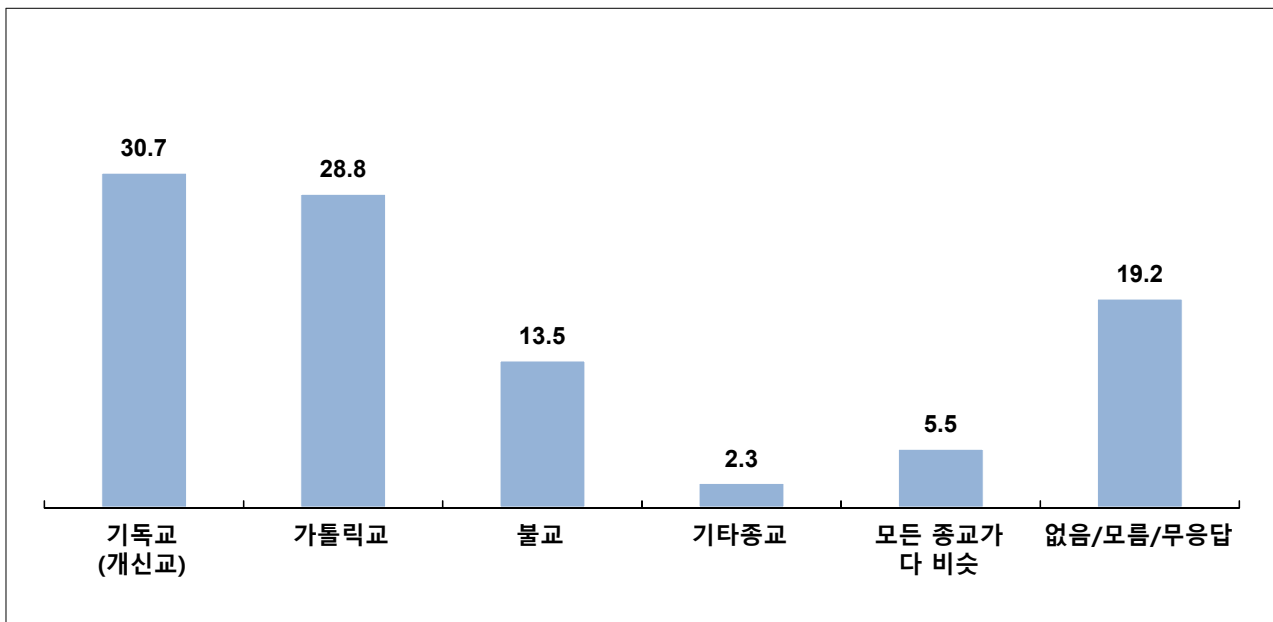
이번에는 사회봉사 활동량과 상관없이 어느 종교의 사회봉사활동이 한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본 질문은 이번에 처음으로 설문한 것임). 그 결과, 개신교(30.7%)와 가톨릭(28.8%)이 오차범위 내에서 가장 높게 응답됐다.

개신교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양적인 측면 뿐아니라 사회 기여도 측면에서도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층별로, 개신교의 사회봉사활동이 가장 한국사회에 도움된다는 응답은 20대와 60대 이상층에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소득수준 중/하층에서,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와 중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

(N=1000, %)



[표]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기독교	가톨릭 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 교	모든 종교가 다 비슷	없음	잘 모르겠 다	계
전체		(1000)	30.7	28.8	13.5	1.3	0.9	0.0	5.5	1.7	17.5	100.0
성별	남자	(500)	30.3	29.6	14.1	1.5	1.1	0.1	5.9	0.9	16.5	100.0
	여자	(500)	31.1	27.9	12.9	1.2	0.8	0.0	5.0	2.6	18.5	100.0
연령	20대	(167)	37.9	12.8	19.0	1.5	0.9	0.2	2.7	2.9	22.1	100.0
	30대	(171)	25.7	29.4	17.2	1.5	0.7	0.0	5.6	1.4	18.5	100.0
	40대	(204)	26.0	36.4	9.6	0.2	0.6	0.0	5.6	2.9	18.8	100.0
	50대	(216)	27.7	33.3	11.8	2.2	1.6	0.0	6.2	1.2	15.9	100.0
	60대 이상	(242)	36.0	28.8	12.1	1.3	0.8	0.0	6.5	0.6	13.8	100.0
직업	자영업	(181)	25.1	30.1	16.1	2.1	1.4	0.0	7.2	2.4	15.6	100.0
	블루칼라	(104)	34.7	30.1	12.1	1.7	0.4	0.0	1.5	1.2	18.4	100.0
	화이트칼라	(319)	24.3	37.6	10.5	0.6	1.5	0.1	5.1	2.8	17.4	100.0
	가정주부	(175)	38.6	24.4	9.6	1.2	0.0	0.0	7.4	0.0	18.7	100.0
	학생	(83)	38.8	12.0	24.5	3.7	0.0	0.0	2.9	1.5	16.6	100.0
	무직/기타	(124)	37.9	20.5	16.2	0.6	1.5	0.0	6.8	1.2	15.4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93)	71.9	13.7	2.1	0.4	0.0	0.0	2.8	0.0	9.2	100.0
	가톨릭교	(83)	8.3	60.8	13.5	3.0	0.0	0.0	5.1	0.0	9.4	100.0
	불교	(178)	24.9	24.0	22.9	1.0	0.0	0.0	7.0	1.9	18.3	100.0
	기타 종교	(6)	30.0	13.2	3.5	12.0	19.8	6.4	5.4	0.0	9.6	100.0
	종교 없음	(540)	21.4	31.0	14.7	1.4	1.5	0.0	6.0	2.6	21.5	100.0
지역	서울	(193)	28.1	30.5	15.3	2.5	0.6	0.0	7.3	0.6	15.0	100.0
	인천/경기	(312)	36.2	30.2	11.1	0.3	0.4	0.1	5.6	0.8	15.3	100.0
	대전/충청/세종	(109)	32.1	28.3	13.9	1.6	1.2	0.0	5.7	1.3	15.9	100.0
	광주/전라	(95)	30.2	31.8	13.7	0.0	0.0	0.0	3.4	0.0	21.0	100.0
	대구/경북	(99)	27.8	22.7	13.6	1.3	1.5	0.0	6.1	6.4	20.7	100.0
	부산/경남/울산	(151)	23.2	27.9	15.2	1.9	2.2	0.0	4.3	3.9	21.4	100.0
	강원/제주	(41)	33.5	21.9	15.8	4.6	1.9	0.0	2.7	0.0	19.6	100.0
지역크기	대도시	(439)	25.8	29.9	14.8	1.4	0.8	0.0	6.5	1.6	19.3	100.0
	중소도시	(482)	35.2	29.1	12.8	1.3	1.2	0.1	4.0	1.3	15.1	100.0
	읍/면	(79)	30.9	20.6	11.3	1.3	0.4	0.0	9.1	4.5	21.8	100.0
소득수준	상	(192)	26.4	41.4	11.3	2.9	1.2	0.0	4.2	1.0	11.6	100.0
	중	(494)	29.9	28.9	14.5	0.8	0.8	0.0	5.2	1.9	18.0	100.0
	하	(313)	34.7	20.7	13.4	1.2	1.0	0.1	6.7	1.9	20.3	100.0
이념성향	보수	(264)	36.6	27.1	11.5	2.0	1.3	0.0	4.2	1.1	16.1	100.0
	중도	(454)	32.3	23.5	12.8	0.9	0.5	0.0	7.1	2.0	20.8	100.0
	진보	(283)	22.6	38.7	16.6	1.4	1.3	0.1	4.0	1.8	13.4	100.0

4. 한국교회 평가

4.1. 한국교회의 교회 밖 세상과 소통 평가

문10-1

한국교회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교회는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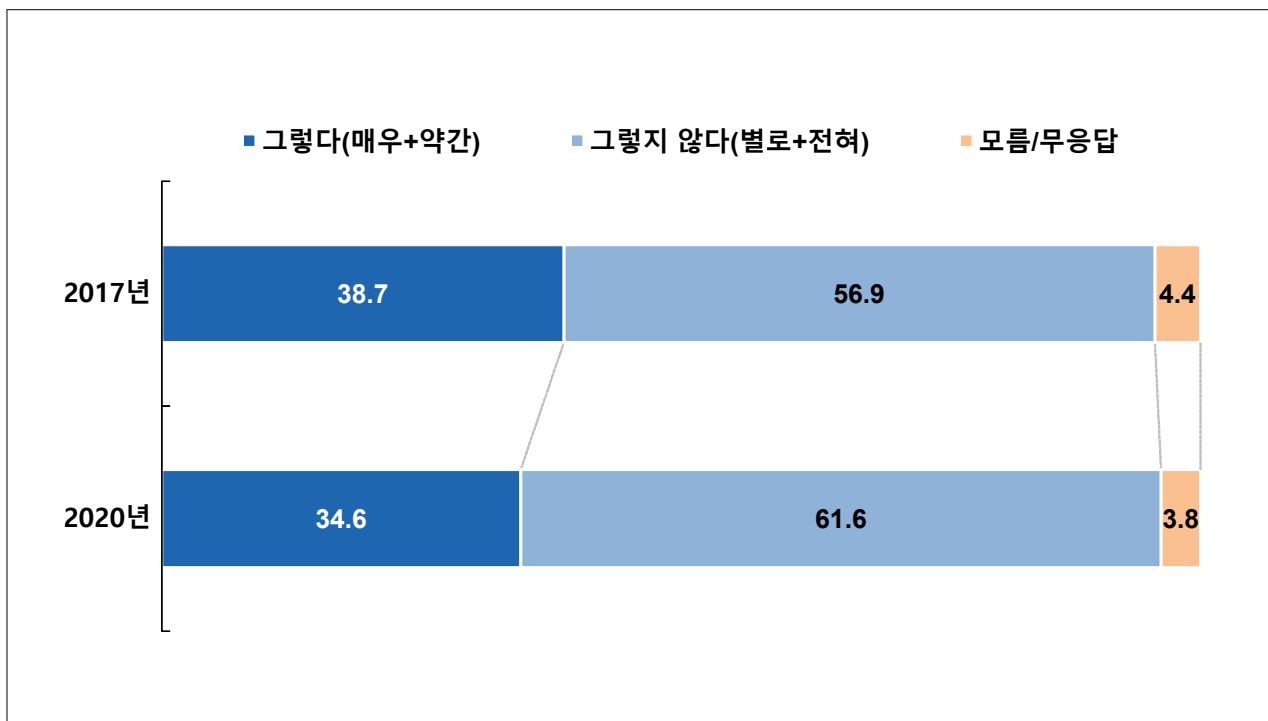


그동안 한국교회의 가장 큰 개선 과제 중 하나가 세상과의 소통문제였다. 2017년에 이어 한국교회의 세상과 소통력에 대해 평가를 받았는데, '소통한다'(매우+약간) 34.6%, '소통하지 않는다' 61.6%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국민들이 60% 이상 되었다.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소통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이 약간 증가했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개신교인의 경우 한국교회가 세상과 '소통한다' 56.9%, '소통하지 않는다' 40.7%로, 자신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별로 50대까지 연령층에서 한국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높는데, 앞에서 한국교회에 대해 그래도 긍정적인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한국교회가 소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4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와의 소통'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한국교회 평가(한국교회는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다)

(N=1000, %)



[표] 한국교회 평가(한국교회는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다, 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평균 (4점 척도)
전체		(1000)	6.7	27.8	37.1	24.5	34.6	61.6	3.8	100.0	2.17
성별	남자	(500)	5.3	26.4	37.2	27.3	31.6	64.5	3.9	100.0	2.10
	여자	(500)	8.2	29.3	37.0	21.7	37.5	58.8	3.8	100.0	2.25
연령	20대	(167)	5.0	40.2	33.9	18.7	45.2	52.6	2.2	100.0	2.32
	30대	(171)	2.7	18.0	47.6	30.4	20.7	78.0	1.3	100.0	1.93
	40대	(204)	3.1	17.4	38.3	36.9	20.5	75.2	4.2	100.0	1.86
	50대	(216)	7.6	25.9	36.0	26.1	33.5	62.1	4.4	100.0	2.16
	60대 이상	(242)	13.0	36.7	31.9	12.5	49.7	44.4	5.9	100.0	2.53
직업	자영업	(181)	5.3	21.8	36.2	32.0	27.2	68.2	4.6	100.0	2.01
	블루칼라	(104)	5.0	26.7	43.7	20.8	31.7	64.5	3.8	100.0	2.17
	화이트칼라	(319)	4.3	24.0	39.5	31.4	28.3	71.0	0.7	100.0	2.01
	가정주부	(175)	12.1	34.5	30.1	16.0	46.7	46.1	7.2	100.0	2.46
	학생	(83)	3.4	34.6	37.4	21.8	38.0	59.2	2.9	100.0	2.20
	무직/기타	(124)	11.7	34.9	38.0	10.0	46.5	48.1	5.4	100.0	2.51
종교	기독교(개신교)	(193)	16.7	40.1	31.4	9.3	56.9	40.7	2.5	100.0	2.66
	가톨릭교	(83)	11.4	26.0	39.3	19.8	37.4	59.0	3.6	100.0	2.30
	불교	(178)	6.1	26.4	33.6	28.5	32.6	62.1	5.3	100.0	2.11
	기타 종교	(6)	0.0	15.2	43.1	41.7	15.2	84.8	0.0	100.0	1.73
	종교 없음	(540)	2.7	24.3	39.9	29.2	27.0	69.1	3.9	100.0	2.01
지역	서울	(193)	11.3	28.7	33.2	25.8	40.0	59.0	1.0	100.0	2.26
	인천/경기	(312)	5.9	27.9	40.6	22.8	33.8	63.4	2.8	100.0	2.17
	대전/충청/세종	(109)	4.5	24.3	36.8	27.0	28.9	63.8	7.3	100.0	2.07
	광주/전라	(95)	6.4	20.8	33.9	34.2	27.2	68.1	4.7	100.0	1.99
	대구/경북	(99)	6.7	32.6	42.4	13.8	39.4	56.1	4.5	100.0	2.34
	부산/경남/울산	(151)	3.2	28.4	36.6	24.8	31.7	61.4	7.0	100.0	2.11
	강원/제주	(41)	10.6	35.1	26.4	27.9	45.7	54.3	0.0	100.0	2.28
지역크기	대도시	(439)	7.1	29.2	35.9	24.1	36.3	59.9	3.8	100.0	2.20
	중소도시	(482)	6.2	25.3	39.7	25.1	31.5	64.8	3.6	100.0	2.13
	읍/면	(79)	7.8	35.6	28.3	23.4	43.4	51.7	5.0	100.0	2.29
소득수준	상	(192)	4.8	25.6	33.5	34.4	30.3	67.9	1.8	100.0	2.01
	중	(494)	5.6	29.0	39.6	22.1	34.6	61.8	3.7	100.0	2.19
	하	(313)	9.7	27.4	35.4	22.2	37.1	57.6	5.2	100.0	2.26
이념성향	보수	(264)	9.8	31.6	36.8	20.2	41.4	57.0	1.6	100.0	2.31
	중도	(454)	5.9	29.5	37.3	21.0	35.4	58.3	6.3	100.0	2.22
	진보	(283)	5.2	21.5	37.1	34.2	26.8	71.3	1.9	100.0	1.98

4-2. 한국교회의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 기여도 평가

문10-2

한국교회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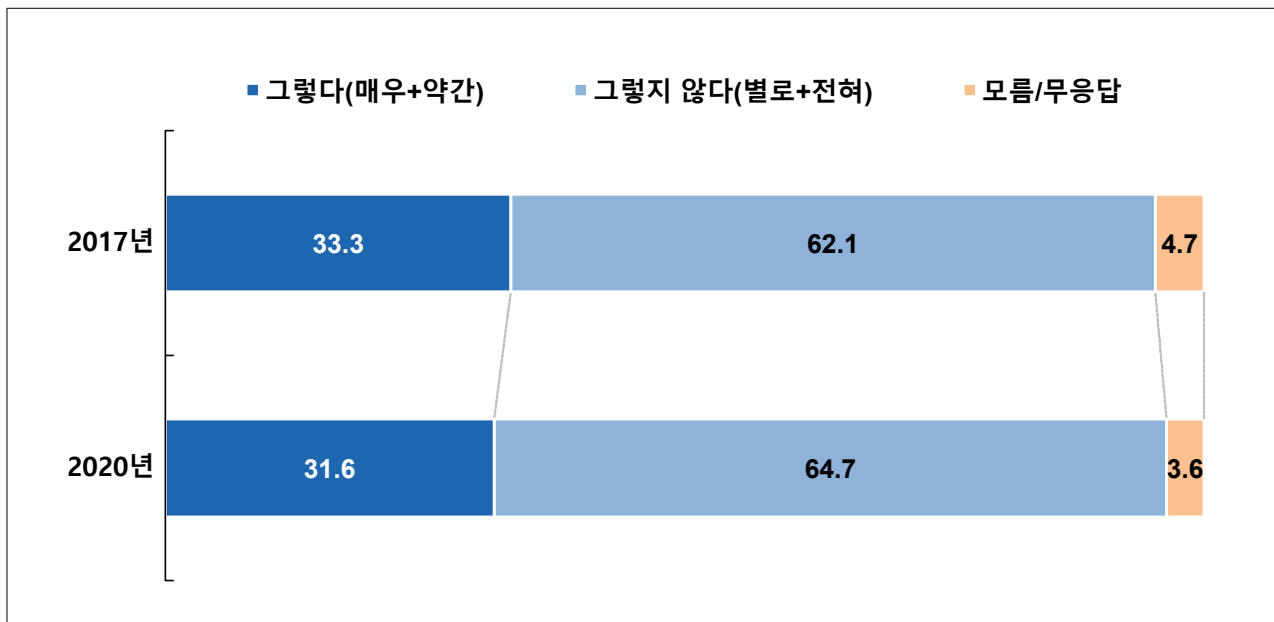
그럼,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기여하고 있다'(매우+약간) 31.6%, '기여하고 있지 않다'(별로+전혀) 64.7%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부정 응답이 기여한다는 긍정응답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기여한다'는 응답이 약간 감소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계층별로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여자, 60대 이상 고령층, 읍/면지역 거주자, 이념적으로 보수층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한국교회 평가(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N=1000, %)



[표] 한국교회 평가(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평균 (4점 척도)
전체		(1000)	6.3	25.4	34.8	29.9	31.6	64.7	3.6	100.0	2.08
성별	남자	(500)	4.5	23.8	35.1	34.4	28.3	69.4	2.3	100.0	1.98
	여자	(500)	8.1	26.9	34.6	25.5	35.0	60.0	4.9	100.0	2.19
연령	20대	(167)	1.8	32.2	40.7	23.2	34.1	63.9	2.1	100.0	2.13
	30대	(171)	2.7	15.7	39.1	41.8	18.4	80.9	0.7	100.0	1.79
	40대	(204)	4.2	17.1	33.5	43.3	21.2	76.8	2.0	100.0	1.82
	50대	(216)	5.5	24.6	33.6	31.9	30.1	65.5	4.4	100.0	2.04
	60대 이상	(242)	14.4	35.1	30.0	13.1	49.5	43.1	7.4	100.0	2.55
직업	자영업	(181)	5.9	21.8	33.6	36.5	27.6	70.1	2.3	100.0	1.97
	블루칼라	(104)	2.4	24.8	37.9	30.7	27.3	68.5	4.2	100.0	1.99
	화이트칼라	(319)	3.7	21.9	35.4	38.8	25.5	74.1	0.3	100.0	1.90
	가정주부	(175)	13.9	29.3	30.1	16.6	43.2	46.7	10.1	100.0	2.45
	학생	(83)	2.8	28.7	42.7	23.2	31.4	65.9	2.7	100.0	2.11
	무직/기타	(124)	8.7	31.8	36.8	18.0	40.5	54.8	4.7	100.0	2.33
종교	기독교(개신교)	(193)	18.9	38.8	30.5	9.8	57.7	40.3	2.0	100.0	2.68
	가톨릭교	(83)	7.7	26.9	32.3	27.0	34.6	59.3	6.1	100.0	2.16
	불교	(178)	6.8	19.7	39.1	29.7	26.4	68.8	4.8	100.0	2.04
	기타 종교	(6)	0.0	17.3	37.4	41.8	17.3	79.2	3.5	100.0	1.75
	종교 없음	(540)	1.5	22.3	35.3	37.4	23.8	72.8	3.4	100.0	1.87
지역	서울	(193)	5.7	24.8	36.7	31.7	30.6	68.3	1.1	100.0	2.05
	인천/경기	(312)	7.6	25.6	31.6	32.7	33.1	64.2	2.6	100.0	2.08
	대전/충청/세종	(109)	4.6	21.7	43.1	25.0	26.3	68.1	5.5	100.0	2.06
	광주/전라	(95)	5.4	21.8	29.6	38.9	27.3	68.5	4.3	100.0	1.94
	대구/경북	(99)	6.7	24.7	45.6	16.9	31.4	62.5	6.1	100.0	2.23
	부산/경남/울산	(151)	5.0	27.3	32.9	29.7	32.3	62.5	5.1	100.0	2.08
	강원/제주	(41)	9.2	38.6	22.1	25.1	47.8	47.1	5.1	100.0	2.34
지역크기	대도시	(439)	5.3	24.9	37.9	28.8	30.1	66.7	3.2	100.0	2.07
	중소도시	(482)	7.1	24.9	32.7	31.5	31.9	64.2	3.9	100.0	2.08
	읍/면	(79)	7.2	31.1	31.1	26.0	38.3	57.1	4.6	100.0	2.20
소득수준	상	(192)	5.2	23.1	30.7	40.6	28.4	71.3	0.4	100.0	1.93
	중	(494)	5.7	28.1	34.7	28.8	33.8	63.6	2.6	100.0	2.11
	하	(313)	7.8	22.4	37.5	25.0	30.2	62.5	7.3	100.0	2.14
이념성향	보수	(264)	10.4	30.6	32.9	23.0	41.0	55.9	3.2	100.0	2.29
	중도	(454)	5.5	25.4	38.0	26.1	30.9	64.1	5.1	100.0	2.11
	진보	(283)	3.8	20.4	31.5	42.5	24.2	74.1	1.8	100.0	1.85

5. 한국교회의 과제

5-1.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문3

○○님께서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2017년과 비슷하게 '불투명한 재정사용'이 2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회지도자들의 삶' 22.8%, '타종교에 대한 태도' 1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과 비교해 보면, '교회지도자들의 삶'이 3위에서 2위로 올라선 것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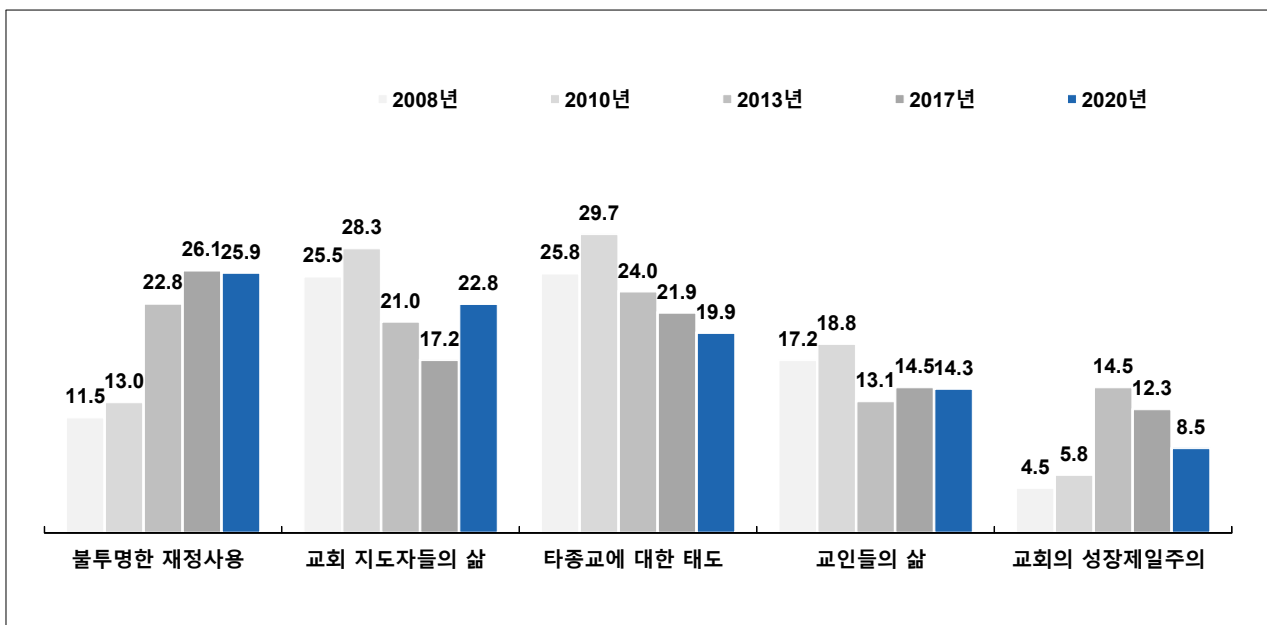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불투명한 재정사용'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1위로 지적되어 왔는데, 각 교단/노회 차원에서 재정사용 문제에 대한 원칙을 세워, 개 교회 및 산하 기독교 단체를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층별로, '불투명한 재정 사용' 응답은 20대층, 가톨릭인과 무종교인, 소득수준별로 상층, 이념성향별로 진보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회 지도자들의 삶'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종교별로 개신교인은 '교회지도자들의 삶'을 1위로 지적한 반면, 가톨릭인과 무종교인은 '불투명한 재정사용'을 1위로 지적해 대조적이었다.

[그림]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상위 5순위)

(N=1000, %)



[표]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불투명한 재정사용	교회 지도자들 의 삶	타종교에 대한 태도	교인들의 삶	교회의 성장제일 주의	종교와 정치의 분리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25.9	22.8	19.9	14.3	8.5	0.4	8.3	100.0
성별	남자	(500)	26.0	24.0	20.9	12.4	8.6	0.4	7.8	100.0
	여자	(500)	25.7	21.6	18.9	16.3	8.3	0.5	8.8	100.0
연령	20대	(167)	34.5	11.5	25.6	17.5	5.1	0.0	5.7	100.0
	30대	(171)	27.2	21.3	23.7	11.5	9.5	0.0	6.8	100.0
	40대	(204)	27.1	22.7	20.8	13.3	9.1	1.3	5.7	100.0
	50대	(216)	26.1	28.4	12.6	13.2	10.7	0.5	8.4	100.0
	60대 이상	(242)	17.6	26.6	18.9	16.0	7.4	0.3	13.2	100.0
직업	자영업	(181)	22.8	29.1	15.5	14.7	11.3	0.4	6.1	100.0
	블루칼라	(104)	22.2	22.6	23.9	14.8	4.5	0.0	11.9	100.0
	화이트칼라	(319)	31.3	19.5	22.0	12.3	10.3	0.4	4.3	100.0
	가정주부	(175)	22.6	21.3	17.8	16.3	5.3	0.6	16.1	100.0
	학생	(83)	29.2	16.1	27.5	18.1	8.0	0.0	1.2	100.0
	무직/기타	(124)	20.2	31.1	16.7	12.8	8.4	0.0	10.9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93)	19.2	29.6	10.1	26.4	8.0	0.0	6.7	100.0
	가톨릭교	(83)	28.2	18.8	27.3	7.4	6.9	0.0	11.5	100.0
	불교	(178)	18.5	23.6	26.4	11.1	11.8	0.0	8.7	100.0
	기타 종교	(6)	9.3	30.6	24.8	13.2	14.7	0.0	7.4	100.0
	종교 없음	(540)	30.5	20.6	20.0	12.2	7.7	0.8	8.2	100.0
지역	서울	(193)	28.2	24.3	17.6	14.4	8.5	0.0	6.9	100.0
	인천/경기	(312)	23.3	22.5	21.5	16.3	8.0	0.9	7.4	100.0
	대전/충청/세종	(109)	35.3	19.1	17.5	12.2	10.5	0.0	5.3	100.0
	광주/전라	(95)	23.4	26.9	22.2	12.5	6.6	0.0	8.5	100.0
	대구/경북	(99)	22.1	18.4	20.2	14.6	12.0	0.0	12.8	100.0
	부산/경남/울산	(151)	23.8	22.9	19.4	13.8	7.3	0.4	12.4	100.0
	강원/제주	(41)	31.1	27.7	20.3	9.9	5.9	2.7	2.4	100.0
지역크기	대도시	(439)	25.1	23.6	18.9	14.0	8.8	0.1	9.5	100.0
	중소도시	(482)	27.5	21.5	20.8	14.4	8.0	0.8	7.0	100.0
	읍/면	(79)	19.9	25.9	20.2	15.6	9.1	0.0	9.3	100.0
소득수준	상	(192)	30.4	21.6	18.5	14.3	12.4	0.0	2.8	100.0
	중	(494)	25.1	23.3	20.4	15.4	6.7	0.9	8.2	100.0
	하	(313)	24.2	22.7	19.9	12.7	8.8	0.0	11.7	100.0
이념성향	보수	(264)	24.2	25.9	15.7	20.3	6.9	0.9	5.9	100.0
	중도	(454)	23.3	20.1	24.2	14.1	7.4	0.3	10.6	100.0
	진보	(283)	31.4	24.1	16.9	9.1	11.6	0.2	6.7	100.0

5-2.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문4

그럼 다음의 사회적 활동 중에서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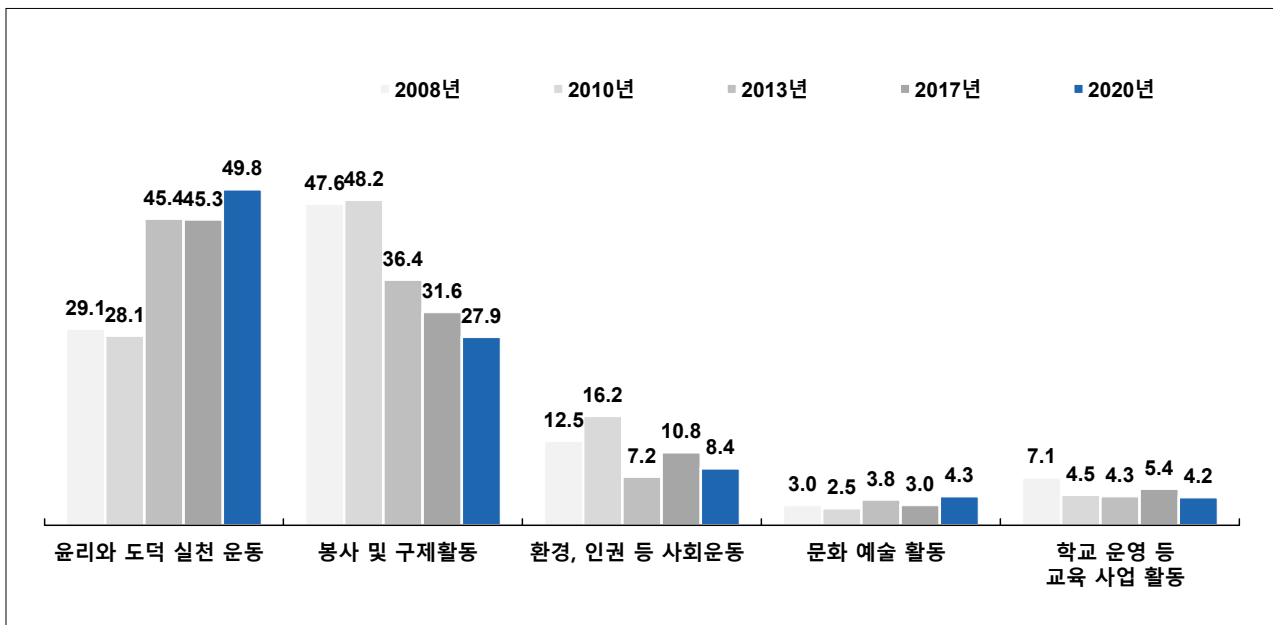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활동을 질문한 결과, '윤리와 도덕실천운동'이 49.8%로, 절반의 국민이 한국교회가 윤리도덕운동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봉사/구제활동' 27.9%, '환경/인권 등 사회운동' 8.4% 등의 순이었다. '윤리와 도덕실천운동'은 2010년까지는 2위권에 머물렀는데, 2013년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교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층별로 '윤리와 도덕실천운동' 응답은 40대 연령층에서, 대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상위 5순위)

(N=1000, %)



[표]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봉사 및 구제활동	환경, 등 인권 등 사회운동	문화 예술 활동	학교 운영 등 교육 사업 활동	기타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49.8	27.9	8.4	4.3	4.2	1.0	4.4	100.0
성별	남자	(500)	47.9	30.5	7.8	4.4	4.8	1.0	3.5	100.0
	여자	(500)	51.6	25.3	9.1	4.2	3.6	1.0	5.3	100.0
연령	20대	(167)	44.1	32.1	7.4	4.3	7.6	0.7	3.9	100.0
	30대	(171)	49.3	27.4	12.1	2.2	2.9	1.6	4.5	100.0
	40대	(204)	55.4	27.1	6.2	5.3	2.6	1.2	2.4	100.0
	50대	(216)	51.2	24.8	8.2	4.0	3.2	1.9	6.7	100.0
	60대 이상	(242)	48.1	28.8	8.7	5.2	4.9	0.0	4.3	100.0
직업	자영업	(181)	47.2	30.5	8.4	4.6	2.8	2.4	4.2	100.0
	블루칼라	(104)	44.6	27.2	12.2	7.4	4.3	0.0	4.4	100.0
	화이트칼라	(319)	55.0	25.3	9.2	3.9	3.0	0.6	2.9	100.0
	가정주부	(175)	51.0	25.0	7.7	2.3	4.5	2.3	7.2	100.0
	학생	(83)	47.0	34.2	6.2	3.4	5.9	0.0	3.3	100.0
	무직/기타	(124)	45.2	33.4	6.6	5.4	7.0	0.0	2.4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93)	41.6	36.1	7.4	2.5	4.1	1.5	6.7	100.0
	가톨릭교	(83)	58.8	25.2	6.4	4.4	3.8	0.0	1.3	100.0
	불교	(178)	56.1	24.0	9.4	5.9	1.1	1.0	2.4	100.0
	기타 종교	(6)	34.3	15.9	15.9	9.6	3.9	0.0	20.4	100.0
	종교 없음	(540)	49.4	26.8	8.7	4.3	5.3	1.0	4.5	100.0
지역	서울	(193)	49.0	29.3	10.6	3.1	5.1	1.0	1.9	100.0
	인천/경기	(312)	49.8	30.3	7.2	3.1	4.5	1.1	4.0	100.0
	대전/충청/세종	(109)	47.9	25.5	10.8	4.5	6.3	2.0	3.1	100.0
	광주/전라	(95)	44.4	28.3	7.5	6.9	3.1	2.3	7.4	100.0
	대구/경북	(99)	57.0	23.6	9.5	3.0	2.9	0.0	3.9	100.0
	부산/경남/울산	(151)	49.4	26.5	6.9	6.3	2.9	0.0	8.1	100.0
	강원/제주	(41)	54.5	23.9	6.8	7.9	1.9	1.8	3.2	100.0
지역크기	대도시	(439)	52.3	28.2	7.0	4.3	3.3	1.2	3.7	100.0
	중소도시	(482)	48.0	27.9	9.8	4.4	4.6	1.1	4.2	100.0
	읍/면	(79)	46.6	25.8	8.2	3.9	5.9	0.0	9.5	100.0
소득수준	상	(192)	48.5	24.6	11.8	2.9	6.9	1.1	4.1	100.0
	중	(494)	50.9	28.8	7.7	4.1	3.5	0.9	4.1	100.0
	하	(313)	48.8	28.6	7.5	5.4	3.5	1.2	5.0	100.0
이념성향	보수	(264)	51.7	29.3	6.0	5.2	3.5	0.7	3.7	100.0
	중도	(454)	47.8	26.2	8.6	3.8	6.2	1.0	6.3	100.0
	진보	(283)	51.1	29.2	10.5	4.2	1.6	1.3	2.0	100.0

5-3.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문5

○○님께서 현재 한국교회 “목사”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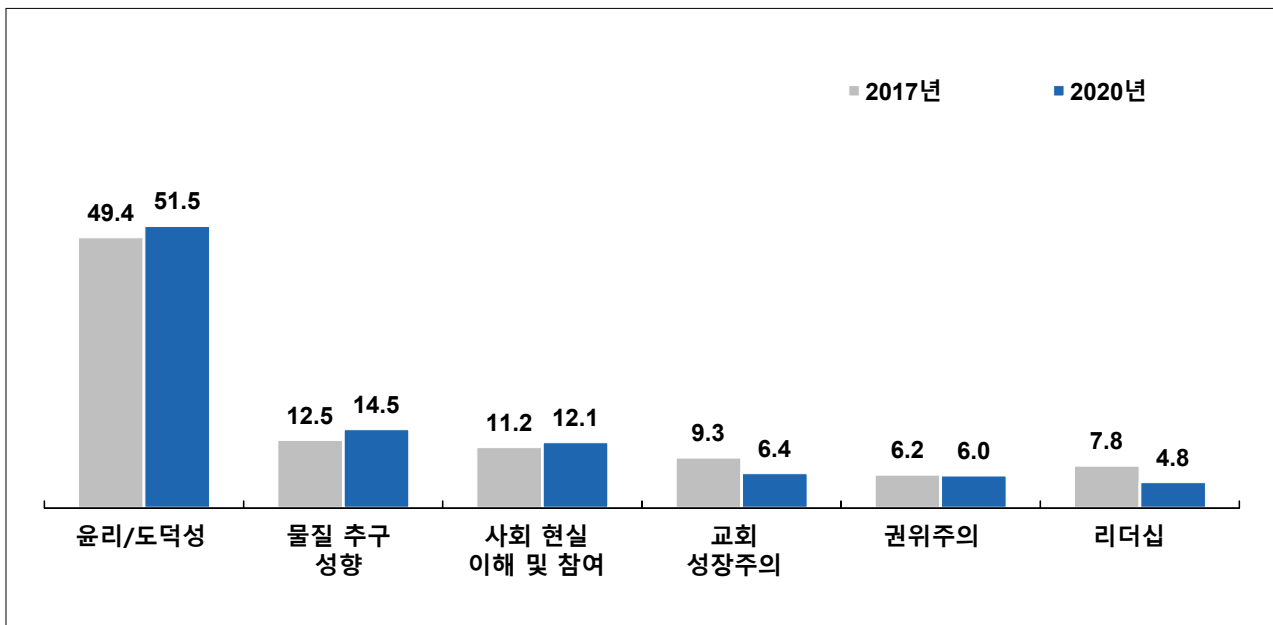


이번에는 목회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윤리/도덕성' 51.5%, '물질 추구 성향' 14.5%, '사회현실 이해 및 참여' 12.1% 등의 순으로, 목회자의 윤리/도덕성 요인이 압도적으로 높게 지적됐다.

윤리/도덕성 요인은 각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N=1000, %)



[표]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윤리/ 도덕성	물질 추구 성향	사회 현실 이해 및 참여	교회 성장주의	권위주의	리더십	기타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51.5	14.5	12.1	6.4	6.0	4.8	0.4	4.4	100.0
성별	남자	(500)	53.6	15.0	13.0	5.1	6.9	4.1	0.0	2.3	100.0
	여자	(500)	49.3	13.9	11.1	7.8	5.1	5.5	0.7	6.5	100.0
연령	20대	(167)	45.8	16.2	16.9	6.9	10.4	3.2	0.0	0.7	100.0
	30대	(171)	53.0	17.8	11.6	6.1	6.3	1.9	0.0	3.4	100.0
	40대	(204)	51.6	18.1	11.8	6.3	6.5	2.4	0.0	3.4	100.0
	50대	(216)	53.9	12.3	10.6	7.9	3.8	4.9	0.7	5.9	100.0
	60대 이상	(242)	52.0	9.8	10.7	5.2	4.4	9.9	0.9	7.1	100.0
직업	자영업	(181)	48.5	16.6	13.1	6.9	6.4	4.5	0.0	4.0	100.0
	블루칼라	(104)	55.5	13.9	11.0	3.6	8.9	1.4	0.0	5.8	100.0
	화이트칼라	(319)	56.4	13.8	11.4	8.4	6.4	2.6	0.0	0.9	100.0
	가정주부	(175)	45.3	12.0	10.3	6.1	3.3	9.5	2.0	11.4	100.0
	학생	(83)	41.6	17.4	15.9	7.9	10.4	5.4	0.0	1.5	100.0
	무직/기타	(124)	53.7	14.5	14.7	3.4	3.4	7.0	0.0	3.3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93)	45.4	12.8	10.6	8.3	8.7	8.5	0.7	5.1	100.0
	가톨릭교	(83)	52.4	12.8	15.0	5.6	5.3	5.0	1.2	2.6	100.0
	불교	(178)	55.3	11.4	16.1	4.7	3.4	4.5	0.6	3.9	100.0
	기타 종교	(6)	43.6	23.9	3.9	14.5	6.7	0.0	0.0	7.3	100.0
	종교 없음	(540)	52.3	16.2	10.9	6.4	6.0	3.6	0.0	4.6	100.0
지역	서울	(193)	52.4	17.2	11.2	5.1	5.3	4.0	0.0	4.7	100.0
	인천/경기	(312)	51.0	16.0	11.0	6.9	6.5	5.6	0.6	2.3	100.0
	대전/충청/세종	(109)	53.5	14.5	9.5	10.0	6.3	2.1	0.0	4.1	100.0
	광주/전라	(95)	55.6	14.2	10.2	6.0	3.4	4.3	0.0	6.1	100.0
	대구/경북	(99)	51.6	7.8	14.8	6.7	6.3	6.3	0.0	6.4	100.0
	부산/경남/울산	(151)	48.3	12.6	15.3	6.4	6.5	3.6	0.7	6.7	100.0
	강원/제주	(41)	46.5	12.8	16.4	0.0	8.8	11.1	1.8	2.7	100.0
지역크기	대도시	(439)	51.6	14.4	12.9	5.6	5.1	5.0	0.0	5.3	100.0
	중소도시	(482)	53.3	14.7	11.1	6.8	6.0	4.3	0.7	3.1	100.0
	읍/면	(79)	39.8	13.4	13.2	8.8	10.9	6.4	0.0	7.5	100.0
소득수준	상	(192)	49.1	17.8	12.2	7.5	6.8	4.7	0.0	1.9	100.0
	중	(494)	52.7	14.9	11.6	5.6	6.8	4.4	0.4	3.5	100.0
	하	(313)	51.0	11.6	12.8	7.0	4.2	5.4	0.5	7.4	100.0
이념성향	보수	(264)	50.7	13.3	12.2	6.9	4.8	7.1	0.3	4.7	100.0
	중도	(454)	52.8	11.7	12.7	4.6	6.8	4.6	0.6	6.1	100.0
	진보	(283)	50.1	19.9	11.0	9.0	6.0	2.8	0.0	1.3	100.0

5-4. 기독교인(개신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문6

그럼, 기독교인(개신교인)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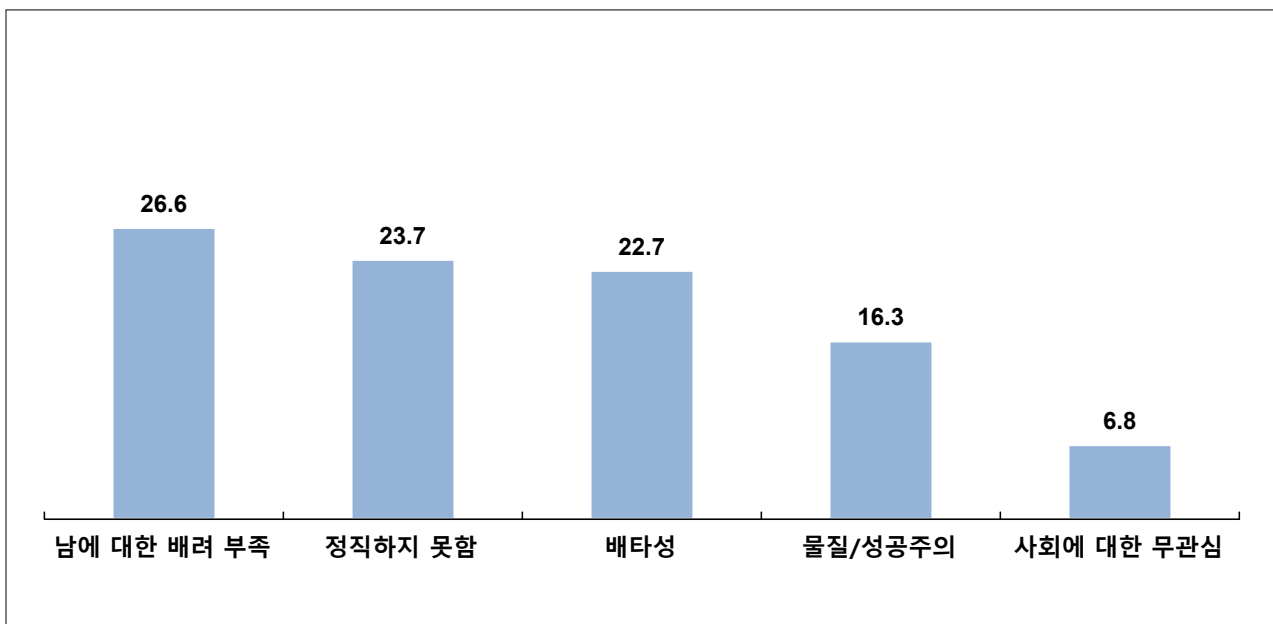


이번에는 목회자에 이어 개신교인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남에 대한 배려 부족'이 26.6%로 가장 높게 응답됐으며, 다음으로 '정직하지 못함' 23.7%, '배타성' 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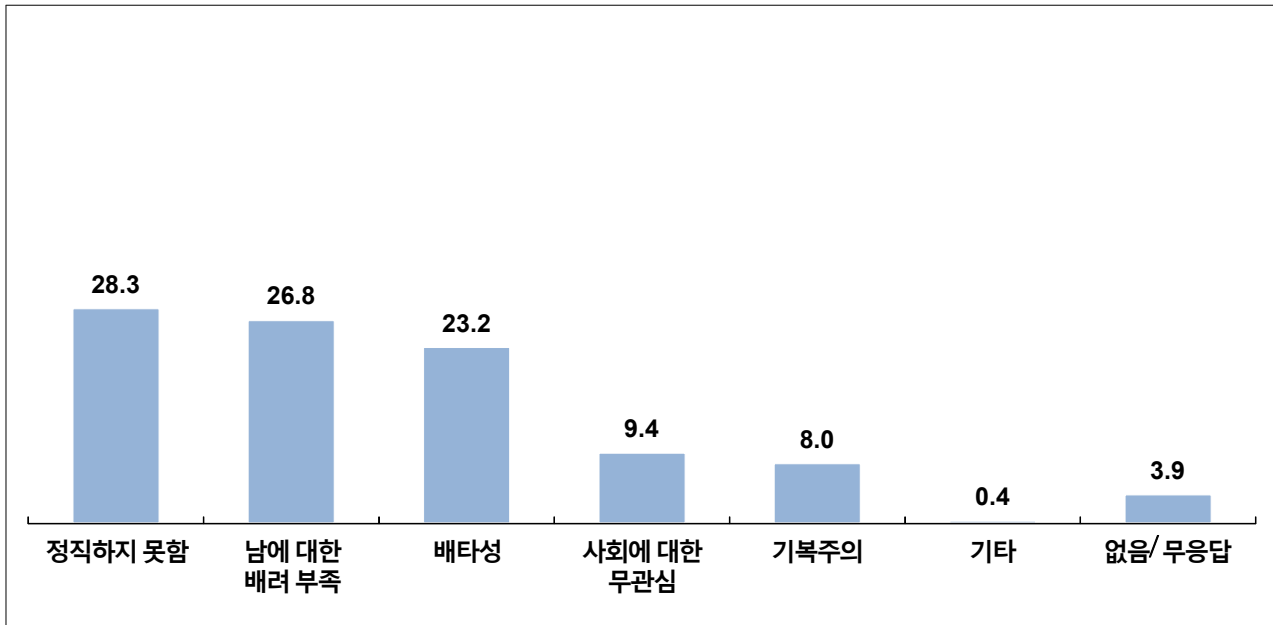
계층별로 '남에 대한 배려 부족' 응답은 60대 이상 고령층, 읍면지역 거주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정직하지 못함' 응답은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기독교인(개신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N=1000, %)



* 2017년 조사 시 보기문항이 동일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음



[표]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남에 대한 배려 부족	정직하지 못함	배타성	물질/ 성공주의	사회에 대한 무관심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26.6	23.7	22.7	16.3	6.8	3.9	100.0
성별	남자	(500)	27.0	25.5	20.7	16.9	7.1	2.8	100.0
	여자	(500)	26.3	21.9	24.7	15.7	6.5	4.9	100.0
연령	20대	(167)	27.7	18.9	20.9	16.5	13.6	2.4	100.0
	30대	(171)	26.3	20.2	28.7	18.8	3.8	2.1	100.0
	40대	(204)	20.1	23.8	31.8	17.6	4.2	2.5	100.0
	50대	(216)	25.0	27.5	20.8	14.7	6.5	5.5	100.0
	60대 이상	(242)	33.0	26.1	13.8	14.6	6.6	5.8	100.0
직업	자영업	(181)	29.6	17.9	20.5	22.0	7.9	2.0	100.0
	블루칼라	(104)	25.0	28.7	21.1	14.0	6.1	5.1	100.0
	화이트칼라	(319)	22.0	24.6	31.5	16.0	4.2	1.6	100.0
	가정주부	(175)	30.1	25.9	18.1	13.0	4.7	8.3	100.0
	학생	(83)	28.9	21.0	20.1	13.6	13.9	2.4	100.0
	무직/기타	(124)	31.4	26.9	13.0	14.7	9.6	4.5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93)	29.1	20.7	16.3	17.7	12.1	4.2	100.0
	가톨릭교	(83)	16.2	22.1	36.4	15.7	6.6	3.0	100.0
	불교	(178)	30.9	30.0	21.0	9.2	5.7	3.3	100.0
	기타 종교	(6)	20.5	29.5	25.8	14.7	0.0	9.4	100.0
	종교 없음	(540)	26.0	22.9	23.4	18.2	5.4	4.0	100.0
지역	서울	(193)	25.6	25.5	26.2	15.6	5.3	1.8	100.0
	인천/경기	(312)	28.7	22.1	22.3	15.8	6.8	4.3	100.0
	대전/충청/세종	(109)	22.9	24.9	19.3	25.7	5.0	2.3	100.0
	광주/전라	(95)	22.7	19.7	26.2	17.9	6.9	6.6	100.0
	대구/경북	(99)	28.7	30.3	20.9	10.0	5.8	4.3	100.0
	부산/경남/울산	(151)	27.4	19.5	23.6	15.6	11.1	2.7	100.0
	강원/제주	(41)	26.6	33.4	11.6	11.8	5.3	11.3	100.0
지역크기	대도시	(439)	24.0	23.8	25.4	16.4	7.7	2.8	100.0
	중소도시	(482)	27.2	24.4	20.6	17.2	6.1	4.5	100.0
	읍/면	(79)	37.7	19.3	20.9	9.9	6.2	6.0	100.0
소득수준	상	(192)	22.6	19.8	26.3	18.5	8.7	4.1	100.0
	중	(494)	27.8	23.9	23.6	14.6	6.5	3.5	100.0
	하	(313)	27.2	25.9	19.1	17.5	6.1	4.3	100.0
이념성향	보수	(264)	28.8	26.7	20.4	13.5	5.8	4.8	100.0
	중도	(454)	27.6	24.4	21.2	15.3	7.0	4.5	100.0
	진보	(283)	23.0	19.9	27.3	20.4	7.4	2.0	100.0

6.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6-1. 가짜 뉴스 심각성

문11

○○님께서 요즈음 가짜 뉴스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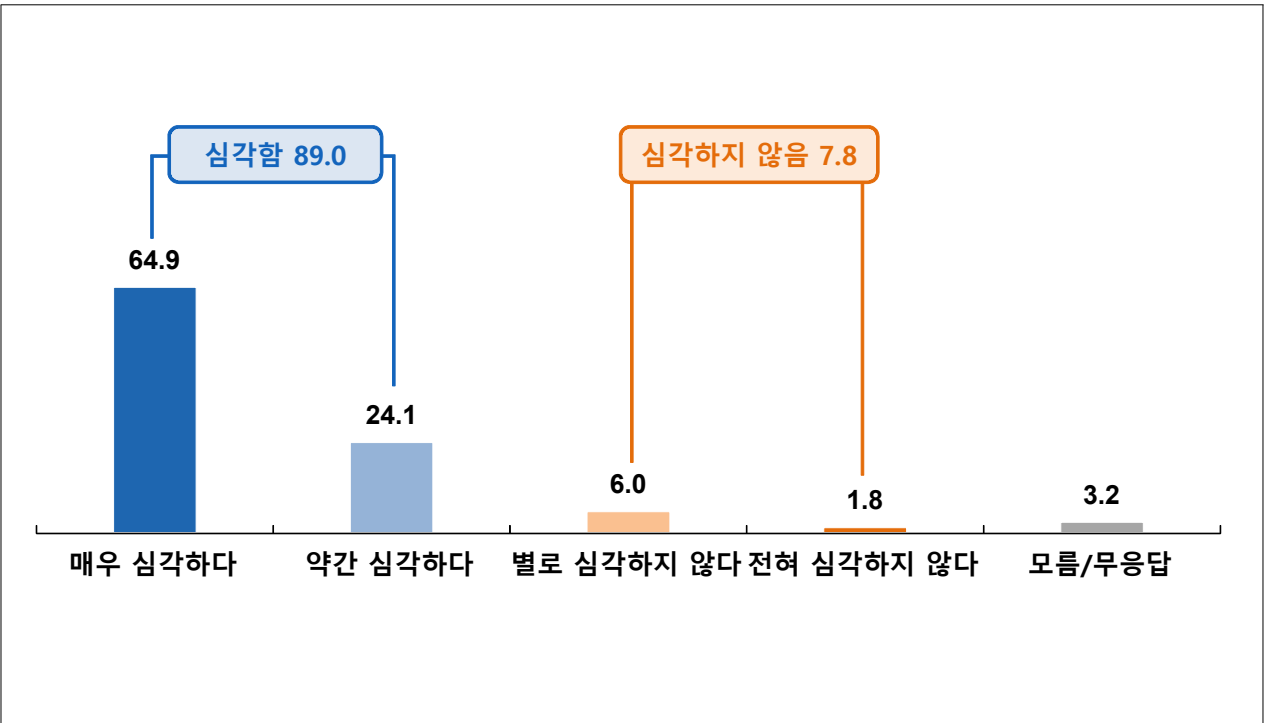


최근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요즈음 가짜뉴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물었는데, 무려 89%의 국민이 '심각하다'(매우+약간)고 응답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층별로 가짜뉴스가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은 40-50대 연령층, 개신교인 그리고 이념적으로 진보성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가짜 뉴스 심각성

(N=1000, %)



[표] 가짜 뉴스 심각성(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함 (약간+ 매우)	심각하지 않음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평균 (4점 척도)
전체		(1000)	64.9	24.1	6.0	1.8	89.0	7.8	3.2	100.0	3.57
성별	남자	(500)	64.3	23.9	7.5	2.5	88.2	10.0	1.8	100.0	3.53
	여자	(500)	65.5	24.4	4.5	1.1	89.9	5.6	4.6	100.0	3.62
연령	20대	(167)	46.0	40.7	8.6	2.0	86.7	10.6	2.7	100.0	3.34
	30대	(171)	66.2	26.8	5.1	0.7	93.0	5.8	1.2	100.0	3.60
	40대	(204)	72.5	19.0	3.9	4.0	91.5	7.8	0.7	100.0	3.61
	50대	(216)	75.0	13.4	8.2	0.6	88.4	8.8	2.8	100.0	3.67
	60대 이상	(242)	61.6	24.8	4.7	1.7	86.4	6.3	7.3	100.0	3.58
직업	자영업	(181)	77.1	12.6	6.9	0.6	89.7	7.5	2.9	100.0	3.71
	블루칼라	(104)	70.1	22.0	2.8	2.6	92.1	5.4	2.5	100.0	3.64
	화이트칼라	(319)	65.3	26.3	4.6	3.0	91.6	7.7	0.7	100.0	3.55
	가정주부	(175)	66.8	21.4	3.7	0.8	88.2	4.5	7.3	100.0	3.66
	학생	(83)	39.2	45.3	12.9	2.5	84.5	15.5	0.0	100.0	3.21
	무직/기타	(124)	57.7	25.2	10.1	0.8	83.0	10.9	6.1	100.0	3.49
종교	기독교(개신교)	(193)	71.6	18.2	6.3	1.4	89.8	7.7	2.5	100.0	3.64
	가톨릭교	(83)	58.1	31.0	7.2	0.0	89.1	7.2	3.7	100.0	3.53
	불교	(178)	63.8	20.8	9.1	3.4	84.6	12.5	2.9	100.0	3.49
	기타 종교	(6)	37.4	48.1	14.5	0.0	85.5	14.5	0.0	100.0	3.23
	종교 없음	(540)	64.2	26.1	4.6	1.7	90.3	6.3	3.4	100.0	3.58
지역	서울	(193)	66.8	24.1	3.7	3.9	90.9	7.6	1.5	100.0	3.56
	인천/경기	(312)	65.8	22.6	7.0	2.2	88.4	9.2	2.4	100.0	3.56
	대전/충청/세종	(109)	66.6	24.0	3.7	0.8	90.6	4.6	4.9	100.0	3.64
	광주/전라	(95)	66.6	25.5	5.8	1.0	92.1	6.8	1.1	100.0	3.59
	대구/경북	(99)	52.6	30.4	11.1	1.3	82.9	12.4	4.6	100.0	3.41
	부산/경남/울산	(151)	64.5	23.2	6.3	0.5	87.7	6.8	5.5	100.0	3.61
	강원/제주	(41)	72.0	22.1	1.4	0.0	94.1	1.4	4.5	100.0	3.74
지역크기	대도시	(439)	63.9	25.2	6.0	2.1	89.1	8.1	2.8	100.0	3.55
	중소도시	(482)	64.9	24.4	5.9	1.4	89.4	7.3	3.3	100.0	3.58
	읍/면	(79)	70.4	16.3	6.4	2.7	86.7	9.1	4.2	100.0	3.61
소득수준	상	(192)	62.1	25.4	7.0	4.4	87.5	11.4	1.0	100.0	3.47
	중	(494)	66.8	24.9	4.6	1.0	91.7	5.6	2.7	100.0	3.62
	하	(313)	63.5	22.2	7.5	1.5	85.7	9.0	5.3	100.0	3.56
이념성향	보수	(264)	61.5	24.9	6.1	3.0	86.3	9.1	4.6	100.0	3.52
	중도	(454)	58.9	27.9	7.4	1.5	86.8	8.9	4.3	100.0	3.51
	진보	(283)	77.8	17.4	3.6	1.2	95.2	4.8	0.0	100.0	3.72

6-2. 가짜 뉴스의 주 유통 경로

문12

○○님께서는 가짜 뉴스가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전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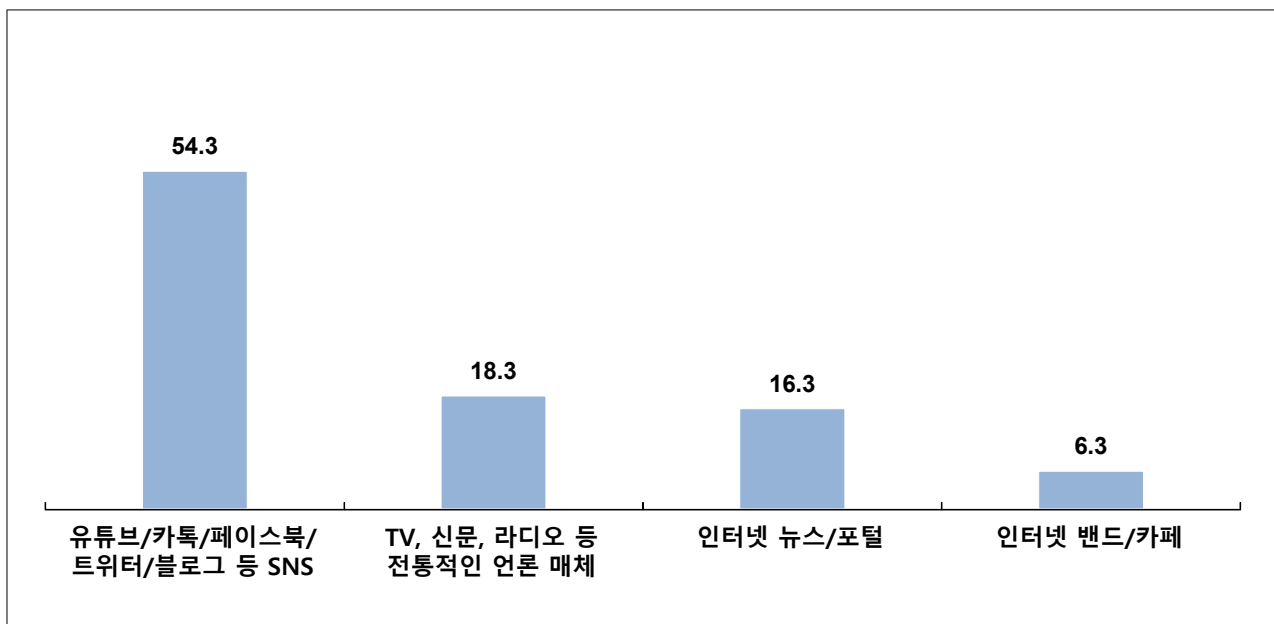


우리 국민들은 어느 경로를 통해 가짜뉴스를 접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 'SNS(유튜브/카톡/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등)'를 통해 접한다는 응답이 54.3%로 압도적인 1위였고, 다음으로 '전통적인 언론매체(TV, 신문, 라디오 등) 18.3%, '인터넷뉴스/포털'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인식은 이념성향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진보성향층은 'SNS'가, 보수성향층은 '전통적인 언론매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가짜 뉴스의 주 유통 경로(상위 4위)

(N=1000, %)



[표] 가짜 뉴스의 주 유통 경로(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유튜브/카톡 /페이스북/ 트위터/블로 그 등 SNS	TV, 신문, 라디오 등 전통적인 언론 매체	인터넷 뉴스/포털	인터넷 밴드/카페	기타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54.3	18.3	16.3	6.3	0.6	4.2	100.0
성별	남자	(500)	52.5	18.5	18.2	7.3	0.8	2.8	100.0
	여자	(500)	56.2	18.2	14.4	5.3	0.4	5.6	100.0
연령	20대	(167)	57.0	10.1	20.9	10.2	0.0	1.9	100.0
	30대	(171)	52.7	15.4	24.1	7.3	0.5	0.0	100.0
	40대	(204)	57.1	20.5	14.6	5.8	0.4	1.5	100.0
	50대	(216)	59.5	20.6	13.6	4.2	0.0	2.0	100.0
	60대 이상	(242)	46.6	22.2	11.4	5.2	1.7	13.0	100.0
직업	자영업	(181)	56.3	18.7	18.0	6.0	0.6	0.4	100.0
	블루칼라	(104)	54.1	13.9	21.0	7.8	0.0	3.2	100.0
	화이트칼라	(319)	59.3	15.7	17.8	7.0	0.3	0.0	100.0
	가정주부	(175)	48.1	23.0	12.0	3.2	1.2	12.5	100.0
	학생	(83)	55.3	12.8	20.0	11.0	0.0	1.0	100.0
	무직/기타	(124)	45.8	25.1	10.6	5.7	1.6	11.1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93)	49.2	22.7	13.3	7.8	1.2	5.9	100.0
	가톨릭교	(83)	53.5	24.4	18.4	0.0	0.0	3.8	100.0
	불교	(178)	46.9	24.1	15.1	5.9	1.2	6.8	100.0
	기타 종교	(6)	70.1	15.8	7.4	6.7	0.0	0.0	100.0
	종교 없음	(540)	58.5	14.0	17.5	6.9	0.3	2.8	100.0
지역	서울	(193)	58.4	18.1	13.4	6.3	0.9	2.8	100.0
	인천/경기	(312)	58.5	16.7	14.8	6.8	1.1	2.2	100.0
	대전/충청/세종	(109)	48.7	21.1	21.0	4.7	0.7	3.9	100.0
	광주/전라	(95)	44.2	24.8	18.9	6.3	0.0	5.8	100.0
	대구/경북	(99)	54.9	15.6	18.2	4.0	0.0	7.3	100.0
	부산/경남/울산	(151)	52.6	18.2	14.6	9.2	0.0	5.4	100.0
	강원/제주	(41)	46.6	16.5	24.3	1.9	0.0	10.7	100.0
지역크기	대도시	(439)	54.7	17.7	17.3	6.5	0.4	3.5	100.0
	중소도시	(482)	54.9	17.3	16.6	6.5	0.9	3.8	100.0
	읍/면	(79)	48.9	27.5	9.1	4.3	0.0	10.2	100.0
소득수준	상	(192)	57.0	17.3	16.5	7.0	1.5	0.8	100.0
	중	(494)	55.9	17.7	16.8	6.9	0.5	2.4	100.0
	하	(313)	50.3	20.0	15.4	5.0	0.2	9.1	100.0
이념성향	보수	(264)	48.3	23.5	16.2	6.2	0.9	4.9	100.0
	중도	(454)	53.3	18.1	17.3	5.7	0.4	5.2	100.0
	진보	(283)	61.5	13.8	14.7	7.5	0.7	1.9	100.0

7. 4월 총선에 대한 인식

7-1. 목사의 정치적 참여 허용 정도

문 15

○○님께서서는 목사가 정치적인 문제에 어느 정도까지 발언 혹은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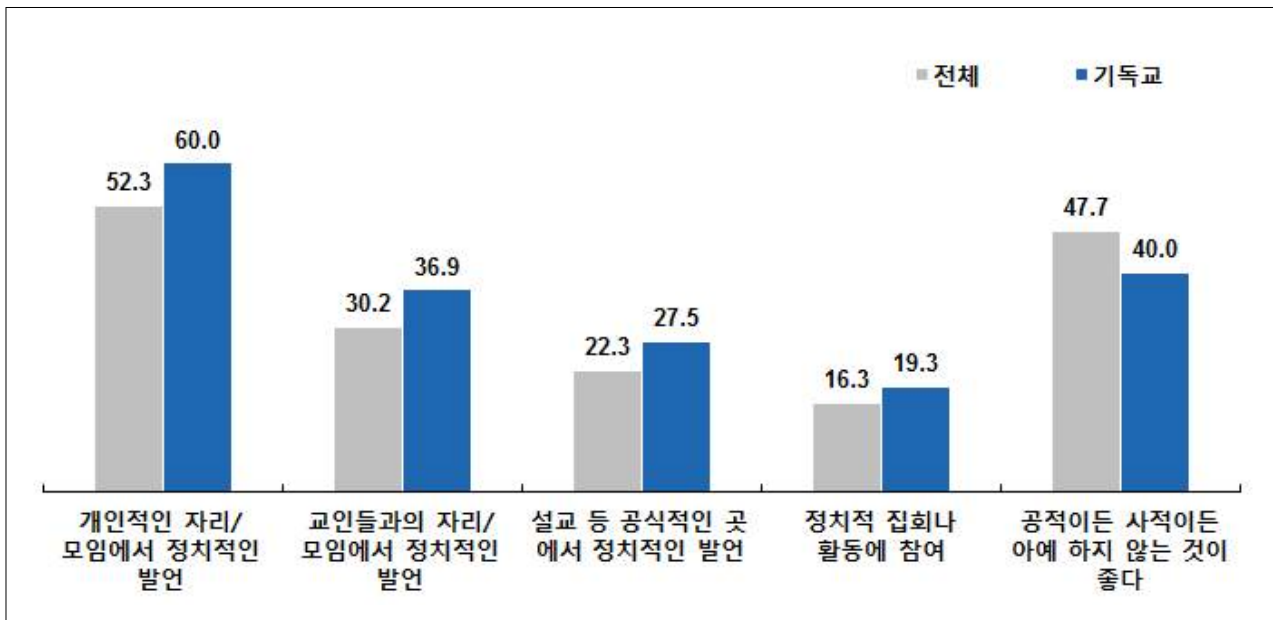
최근 한기총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활동이 기독교내에서 이슈가 된 것과 관련, 기독교 목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의 절 반 가량(47.7%)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으며, 52.3%는 사석에서는 괜찮다는 입장이고, 정치적 집회참여나 활동해도 된다는 의견은 16.3%로 나타났다.

개신교인의 60%는 목사가 개인적인 자리나 모임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인데, 전체적으로 목사의 정치적 발언 또는 활동에 대해 일반국민 보다는 다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사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정치적 발언/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 읍면지역 거주자, 소득수준 하층 그리고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목사의 정치적 참여 허용 정도(전체 vs. 개신교인, 중복응답)

(N=1000, %)



[표] 목사의 정치적 참여 허용 정도(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개인적인 자리/모임에서 정치적인 발언	교인들과의 자리/모임에서 정치적인 발언	설교 등 공식적인 곳에서 정치적인 발언	정치적 집회나 활동에 참여	공직이든 사적이든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전체		(1000)	52.3	30.2	22.3	16.3	47.7
성별	남자	(500)	50.3	28.4	21.1	16.5	49.7
	여자	(500)	54.4	32.0	23.4	16.0	45.6
연령	20대	(167)	64.8	38.7	23.4	15.3	35.2
	30대	(171)	60.7	28.4	18.8	14.5	39.3
	40대	(204)	49.8	22.3	18.2	15.3	50.2
	50대	(216)	47.3	27.3	21.4	18.1	52.7
	60대 이상	(242)	44.5	35.0	28.1	17.3	55.5
직업	자영업	(181)	44.4	25.7	20.8	16.4	55.6
	블루칼라	(104)	49.0	24.3	18.2	16.7	51.0
	화이트칼라	(319)	54.9	26.3	17.1	13.9	45.1
	가정주부	(175)	48.3	33.5	27.7	20.7	51.7
	학생	(83)	70.2	46.1	28.2	15.4	29.8
	무직/기타	(124)	54.3	37.9	30.5	16.7	45.7
종교	기독교(개신교)	(193)	60.0	36.9	27.5	19.3	40.0
	가톨릭교	(83)	45.8	26.5	21.6	12.0	54.2
	불교	(178)	51.0	36.1	25.1	18.9	49.0
	기타 종교	(6)	39.8	22.3	18.4	14.6	60.2
	종교 없음	(540)	51.2	26.6	19.6	15.0	48.8
지역	서울	(193)	55.5	27.7	19.9	13.7	44.5
	인천/경기	(312)	56.1	30.4	25.3	18.2	43.9
	대전/충청/세종	(109)	54.5	32.2	27.3	18.8	45.5
	광주/전라	(95)	36.9	17.9	8.6	7.2	63.1
	대구/경북	(99)	54.8	39.9	22.7	18.0	45.2
	부산/경남/울산	(151)	47.6	33.0	22.5	17.0	52.4
	강원/제주	(41)	50.4	30.4	25.9	20.8	49.6
지역크기	대도시	(439)	53.4	30.0	21.3	16.2	46.6
	중소도시	(482)	53.0	30.7	24.1	17.9	47.0
	읍/면	(79)	42.5	28.4	16.4	6.3	57.5
소득수준	상	(192)	57.7	32.8	26.2	19.4	42.3
	중	(494)	54.3	31.0	21.0	15.5	45.7
	하	(313)	46.0	27.4	21.8	15.4	54.0
이념성향	보수	(264)	59.5	36.7	29.4	21.1	40.5
	중도	(454)	48.4	29.5	21.2	15.3	51.6
	진보	(283)	52.1	25.4	17.3	13.3	47.9

8. 기윤실 인지도

문16

○○님께서 오늘 이전에 기윤실, 즉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라는 기독교 단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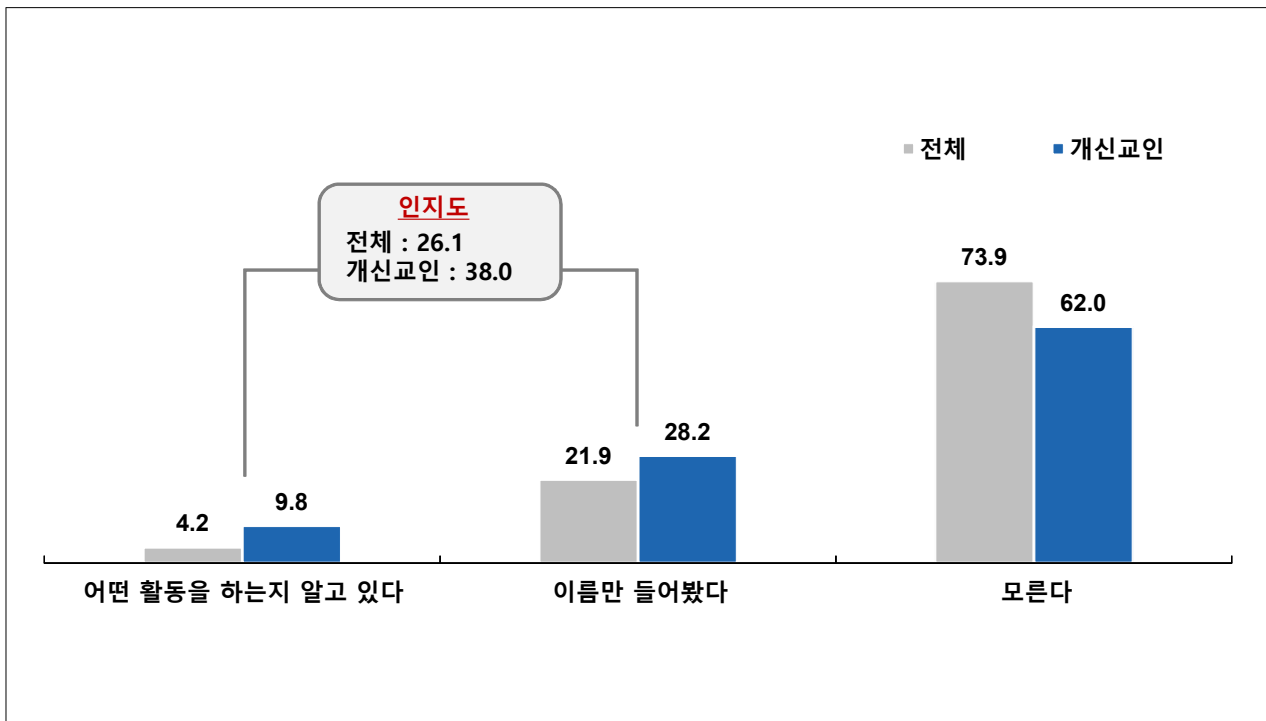
우리 국민은 기윤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기윤실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국민 4명 중 1명 정도(26.1%)는 기윤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고 있다 4.2% + 이름만 들어봤다 21.9%). 개신교인 중에는 38.0%(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고 있다 9.8% + 이름만 들어봤다 28.2%)로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개신교인 10명 중 1명은 기윤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계층별로 기윤실 인지도는 40대 이상 중장년과 노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을 제외한 보수와 진보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기윤실 인지도(전체 vs. 개신교인)

(N=1000, %)



[표] 기윤실 인지도(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고 있다	비인지	인지	계
전체		(1000)	73.9	21.9	4.2	73.9	26.1	100.0
성별	남자	(500)	72.9	22.6	4.5	72.9	27.1	100.0
	여자	(500)	74.9	21.3	3.8	74.9	25.1	100.0
연령	20대	(167)	95.1	4.2	0.7	95.1	4.9	100.0
	30대	(171)	90.1	8.2	1.7	90.1	9.9	100.0
	40대	(204)	66.4	29.6	4.0	66.4	33.6	100.0
	50대	(216)	65.4	28.0	6.6	65.4	34.6	100.0
	60대 이상	(242)	61.8	32.0	6.2	61.8	38.2	100.0
직업	자영업	(181)	71.5	23.5	5.1	71.5	28.5	100.0
	블루칼라	(104)	73.3	26.2	0.5	73.3	26.7	100.0
	화이트칼라	(319)	76.1	19.9	4.0	76.1	23.9	100.0
	가정주부	(175)	66.1	27.7	6.2	66.1	33.9	100.0
	학생	(83)	94.8	3.7	1.5	94.8	5.2	100.0
	무직/기타	(124)	67.9	26.9	5.3	67.9	32.1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93)	62.0	28.2	9.8	62.0	38.0	100.0
	가톨릭교	(83)	72.7	26.1	1.3	72.7	27.3	100.0
	불교	(178)	68.3	26.8	5.0	68.3	31.7	100.0
	기타 종교	(6)	65.6	34.4	0.0	65.6	34.4	100.0
	종교 없음	(540)	80.3	17.3	2.4	80.3	19.7	100.0
지역	서울	(193)	77.2	18.7	4.1	77.2	22.8	100.0
	인천/경기	(312)	74.4	22.9	2.7	74.4	25.6	100.0
	대전/충청/세종	(109)	74.8	16.6	8.5	74.8	25.2	100.0
	광주/전라	(95)	75.7	22.5	1.8	75.7	24.3	100.0
	대구/경북	(99)	67.3	26.0	6.6	67.3	32.7	100.0
	부산/경남/울산	(151)	72.7	22.8	4.5	72.7	27.3	100.0
	강원/제주	(41)	69.2	28.7	2.1	69.2	30.8	100.0
지역크기	대도시	(439)	74.8	21.3	3.9	74.8	25.2	100.0
	중소도시	(482)	74.2	21.8	4.0	74.2	25.8	100.0
	읍/면	(79)	67.4	26.3	6.3	67.4	32.6	100.0
소득수준	상	(192)	72.0	22.1	5.9	72.0	28.0	100.0
	중	(494)	75.2	21.5	3.3	75.2	24.8	100.0
	하	(313)	73.1	22.5	4.4	73.1	26.9	100.0
이념성향	보수	(264)	65.1	28.6	6.3	65.1	34.9	100.0
	중도	(454)	81.7	15.8	2.5	81.7	18.3	100.0
	진보	(283)	69.8	25.4	4.8	69.8	30.2	100.0

9. 기타

9-1. 종교분포

DQ1

○○님은 어떤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



본 조사에서는 현재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를 질문하여 2015년 인구센서스 결과 중 만 20세 이상 종교분포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주어 집계하였다.

그 결과 '개신교' 19.3%, '불교' 17.8%, '가톨릭' 8.3%, '기타종교' 0.8%, '종교없음' 54.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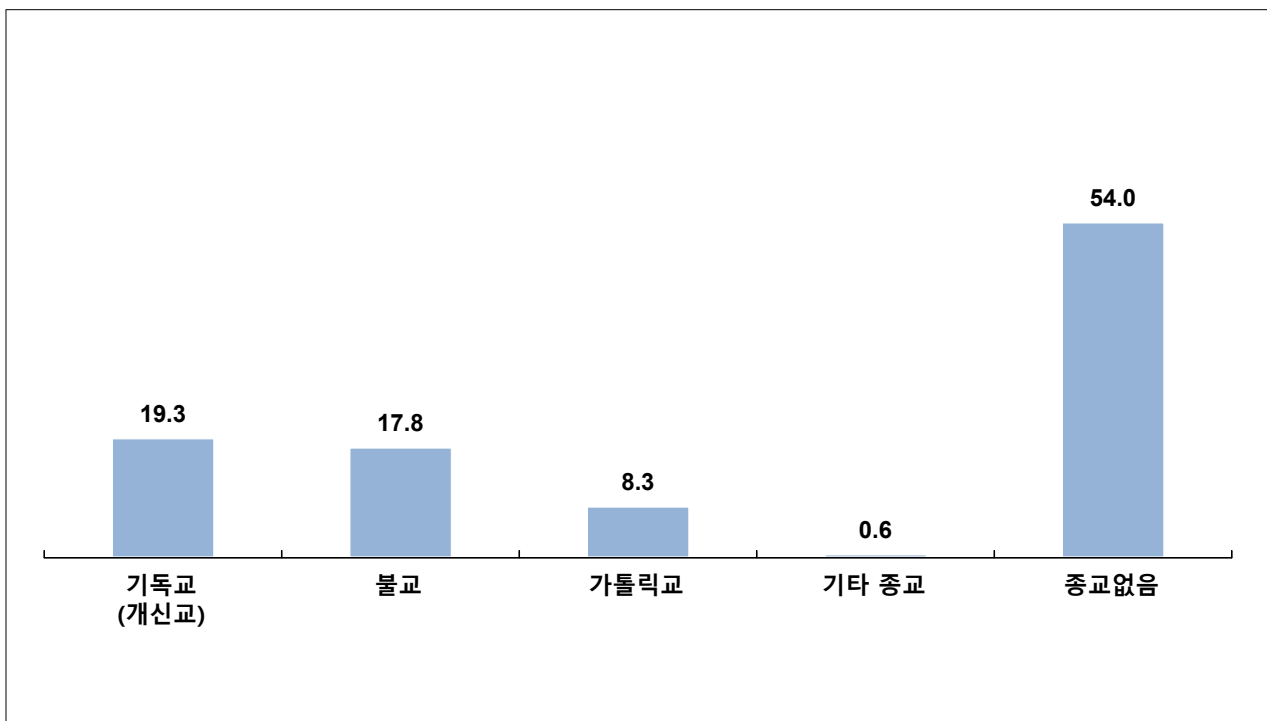
각 종교별 계층별 특성을 보면,

개신교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높고, 연령별로 60대(23.4%)가 가장 높았다. 이념적으로는 보수층에서 개신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눈에 띈다.

가톨릭은 40대와 50대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12%내외의 비율을 보였었다. 불교는 50대 이상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경상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종교분포

(N=1000, %)



[표] 종교분포

(N=1000, %)

구분		사례수 (명)	종교없음	기독교(개신교)	불교	가톨릭교	기타 종교	계
전체		(1000)	54.0	19.3	17.8	8.3	0.6	100.0
성별	남자	(500)	58.3	17.4	16.8	6.7	0.8	100.0
	여자	(500)	49.7	21.2	18.8	9.9	0.4	100.0
연령	20대	(167)	70.8	17.3	7.5	3.8	0.7	100.0
	30대	(171)	61.7	19.1	14.9	4.1	0.2	100.0
	40대	(204)	57.2	15.8	15.2	11.6	0.2	100.0
	50대	(216)	50.2	19.7	22.0	7.2	0.9	100.0
	60대 이상	(242)	37.7	23.4	25.4	12.6	0.9	100.0
직업	자영업	(181)	59.1	14.1	22.6	4.0	0.3	100.0
	블루칼라	(104)	61.1	22.8	8.4	7.0	0.6	100.0
	화이트칼라	(319)	57.3	16.2	16.0	10.1	0.4	100.0
	가정주부	(175)	33.1	27.4	25.5	13.6	0.4	100.0
	학생	(83)	69.2	16.3	8.4	5.6	0.5	100.0
	무직/기타	(124)	49.0	22.9	20.7	5.5	1.9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93)	0.0	100.0	0.0	0.0	0.0	100.0
	가톨릭교	(83)	0.0	0.0	0.0	100.0	0.0	100.0
	불교	(178)	0.0	0.0	100.0	0.0	0.0	100.0
	기타 종교	(6)	0.0	0.0	0.0	0.0	100.0	100.0
	종교 없음	(54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	서울	(193)	54.4	18.8	17.8	8.2	0.7	100.0
	인천/경기	(312)	53.4	23.0	12.8	10.1	0.7	100.0
	대전/충청/세종	(109)	61.2	23.8	13.3	1.8	0.0	100.0
	광주/전라	(95)	52.4	20.5	16.0	10.5	0.7	100.0
	대구/경북	(99)	49.5	15.2	21.1	13.4	0.7	100.0
	부산/경남/울산	(151)	55.8	10.7	27.9	5.0	0.7	100.0
	강원/제주	(41)	45.8	20.6	26.9	6.8	0.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439)	54.4	16.2	22.2	6.7	0.5	100.0
	중소도시	(482)	56.0	22.1	11.9	9.4	0.6	100.0
	읍/면	(79)	40.0	19.1	29.6	10.2	1.1	100.0
소득수준	상	(192)	52.7	19.0	21.5	6.1	0.7	100.0
	중	(494)	57.5	18.0	14.4	9.7	0.4	100.0
	하	(313)	49.2	21.6	20.9	7.4	0.9	100.0
이념성향	보수	(264)	46.6	23.3	21.0	8.3	0.8	100.0
	중도	(454)	58.1	18.2	15.6	7.7	0.4	100.0
	진보	(283)	54.3	17.4	18.3	9.2	0.8	100.0

9-2. 종교적 믿음의 깊이

DQ5

○○님께서 자신의 종교적 믿음이 얼마나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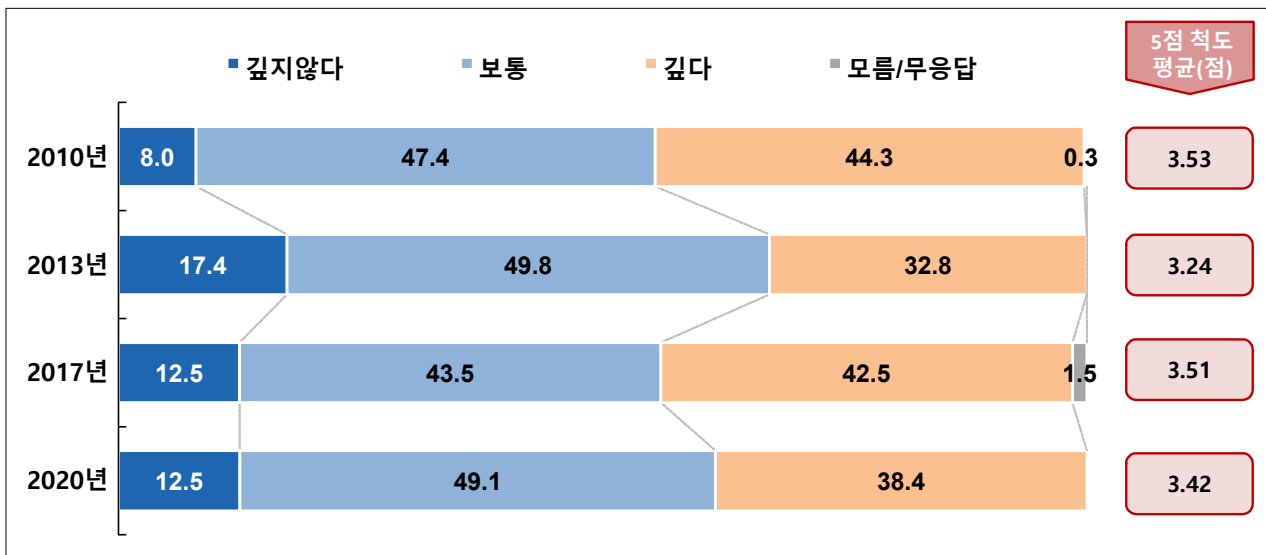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종교적 믿음 정도를 물어본 결과, '깊다' 38.4%, '보통' 49.1%, '깊지 않다' 12.5%로 나타났는데 2017년 조사 대비 '깊다'는 응답이 다소 낮아진 특징(42.5% -> 38.4%)을 보인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전 종교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개신교 감소율이 가장 컸다.

종교적 믿음이 '깊다'는 응답은 여자, 50대 이상 장년/노년층, 개신교인, 이념성향이 보수인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자신의 종교적 믿음의 깊이 (전체)

(N=460, %)



[표] 자신의 종교적 믿음의 깊이 '깊다'- 종교별

(N=1000, %)

	기독교				가톨릭				불교			
	2010	2013	2017	2020	2010	2013	2017	2020	2010	2013	2017	2020
깊음	57.1	45.6	56.6	49.2	52.3	33.2	38.6	37.2	29.8	19.0	28.9	26.8
보통	36.4	43.2	35.3	39.2	41.3	40.6	38.0	51.8	60.4	61.7	55.3	58.8
깊지 않음	6.5	11.2	6.3	11.6	6.4	26.2	23.5	11.0	9.8	19.2	14.1	14.3

[표] 종교적 믿음의 깊이

(N=460,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깊지 않다	별로 깊지 않다	보통이 다	약간 깊다	매우 깊다	깊지 않음 (전혀+ 별로)	보통	깊음 (약간+ 매우)	계	평균 (5점 척도)
전체		(460)	1.9	10.7	49.1	19.8	18.5	12.5	49.1	38.4	100.0	3.42
성별	남자	(209)	2.8	13.3	51.3	19.8	12.8	16.2	51.3	32.6	100.0	3.26
	여자	(251)	1.0	8.5	47.3	19.9	23.3	9.5	47.3	43.2	100.0	3.56
연령	20대	(49)	0.8	16.9	59.5	13.0	9.7	17.8	59.5	22.7	100.0	3.14
	30대	(65)	2.6	16.7	49.4	17.3	14.1	19.3	49.4	31.4	100.0	3.24
	40대	(87)	2.1	11.8	54.9	19.3	11.9	13.9	54.9	31.2	100.0	3.27
	50대	(108)	2.8	7.3	45.6	29.5	14.8	10.1	45.6	44.3	100.0	3.46
	60대 이상	(151)	1.1	7.8	44.8	16.6	29.8	8.9	44.8	46.3	100.0	3.66
직업	자영업	(74)	3.4	9.1	56.8	18.6	12.1	12.5	56.8	30.7	100.0	3.27
	블루칼라	(41)	1.0	10.6	40.0	25.6	22.8	11.5	40.0	48.4	100.0	3.59
	화이트칼라	(137)	2.9	12.2	50.9	21.3	12.7	15.1	50.9	34.0	100.0	3.29
	가정주부	(117)	0.0	6.1	41.9	23.3	28.7	6.1	41.9	52.0	100.0	3.75
	학생	(26)	0.0	19.8	60.6	5.6	14.0	19.8	60.6	19.6	100.0	3.14
	무직/기타	(63)	2.6	14.7	48.9	13.9	19.9	17.3	48.9	33.8	100.0	3.34
종교	기독교(개신교)	(193)	1.8	9.8	39.2	23.7	25.5	11.6	39.2	49.2	100.0	3.61
	가톨릭교	(83)	2.2	8.8	51.8	21.4	15.8	11.0	51.8	37.2	100.0	3.40
	불교	(178)	1.6	12.7	58.8	15.1	11.7	14.3	58.8	26.8	100.0	3.23
	기타 종교	(6)	6.7	4.1	40.1	14.6	34.5	10.8	40.1	49.1	100.0	3.66
지역	서울	(88)	2.1	19.7	46.7	15.3	16.2	21.8	46.7	31.5	100.0	3.24
	인천/경기	(146)	1.6	8.5	43.8	23.9	22.2	10.1	43.8	46.1	100.0	3.57
	대전/충청/세종	(42)	1.2	11.4	45.6	19.3	22.5	12.5	45.6	41.8	100.0	3.51
	광주/전라	(45)	4.1	3.9	44.2	32.8	15.0	8.0	44.2	47.8	100.0	3.51
	대구/경북	(50)	0.8	9.8	56.9	16.0	16.5	10.6	56.9	32.6	100.0	3.38
	부산/경남/울산	(67)	0.0	10.1	59.7	14.2	16.0	10.1	59.7	30.2	100.0	3.36
	강원/제주	(22)	7.3	5.4	60.5	11.6	15.2	12.7	60.5	26.8	100.0	3.22
지역크기	대도시	(200)	0.9	14.8	50.2	18.2	16.0	15.7	50.2	34.1	100.0	3.33
	중소도시	(212)	2.3	7.2	47.0	22.8	20.6	9.5	47.0	43.4	100.0	3.52
	읍/면	(48)	3.9	8.6	53.9	13.8	19.9	12.5	53.9	33.7	100.0	3.37
소득수준	상	(91)	2.7	13.9	47.0	21.3	15.1	16.6	47.0	36.3	100.0	3.32
	중	(210)	0.5	10.1	49.8	21.8	17.8	10.6	49.8	39.6	100.0	3.46
	하	(159)	3.2	9.6	49.4	16.4	21.4	12.8	49.4	37.8	100.0	3.43
이념성향	보수	(141)	0.8	9.8	46.6	17.7	25.0	10.6	46.6	42.7	100.0	3.56
	중도	(190)	2.6	8.3	52.1	19.4	17.6	10.9	52.1	37.0	100.0	3.41
	진보	(129)	1.9	15.1	47.4	22.8	12.8	17.1	47.4	35.6	100.0	3.29

9-3. 종교별 이념성향

DQ4

귀하의 이념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조사에서 일반국민들의 이념성향은 '진보적' 28.3%, '보수적' 26.4%, '중도' 45.4%로 나타났다.

이를 종교별로 살펴보면,

개신교는 보수가 진보보다 많으며, 가톨릭은 반대로 진보가 보수보다 많은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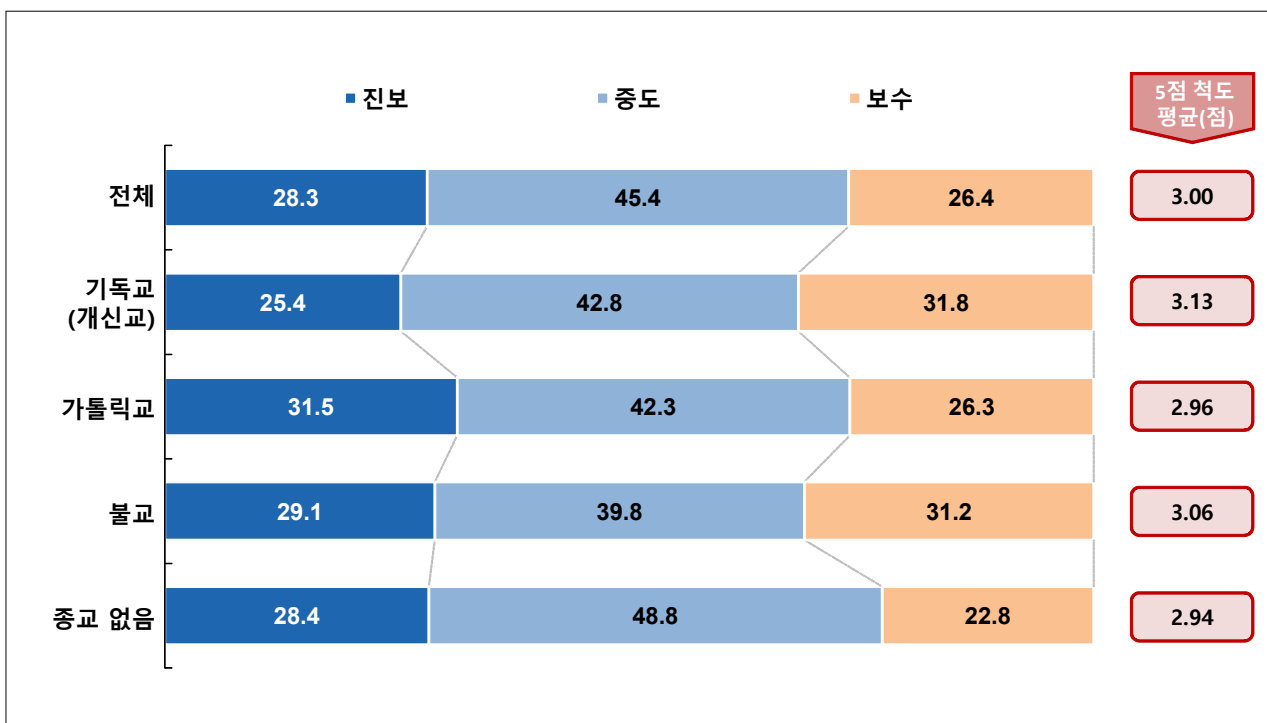
특히 종교별 보수 비율을 보면 개신교와 불교가 각각 31.8%, 31.2%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무종교인의 보수 비율이 22.8%인 것을 감안하면, 두 종교의 보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교회 신뢰 여부별로도 보았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보수적'(36.2%) 성향이 다소 높은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은 '진보적'(33.0%) 성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종교별 이념성향

(N=1000, %)



[표] 이념성향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보수적 이다	다소 보수적 이다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다소 진보적 이다	매우 진보적 이다	보수 (다소+ 매우)	중도	진보 (매우+ 다소)	계	평균 (5점 척도)
전체		(1000)	5.9	20.4	45.4	24.1	4.1	26.4	45.4	28.3	100.0	3.00
성별	남자	(500)	6.5	19.9	44.8	23.7	5.0	26.4	44.8	28.8	100.0	2.99
	여자	(500)	5.4	21.0	45.9	24.5	3.2	26.4	45.9	27.7	100.0	3.01
연령	20대	(167)	1.9	13.1	61.9	21.1	1.9	15.1	61.9	23.1	100.0	2.92
	30대	(171)	1.2	19.0	51.1	25.7	3.0	20.2	51.1	28.7	100.0	2.90
	40대	(204)	4.2	21.2	37.0	31.8	5.8	25.4	37.0	37.6	100.0	2.86
	50대	(216)	9.2	18.9	37.7	28.0	6.2	28.1	37.7	34.2	100.0	2.97
	60대 이상	(242)	10.5	27.2	43.9	15.2	3.2	37.8	43.9	18.3	100.0	3.27
직업	자영업	(181)	4.9	24.9	38.9	23.5	7.9	29.7	38.9	31.3	100.0	2.95
	블루칼라	(104)	6.9	16.7	47.9	21.0	7.4	23.6	47.9	28.5	100.0	2.95
	화이트칼라	(319)	2.8	17.1	47.8	29.5	2.8	19.9	47.8	32.3	100.0	2.88
	가정주부	(175)	11.4	24.1	43.3	19.3	1.9	35.5	43.3	21.2	100.0	3.24
	학생	(83)	1.5	12.2	58.7	25.7	1.9	13.7	58.7	27.6	100.0	2.86
	무직/기타	(124)	9.1	26.2	39.0	21.5	4.2	35.2	39.0	25.8	100.0	3.14
종교	기독교(개신교)	(193)	8.6	23.2	42.8	22.9	2.5	31.8	42.8	25.4	100.0	3.13
	가톨릭교	(83)	5.4	20.9	42.3	27.2	4.3	26.3	42.3	31.5	100.0	2.96
	불교	(178)	10.9	20.3	39.8	22.6	6.5	31.2	39.8	29.1	100.0	3.06
	기타 종교	(6)	14.9	19.1	29.2	21.2	15.6	34.0	29.2	36.9	100.0	2.96
	종교 없음	(540)	3.3	19.5	48.8	24.7	3.8	22.8	48.8	28.4	100.0	2.94
지역	서울	(193)	7.8	21.0	41.7	28.1	1.3	28.8	41.7	29.5	100.0	3.06
	인천/경기	(312)	5.8	24.9	44.2	20.5	4.5	30.7	44.2	25.1	100.0	3.07
	대전/충청/세종	(109)	3.8	10.7	55.7	25.9	3.9	14.5	55.7	29.8	100.0	2.85
	광주/전라	(95)	2.6	9.7	50.2	28.1	9.4	12.3	50.2	37.5	100.0	2.68
	대구/경북	(99)	6.8	27.2	46.6	17.0	2.5	34.0	46.6	19.5	100.0	3.19
	부산/경남/울산	(151)	7.2	18.6	42.5	27.1	4.5	25.9	42.5	31.6	100.0	2.97
	강원/제주	(41)	4.3	25.0	40.3	25.5	4.9	29.4	40.3	30.4	100.0	2.98
지역크기	대도시	(439)	6.7	19.3	46.0	24.5	3.5	26.0	46.0	28.0	100.0	3.01
	중소도시	(482)	5.5	22.2	44.3	23.3	4.7	27.8	44.3	28.0	100.0	3.01
	읍/면	(79)	3.9	16.1	48.5	27.5	4.0	20.0	48.5	31.5	100.0	2.88
소득수준	상	(192)	8.3	19.7	35.1	29.2	7.7	28.0	35.1	36.9	100.0	2.92
	중	(494)	4.5	22.5	47.1	23.9	2.0	27.0	47.1	25.9	100.0	3.04
	하	(313)	6.8	17.6	48.9	21.4	5.3	24.4	48.9	26.7	100.0	2.99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함	(318)	12.1	24.1	43.1	18.4	2.2	36.2	43.1	20.6	100.0	3.25
	신뢰하지 않음	(639)	3.0	18.4	45.6	28.0	5.0	21.4	45.6	33.0	100.0	2.86

여론조사 질문지



2020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지앤컴리서치의 면접원 ○○○ 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 종교 문화에 대해 전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 처리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귀하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 **지 역**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 **지역크기** : 1)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 중소도시 3) 읍/면

■ **연 령** : 1) 만19~29세 → **만 18세 이하 면접중단**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 **성 별** : 1) 남자 2) 여자

문1) ○○님께서 한국교회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하면 1번, 약간 신뢰하면 2번, 별로 신뢰하지 않으면 3번,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 4번 중에서 하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기독교 또는 한국교회는 가톨릭 또는 가톨릭 성당이 아니라 개신교 또는 개신교회를 의미합니다.(조사원은 보기 5번을 읽어주지 마시오)

1. 매우 신뢰한다
2. 약간 신뢰한다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 잘 모르겠다 (읽어주지 말 것)

문2) ○○님께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매우 그렇다면 1번, 약간 그렇다면 2번, 별로 그렇지 않으면 3번, 전혀 그렇지 않으면 4번 중에서 하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원은 보기 5번을 읽어주지 마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읽어주지 말 것)
2-1.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1	2	3	4	5
2-2.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1	2	3	4	5

문3) ○○님께서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응답보기 로테이션)

1. 교회 지도자들의 삶
2. 타종교에 대한 태도
3. 교인들의 삶
4. 불투명한 재정사용
5. 교회의 성장제일주의
6. 기타 _____
9. 잘 모르겠다 (읽어주지 말 것)

문4) 그럼 다음의 사회적 활동 중에서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응답보기 로테이션)

1. 봉사 및 구제활동
2.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
3. 학교 운영 등 교육 사업 활동
4.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5. 문화 예술 활동
6. 기타 _____
9. 잘 모르겠다 (읽어주지 말 것)

문5) ○○님께서 현재 한국교회 “목사”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응답보기 로테이션)

1. 윤리/도덕성
2. 리더십
3. 물질 추구 성향
4. 교회 성장주의
5. 권위주의
6. 사회 현실 이해 및 참여
7. 기타 _____
9. 잘 모르겠다 (읽어주지 말 것)

문6) 그럼, 기독교인(개신교인)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응답보기 로테이션)

1. 정직하지 못함
2. 배타성
3. 물질/성공주의
4. 남에 대한 배려 부족
5. 사회에 대한 무관심
6. 기타 _____
9. 잘 모르겠다 (읽어주지 말 것)

문7) 다음의 종교 중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만)(응답보기 로테이션)

- | | |
|-------------------------|-------------|
| 1. 기독교(개신교) | 4. 원불교 |
| 2. 가톨릭교 | 5. 유교 |
| 3. 불교 | 6. 기타 _____ |
| 9. 없다/잘 모르겠다 (읽어주지 말 것) | |

문8) 다음 중 어느 종교가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응답보기 로테이션)

- | | |
|----------------------|-------------|
| 1. 기독교(개신교) | 4. 원불교 |
| 2. 가톨릭교 | 5. 유교 |
| 3. 불교 | 6. 기타 _____ |
| 9. 잘 모르겠다 (읽어주지 말 것) | |

문9) 다음 중 어느 종교의 사회봉사활동이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응답보기 5번까지 로테이션) (5번까지만 읽어줄 것)

- | | |
|----------------------|----------------|
| 1. 기독교(개신교) | 4. 원불교 |
| 2. 가톨릭교 | 5. 유교 |
| 3. 불교 | 6. 모든 종교가 다 비슷 |
| 7. 기타 _____ | |
| 9. 잘 모르겠다 (읽어주지 말 것) | |

문10) 한국교회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1번, 약간 그렇다 2번, 별로 그렇지 않다 3번, 전혀 그렇지 않다 4번 중 하나로 대답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읽어주지 말 것)
1	2	3	4	5

- 1) 한국교회는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다 ()
- 2)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

문11) ○○님께서서는 요즈음 가짜 뉴스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매우 심각하다
- 약간 심각하다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말 것)

문12) ○○님께서서는 가짜 뉴스가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전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응답보기 로테이션)

- TV, 신문, 라디오 등 전통적인 언론 매체
- 인터넷 뉴스/포털
- 인터넷 밴드/카페
- 유튜브/카톡/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등 SNS
- 기타
- 잘 모르겠다(읽어주지 말 것)

문항 13), 14)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15) ○○님께서서는 목사가 정치적인 문제에 어느 정도까지 발언 혹은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중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면접원 : 1~4번 응답자는 5번 응답할 수 없음)

- 개인적인 자리/모임에서 정치적인 발언
- 교인들과의 자리/모임에서 정치적인 발언
- 설교 등 공식적인 곳에서 정치적인 발언
- 정치적 집회나 활동에 참여
- 공적이든 사적이든 아예 하지 않는게 좋다

문16) ○○님께서 오늘 이전에 기윤실, 즉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라는 기독교 단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만)

1. 모른다
2. 이름만 들어봤다
3.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고 있다

통계 처리용 질문

※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DQ1) ○○님은 어떤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

- | | |
|-------------|----------|
| 1. 기독교(개신교) | 5. 유교 |
| 2. 가톨릭교 | 6. 기타 종교 |
| 3. 불교 | 7. 종교없음 |
| 4. 원불교 | |

DQ2)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1. 농업/임업/어업 | 6. 전문직 |
| 2. 자영업 | 7. 가정주부 |
| 3. 판매/영업/서비스직 | 8. 학생 |
| 4. 생산/기능/노무직 | 9. 무직/퇴직/기타 |
| 5. 사무/관리 | 10. 모름/무응답 |

DQ3) ○○님 닥의 가구소득 수준은 다음의 5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하십니까?

- | | |
|-------|-------|
| 1. 상 | 4. 중하 |
| 2. 중상 | 5. 하 |
| 3. 중 | |

DQ4) ○○님의 이념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매우 보수적이다
2. 다수 보수적이다
3.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4. 다소 진보적이다
5. 매우 진보적이다

DQ5) [DQ1에서 종교 있는 사람만] ○○님께서서는 자신의 종교적 믿음이 얼마나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깊지 않다
2. 별로 깊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깊다
5. 매우 깊다

●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분석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기독교경영연구원 운영위원

I.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의 취지와 목적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2013년, 2017년까지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총 다섯 차례 실시하였으며, 2020년 올해에도 동일한 주제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성별/연령/지역/종교별 실제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는 한국교회의 신뢰도 현 주소를 파악하고 일반 국민들이 한국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과 의견을 겸허하게 청취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여 한국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데 그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증가함으로써 한국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국사회가 성숙하고 발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푸트남(Robert Putnam)과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등의 학자들은 선진 시민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잘 축적된 사회임을 주장한 바 있는데, 한국교회의 신뢰도 상승은 곧 한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 축적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번 신뢰도조사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한국교회의 실체적 모습이 건강하고, 이를 바라보는 내외부인의 인식도 좋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한국교회의 신뢰도 수준에 대한 평가는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니 어쩌면 한국교회의 실체적 모습보다도 일반 국민, 특히 외부인의 평가는 그 이하인지도 모르겠다. 내부인인 기독교인들만 아직도 한국교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김병연(2010)은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분석’에 대한 발제문에서 교인들이 외부인보다 교회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이유로 기독교인은 내부자로서 팔이 안으로 굽어 교회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들고, 비기독교인은 외부자로서 교회를 잘 알지 못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고, 현재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 것인가? 참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의 드러난 부족과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서부터 교회의 갱신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실체적 진실이 건강해지고 교회 밖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서 신뢰를 회복한다면, 교회 내외부인의 인식도 차츰 올라가서 실체적 진실과 동일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흥식(2017)은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분석’에 대한 발제에서 한국교회, 기독교목사,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 저하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만한 사건으로 교회의 분열과 통합운동, 교회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교회 세습, 기독교목사의 성 문제 및 사적이익 추구행위, 기독교인의 행동, 기독교와 교인의 정치참여의 5가지를 들면서, 복음(good news)을 전해야 할 교회를 둘러싸고 언론에서 주로 보도되는 것들이 대체로 나쁜 소식(bad news)만 들려오는 것이 한국교회의 신뢰도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그럼 과연 3년이 지난 2020년 현재 한국교회 신뢰도는 어떻게 변화했고, 우리 국민들은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는 이번 신뢰도조사를 통해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고자 하였다. 현재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도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며, 또 기독교 목회자와 기독교인의 신뢰도는 각각 어느 정도인가? 타종교와 비교한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국교회의 외부와의 소통능력과 사회통합에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되는가?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낮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독교 목회자는 무엇을 개선해야하고, 기독교인은 무엇을 개선해야하는가? 가짜뉴스와 기독교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 질문에 대한 현실직시를 하고자 한다. 과연 한국교회는 우리 국민들에게 믿을만한 존재인가? 그리고 만약 믿을만하지 못하다면 한국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II. 설문문항 작성의 원칙 및 설문의 구조

1. 설문 작성의 원칙과 방향

2020년 교회 신뢰도 조사 설문작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객관적인 신뢰도와 인식 평가를 위해서 수치화할 수 있는 문항을 설문에 포함하였다. 특히 이번 2020년 조사부터는 과거조사와 달리 신뢰도와 인식 평가문항을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해당 설문에 대한 평가결과가 보다 선명하게 나오도록 변경하였다. 즉 중립적 질문(보통이다, 모르겠다)을 아예 묻지 않고 긍정문항 2개(매우 긍정, 긍정)와 부정문항 2개(매우 부정, 부정)만 질의하였다. 둘째, 주요 내용은 과거와 동일한 문항을 유지함으로써 시계열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설문문항을 추가하여 시사성 있는

분석결과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설문의 문항들은 가능한 상호중복되지 않도록 배타적으로 구성하였고, 추가로 설문문항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문항들 간 관련성도 고려하였다. 넷째 설문 응답자의 구성을 실제 우리나라 인구의 종교 구성 비율과 동일하게 구성하는 등 응답결과가 실제와 괴리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번 설문조사 주요 내용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개신교회와 기독교 목사, 그리고 기독교인을 신뢰하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둘째,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타종교와의 비교를 통해 그리고 한국교회의 소통과 통합 정도를 통해 확인하고, 셋째, 한국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과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활동을 물어보고 기독교 목사와 기독교인은 각각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와 4월 총선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다.

2. 설문의 구조와 내용

이번 설문조사의 전체 구조와 세부항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설문조사는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도를 먼저 단독으로 물어본 뒤, 세부적인 분석을 위하여 신뢰도의 구성 요소를 기독교 목사와 기독교인으로 구분하여 개별 구성요소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할 영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즉 이러한 신뢰도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직업, 소득, 종교, 이념성향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각각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설문을 작성하였다. 또한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최우선 과제와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회적 활동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목회자와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이 각각 무엇인지도 물어보았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한국교회와 다른 종교기관들 간의 신뢰도를 상호비교하는 설문을 포함하였다. 2017년과 동일하게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어디인지와 가장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종교가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문항을 포함하였고,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가 어디인지도 물어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봉사 활동을 단순히 양적으로만 측정하지 않고 질적인 측면도 평가하도록 보완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한국교회 신뢰도 수준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보다 다양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과 동일하게 한국교회가 교회 밖 세상과 소통하는 정도와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정도를 물어보는 문항도 포함하였는데, 이는 교회 신뢰도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로 판단하였다.

사회인식조사는 연차별 변화를 추적한다는 목적을 담보하기 위해 조사 설문문항과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지만, 이번 조사에는 최근 한국교회의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문항을 포함하였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의 심각성과 유통경로를 물어보는 문항을 넣었고, 곧 있을 4월 총선과 관련하여 기독교와 목사의 정치 참여에 대한 정도를 물어보는 문항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 연령, 성별, 가구소득, 종교, 종교적 믿음의 깊이, 이념성향 등의 인구사회학적 질문을 포함하였다.

세부적인 설문 문항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설문문항구조

구분	설문문항
한국교회의 신뢰도와 구성요소	전반적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기독교 목사에 대한 신뢰도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 평가	가장 신뢰하는 종교 가장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종교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 한국교회가 교회 밖 세상과 소통하는 정도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정도
한국교회의 개선 과제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최근 이슈에 대한 인식 평가 (가짜 뉴스, 목사의 정치 참여)	가짜 뉴스 심각성 가짜 뉴스의 유통 경로 목사의 정치적 참여 허용 정도
인구사회학적 질문	거주지역, 연령, 성별, 직업, 가구소득 종교분포, 종교적 믿음의 깊이 이념성향

3. 설문문항의 변천사

다음으로 우리는 그동안 총 6회에 걸쳐서 실시되어온 한국교회 신뢰도조사에서 추가된 항목들을 한번 분석해보았다. 이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어떠한 이슈들이 신뢰도 조사에 반영되어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진행될 설문조사의 항목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2009년에는 여러 분야 기독교 지도자의 연행이 교회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2010년에는 신뢰도 증감의 구체적 원인,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와 가장 도움되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이 추가되었다. 2013년에는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가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에의 기여도, 종교기관/종교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이 추가되었다. 2017년에는 한국교회 목사와 기독교인이 신뢰받기 위한 개선점, 한국교회의 소통정도와 사회문제해결 및 사회통합에 기여도, 현 시국에서 한국교회의 역할, 10년 후 가장 증가할 종교, 대선에서 기독교의 역할, 이념성향 등이 추가되었다. 2020년에는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유통 경로, 목사의 정치 참여에 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요약해보면 지난 10여 년간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에서는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정치참여와 역할, 한국 교회의 사회와의 소통 및 통합에의 기여, 그리고 기독교 목사와 기독교인의 개선사항 등의 문항이 추가되면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이슈들을 본 조사에서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표 2〉 연도별 신규 조사항목

조사 연도	신규 추가 설문문항
2009	• 정치계, 관계, 재계 등에서 기독교인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기독교를 믿는 것과 관계없이 ○○님이 기독교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해 얼마나 믿음이 가십니까?
2010	• 더 신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개신교회에 대한 ○○님의 신뢰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의 후속 질문) • 신뢰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개신교회에 대한 ○○님의 신뢰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의 후속 질문) • 다음 중 어느 종교가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 그럼, 어느 종교의 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	• 2015년부터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님께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 • ○○님께서는 한국교회가 사회통합이나 사회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님께서는 종교기관 또는 종교인의 정치적 참여활동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
2017	• ○○님께서는 현재 한국교회 “목사”들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럼, 기독교인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교회는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다. •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국에서 한국교회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 • 향후 10년 후 우리나라의 어느 종교가 가장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님께서는 올해 대선 과정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의 이념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0	• ○○님께서는 요즘 가짜 뉴스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님께서는 가짜 뉴스가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전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님께서는 목사가 정치적인 문제에 어느 정도까지 발언 혹은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Ⅲ. 주요 설문결과 및 분석

본 조사는 2020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만 19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유무선 전화에 의한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전화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법(Random Sampling)으로 추출하여 모집단의 대표성을 가급적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pm 3.1\%P$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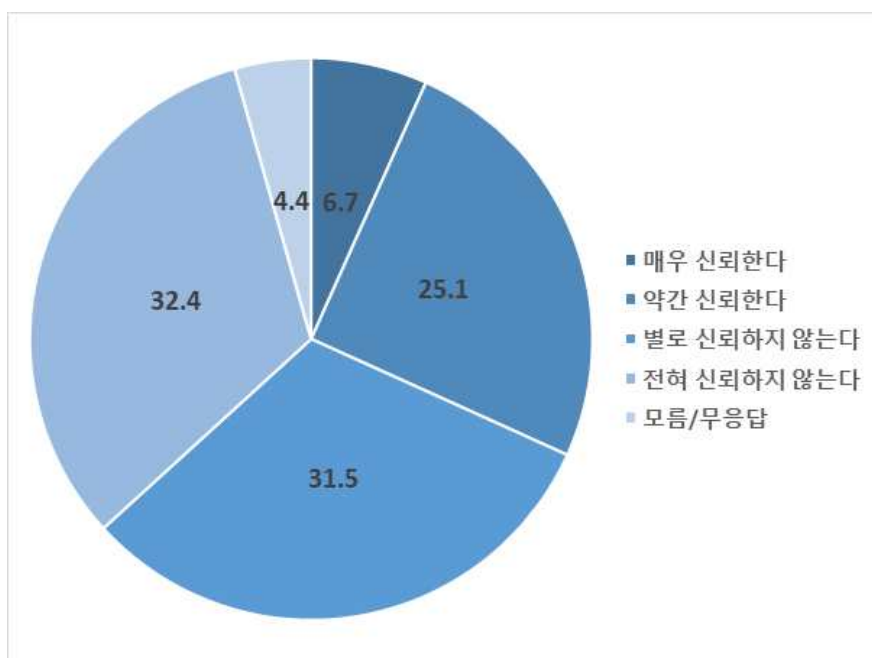
1. 한국교회의 신뢰도

1)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도 수준

먼저 “한국교회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고 한국교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를 일반국민 1,000명에게 질문하였다. 그 결과, ‘신뢰한다(매우+약간)’ 31.8%, ‘신뢰하지 않는다(별로+전혀)’ 63.9%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 정도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도가 매우 낮아 많은 개선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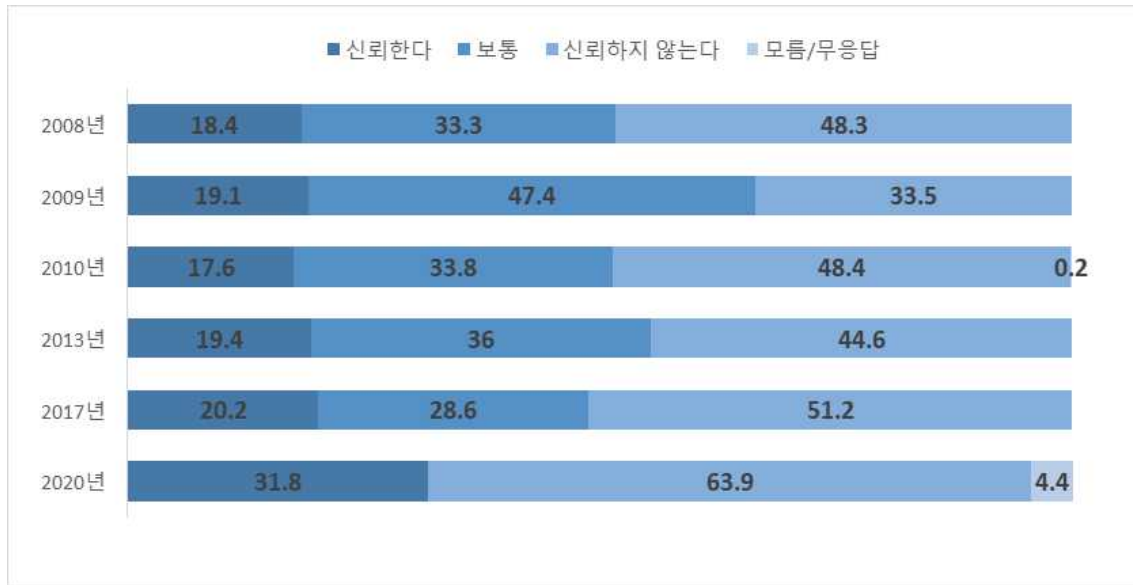
특히 이번 6차 조사에서는 2008년 이후 5차까지의 조사와는 달리 본 문항에 대해 ‘보통’이 포함된 5점 척도를 묻지 않고, ‘보통’을 제외한 4점 척도로 물었다. 따라서 과거 조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게 되었지만 대신 보다 선명하게 호불호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얻게 되었다. 과거 ‘보통’으로 분류되던 30% 내외의 그룹이 긍정과 부정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지면서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도 수준의 실체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림 1〉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도



〈그림 2〉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도 수준의 변화흐름

(N=1000, %)



계층별로 보면 한국교회 전반적 신뢰도는 50대 이상 고연령층, 가정주부층, 소득수준 중하층, 이념으로 보수성향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종교별로 살펴보면 개신교인은 한국교회에 대해 오히려 75.5%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나, 타종교인과 무종교인들에서는 신뢰보다 불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무종교인들의 경우 신뢰 17.2%, 불신 78.2%로 한국교회에 대해 매우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무종교인 그룹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한국교회가 많은 개선을 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본 조사결과의 대부분에서 무종교인그룹의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는 가장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50대, 60대 이상에서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60대 이상>50대>20대), 30대, 40대의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20대가 50대와 60대 이상의 자녀세대인 점, 그리고 20대 중반이하의 소위 Z세대라 불리는 새로운 세대유형으로 아직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성향그룹에서 한국교회의 신뢰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진보성향그룹에서 신뢰도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보수>중도>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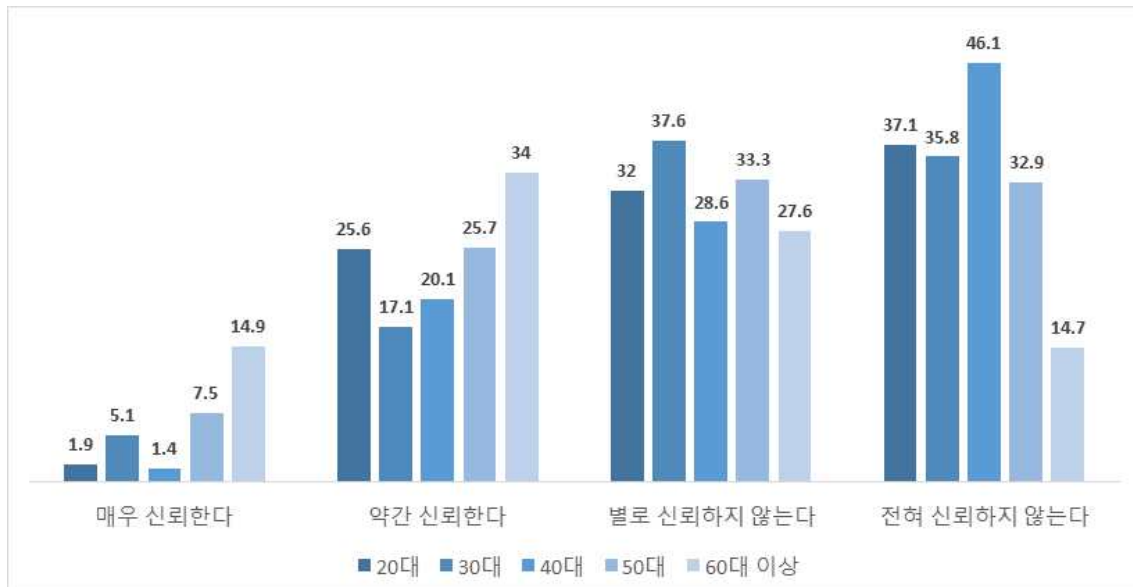
〈그림 3〉 기독교인, 타종교인, 무종교인의 한국교회 전반적 신뢰도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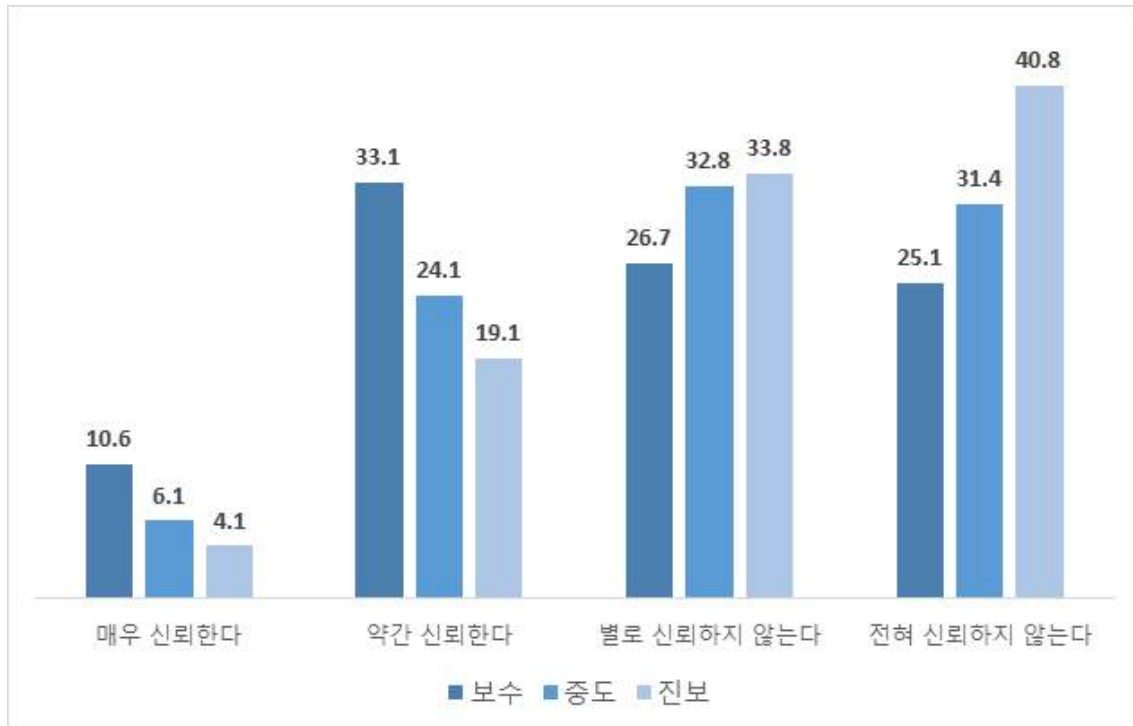
〈그림 4〉 연령대별 한국교회 전반적 신뢰도

(N=1000, %)



〈그림 5〉 이념성향별 한국교회 전반적 신뢰도

(N=1000, %)



2) 속성별 신뢰도(기독교 목사, 기독교인)

이번에는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기독교 목사와 기독교인으로 각각 나누어서 물어보았다.

먼저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신뢰한다(매우+약간)’ 30.0%, ‘신뢰하지 않는다(별로+전혀)’ 68%로 나타나, 앞의 한국교회 전체 신뢰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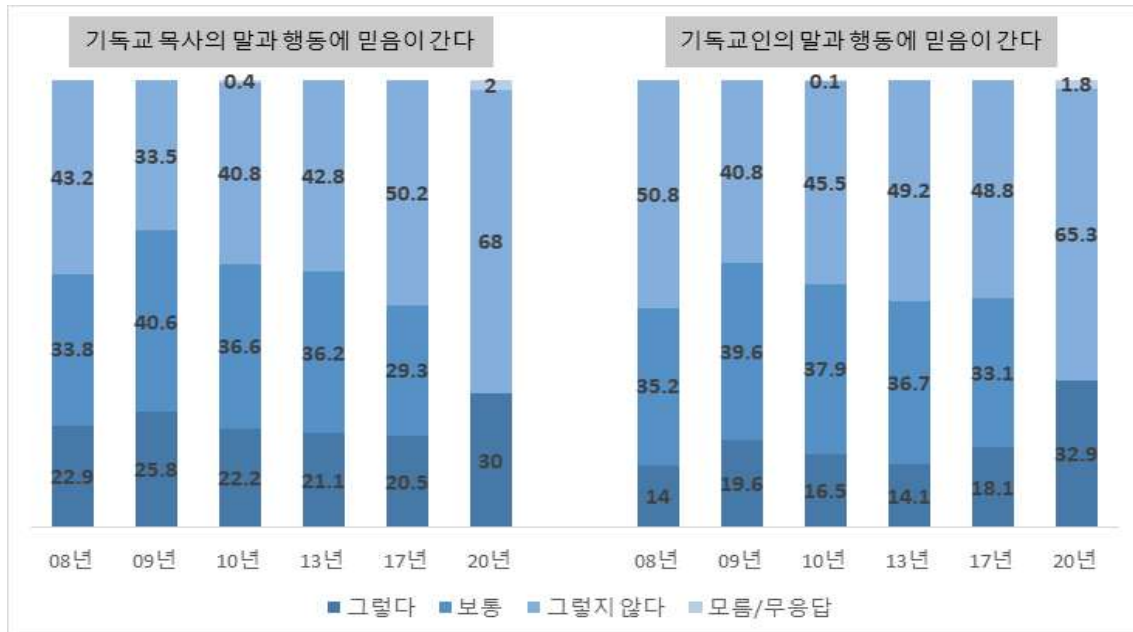
계층별로 보면 50대이상 고연령층, 보수성향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기독교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인은 목사에 대해 71.5%의 높은 신뢰를 보인 반면, 타종교인과 무종교인들은 불신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무종교인의 불신이 가장 높았다.

다음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신뢰한다(매우+약간)’ 32.9%, ‘신뢰하지 않는다(별로+전혀)’ 65.3%로 목사보다는 신뢰도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계층별로는 기독교 목사와 거의 비슷한 특성을 보였다.

속성별 신뢰도 결과를 과거 차수와의 연장선상에 놓고 추세를 살펴보면(물론 과거 조사와 이번 2020년 조사와의 직접 비교는 곤란하다), 기독교인 대비 상대적으로 기독교 목사에 대한 불신 정도가 더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 목사에 대한 불신정도는 2017년 조사부터 50%를 상회하며 기독교인에 대한 불신정도보다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0년 조사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까지 기독교계의 이슈가 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직간접적으로 기독교 목회자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한다.

〈그림 6〉 속성별 신뢰도 수준의 변화흐름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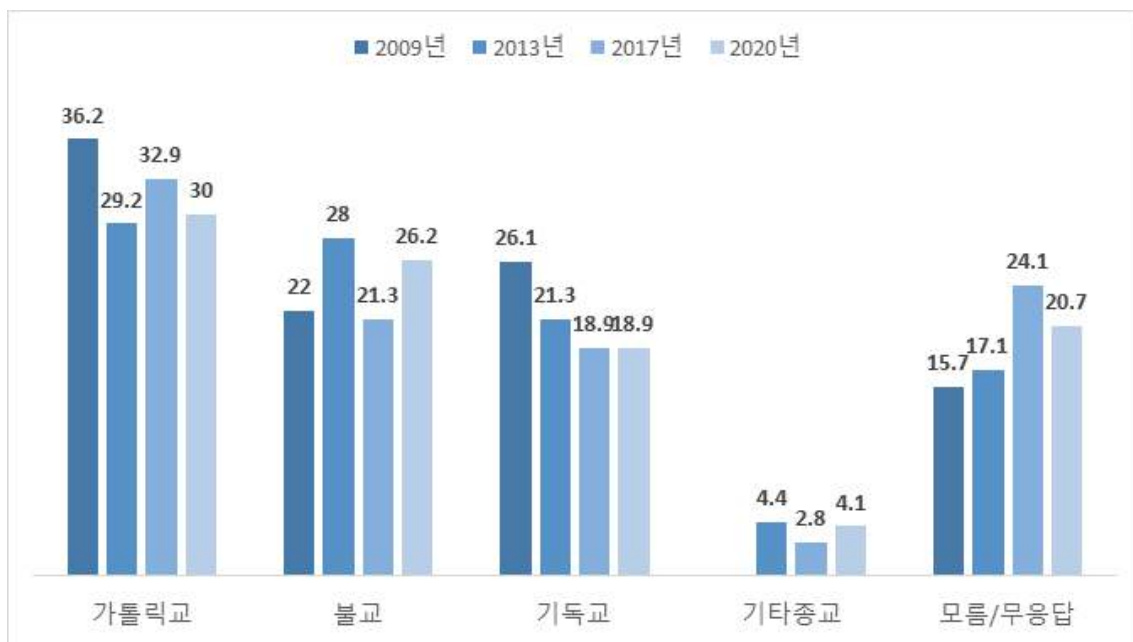
2.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 평가

1) 가장 신뢰하는 종교

개신교 신뢰도를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기 위해 상대평가로 종교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현재 종교 중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질문하였는데, 2017년의 상대적 순위와 동일하게 가톨릭>불교>개신교 순으로 나타났다. 개신교는 2017년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18.9%), 불교는 약간 상승(26.2%), 가톨릭은 약간 하락(30.0%) 추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불교는 2013년 조사때부터 기독교를 추월한 다음 지속적으로 기독교 대비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가장 신뢰하는 종교의 변화흐름

(N=1000, %)



계층별로 상대적 신뢰도를 살펴보면, 먼저 연령별로는 20대는 불교, 30대부터 50대까지는 가톨릭이 각각 신뢰도 1위를 기록했고,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세 종교가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그룹은 가톨릭을, 중도성향그룹은 불교를 각각 1위로 평가하였고, 보수성향그룹에서는 세 종교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세 종교 모두 자기 종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특히 무종교인은 가톨릭 33.0%, 불교 23.8%, 개신교 6.1%의 응답률을 보여 개신교를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무종교인들의 세 종교의 신뢰도 수준에 대한 인식 흐름을 살펴보면, 가톨릭과 불교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30%대와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2009년 10.8%, 2013년 8.6%, 2017년 6.9%, 2020년 6.1%로 지속적으로 매우 낮아지고 있어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비교적 객관적이고 가장 파급력이 높은 무종교인그룹에서 기독교가 매우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은 향후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넣고 있어 기독교계의 심각한 자성과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 무종교인들의 가장 신뢰하는 종교의 변화흐름

구분	가톨릭	불교	기독교
2009년	38.9%	23.1%	10.8%
2013년	32.7%	26.6%	8.6%
2017년	36.5%	18.1%	6.9%
2020년	33.0%	23.8%	6.1%

2)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종교

기독교의 사회참여와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17년과 비슷하게 2020년 조사에서도 기독교가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기독교(35.7%)와 가톨릭(32.9%)은 오차범위 내에 있으며, 2010년 이후 둘 다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먼저 연령대별으로는 20대에서는 개신교가, 40~50대에서는 가톨릭이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종교별로는 기독교인과 가톨릭인은 자신의 종교를 가장 높게 지정한 반면, 불교인은 기독교와 가톨릭을 비슷하게 지적했고, 무종교인은 역시 가톨릭을 근소하게 높게 지적했다. 기독교인은 자기 종교에 대한 긍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특히 불교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기독교인의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 여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와 중도층은 기독교를, 진보층은 가톨릭을 1위로 지적했다.

〈그림 8〉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 수행하는 종교

(N=1000, %)



〈표 4〉 종교인별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 수행하는 종교 인식 비교

구분	기독교	가톨릭	불교
기독교인	67.9%	20.3%	2.0%
가톨릭인	13.9%	61.2%	19.4%
불교인	30.5%	29.5%	19.4%
무종교인	29.3%	34.1%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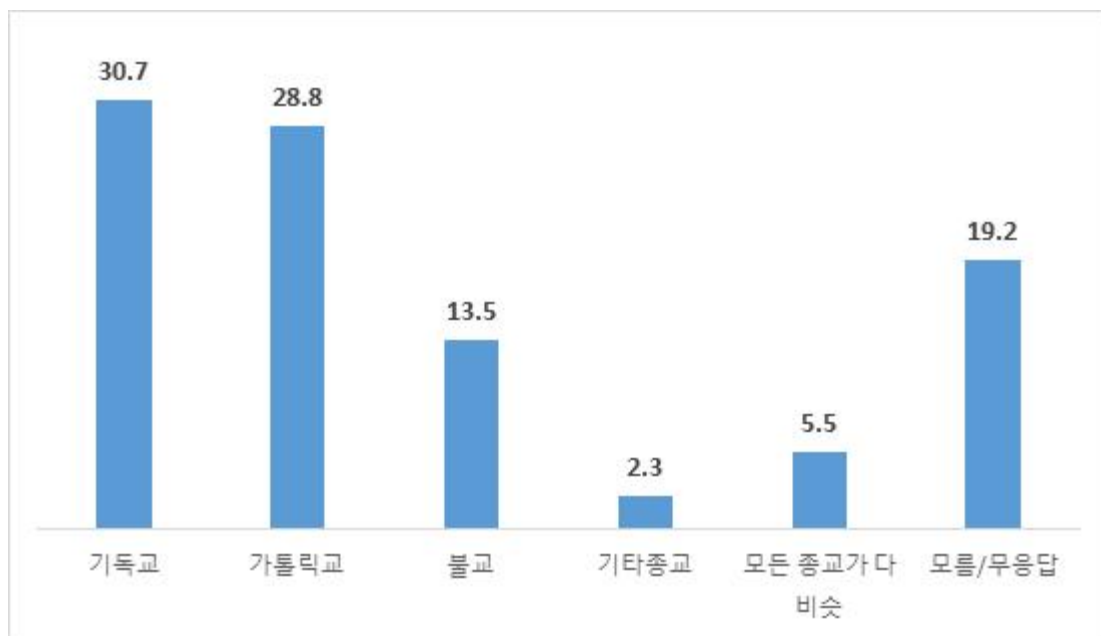
3)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

이번에는 처음으로 사회봉사 활동량과는 상관없이 어느 종교의 사회봉사 활동이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역시 기독교(30.7%)와 가톨릭(28.8%)이 오차범위 내에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이는 기독교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기여도라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종교별 사회봉사활동 수행과 관련된 2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비교해보면 기독교와 가톨릭은 양적인 측면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고, 불교의 경우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보다 내실있고 기여도가 높은 사회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계층별로 보면, 기독교의 사회봉사 활동이 가장 한국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대와 60대 이상 층에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소득수준 중/하층에서,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와 중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9〉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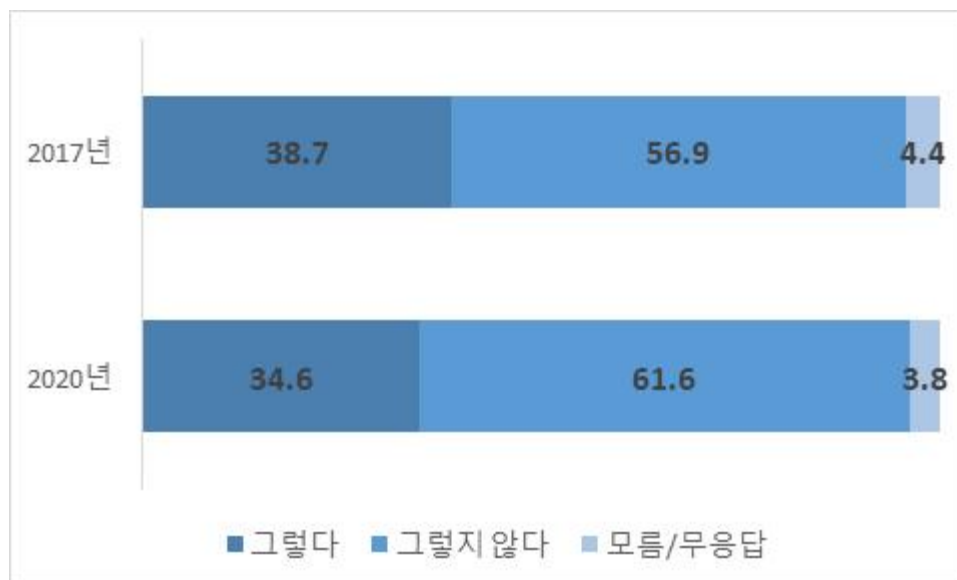
4) 한국교회의 교회 밖 세상과 소통

그동안 한국교회의 중요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인식되어온 세상과의 소통문제에 관해 2017년에 이어 2번째로 조사하였다. 한국교회가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소통한다(매우+약간)’ 34.6%, ‘소통하지 않는다(별로+전혀)’ 61.6%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이 60%를 상회하였다. 2017년에 비해서도 부정 평가가 약간 증가하였다.

계층별로 먼저 종교별로는 기독교인의 경우 한국교회가 세상과 ‘소통한다’ 56.9%, ‘소통하지 않는다’ 40.7%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한국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무종교인의 경우 한국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다가 69.1%로 역시 가장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 한국교회의 관용과 소통역량 부족, 자교회 중심주의 등이 이러한 소통 부재의 평가를 낳은 원인이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한국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높았으며, 한국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한국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4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교회의 사회와의 소통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한국교회의 교회 밖 세상과의 소통 평가

(N=1000, %)



5) 한국교회의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 기여도

한국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개선 과제 중 하나인 한국교회의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 기여도에 관해 2013년부터 3번째로 조사하였다.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기여하고 있다(매우+약간)’ 31.6%, ‘기여하고 있지 않다(별로+전혀)’ 64.7%로, 부정응답이 긍정응답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과거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부정적 응답 비중은 2013년 38.2%, 2017년 62.1%, 2020년 64.7%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독교의 반성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계층별로 먼저 종교별로는 기독교인의 경우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57.7%, ‘기여하고 있지 않다’ 40.3%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무종교인의 경우 ‘기여하고 있지 않다’ 72.8%로 역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국교회의 독단주의,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배타성 등이 이러한 부정적 결과를 낳은 원인이 아닌 가 추측된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한국교회가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훨씬 높았으며, 한국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이 43.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1〉 한국교회의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 기여도 평가

(N=1000, %)



3. 한국교회의 개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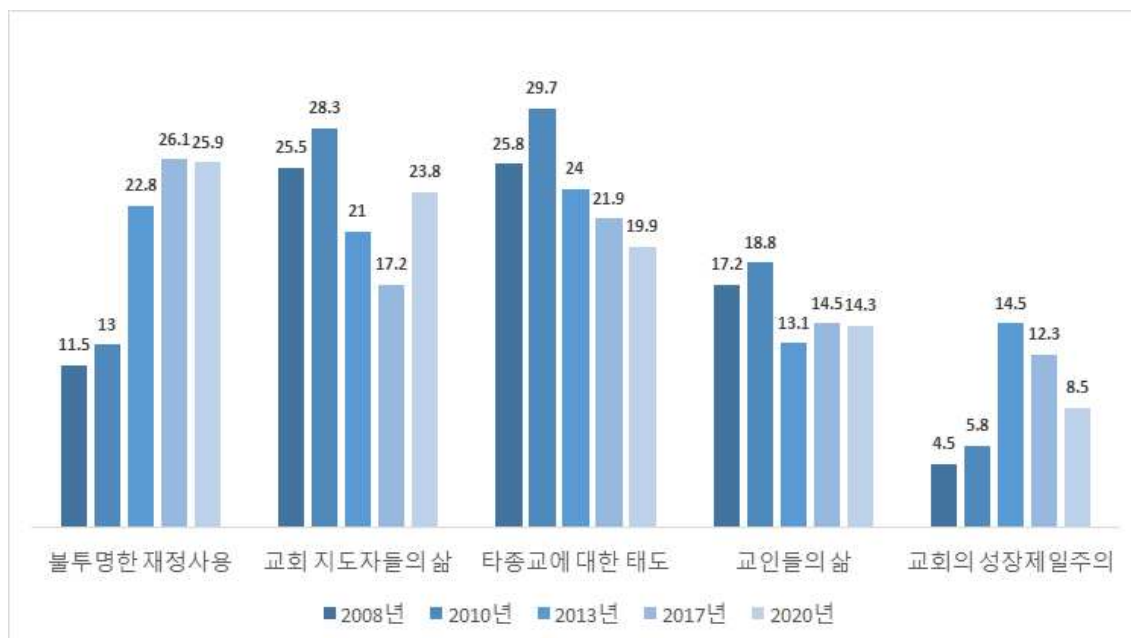
1)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불투명한 재정 사용’이 2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삶’ 22.8%, ‘타종교에 대한 태도’ 19.9%, ‘교인들의 삶’ 14.3%, ‘교회의 성장제일주의’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투명한 재정 사용’은 2013년에 1위를 기록한 이후 계속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의 삶’은 2017년 3위에서 2020년에 2위로 올라섰고, ‘타종교에 대한 태도’는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교회의 재정사용 투명성과 종교인 과세 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와 도덕성 잣대가 보다 엄격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한국교회는 교단/노회 차원에서 인사와 재정의 기준 및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재정 사용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12〉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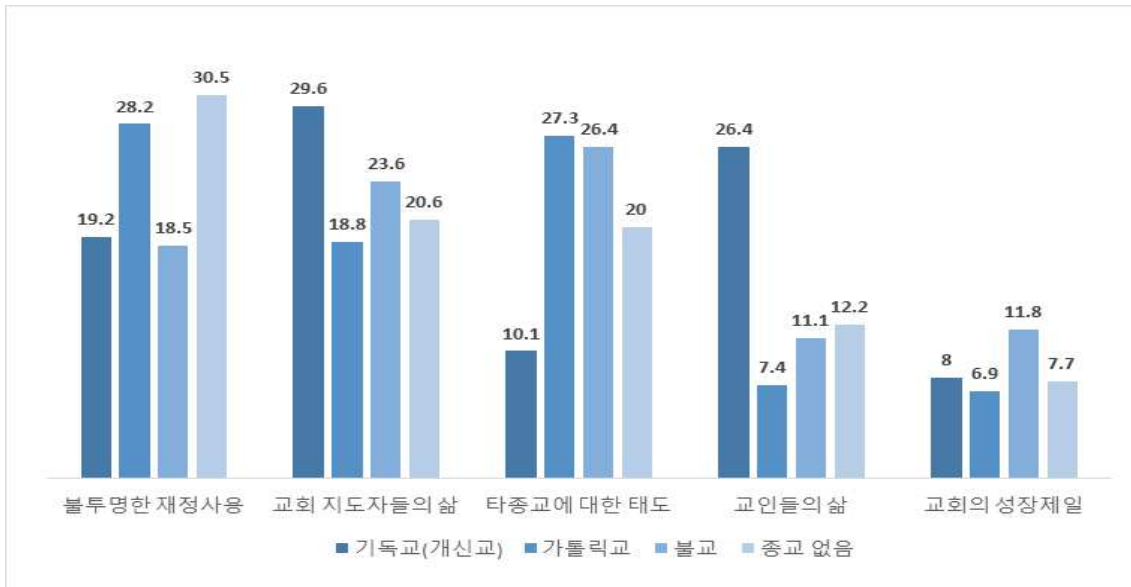


계층별로 보면 ‘불투명한 재정사용’은 20대층, 가톨릭인과 무종교인, 소득수준별로 상층, 이념성향별로 진보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회 지도자들의 삶’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인은 ‘교회 지도자들의 삶’, ‘교인들의 삶’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들에 대한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가톨릭인과 무종교인은 ‘불투명한 재정사용’, ‘타종교에 대한 태도’와 같은 교회전체의 조직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현실 인식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전체 기독교의 조직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개선이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림 13〉 종교인별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인식 차이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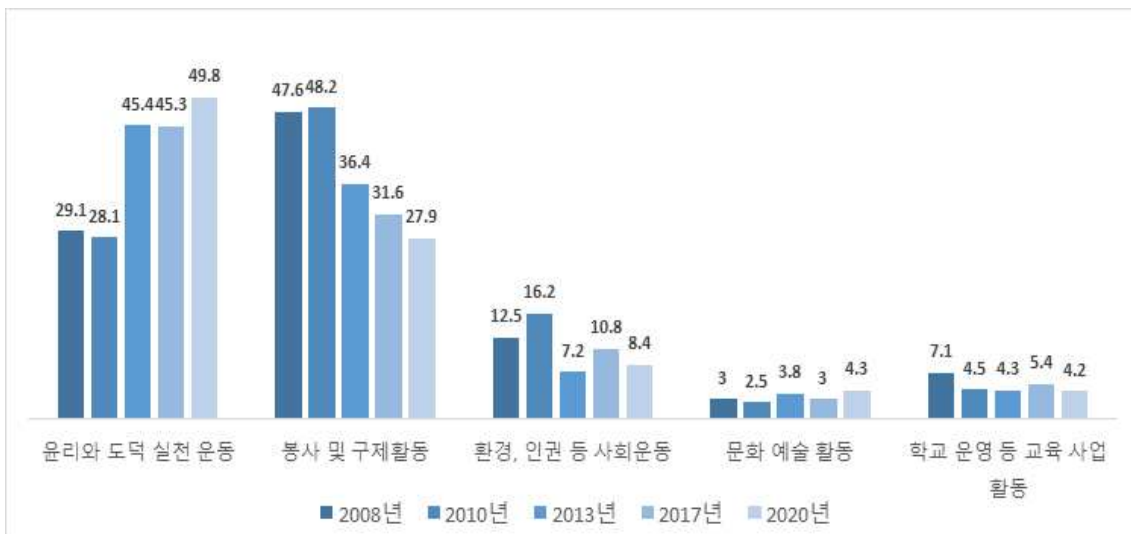
2)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윤리와 도덕실천운동’이 49.8%로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봉사 및 구제활동’ 27.9%,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 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리와 도덕실천운동’은 2010년까지는 ‘봉사 및 구제활동’에 이은 2위였는데 2013년 이후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층별로도 연령, 종교, 지역, 소득수준, 이념성향에 상관없이 모두 ‘윤리와 도덕실천운동’을 1순위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교회 차원에서 ‘윤리와 도덕실천운동’은 가장 중요시해야 할 사회적 활동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그 방향과 실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활동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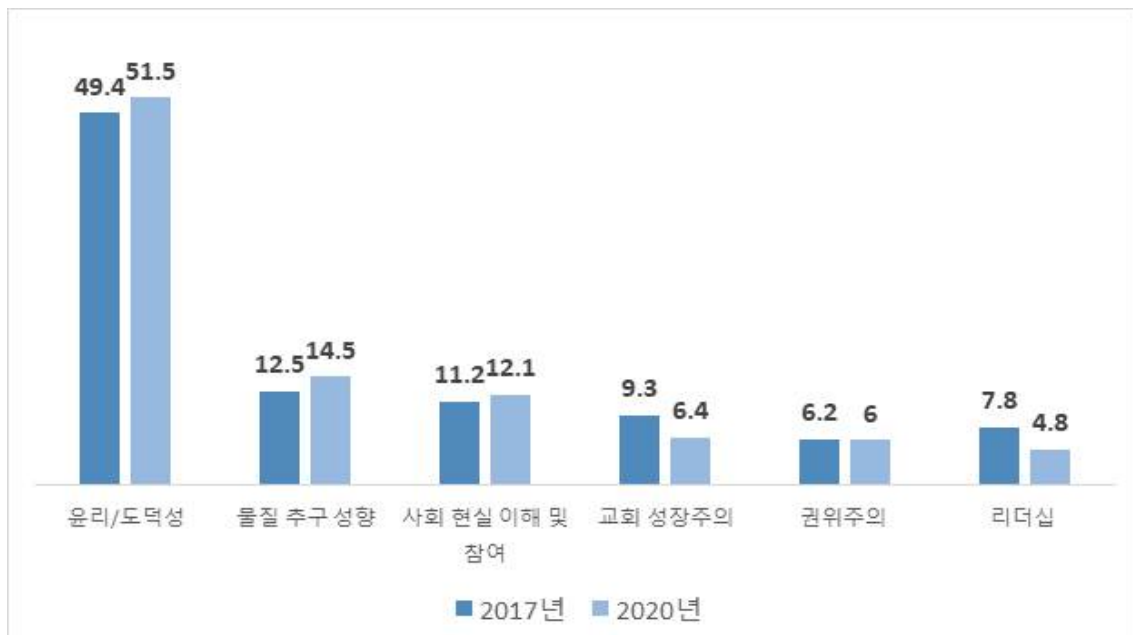
3)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한국교회의 목사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윤리/도덕성’이 51.5%로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물질 추구 성향’, ‘사회현실 이해 및 참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목회자의 ‘윤리와 도덕성’은 압도적으로 높게 지적이 되었으며, 계층별로도 연령, 종교, 지역, 소득수준, 이념성향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으로 ‘윤리와 도덕실천운동’이 1위를 기록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교회에서 목회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제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의 ‘윤리/도덕성’ 제고는 결국 한국교회의 ‘윤리와 도덕실천운동’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5〉 한국교회 목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N=1000, %)



4)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이번에는 기독교인(개신교인)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남에 대한 배려 부족’이 26.6%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다음으로 ‘정직하지 못함’ 23.7%, ‘배타성’ 22.7%, ‘물질/성공주의’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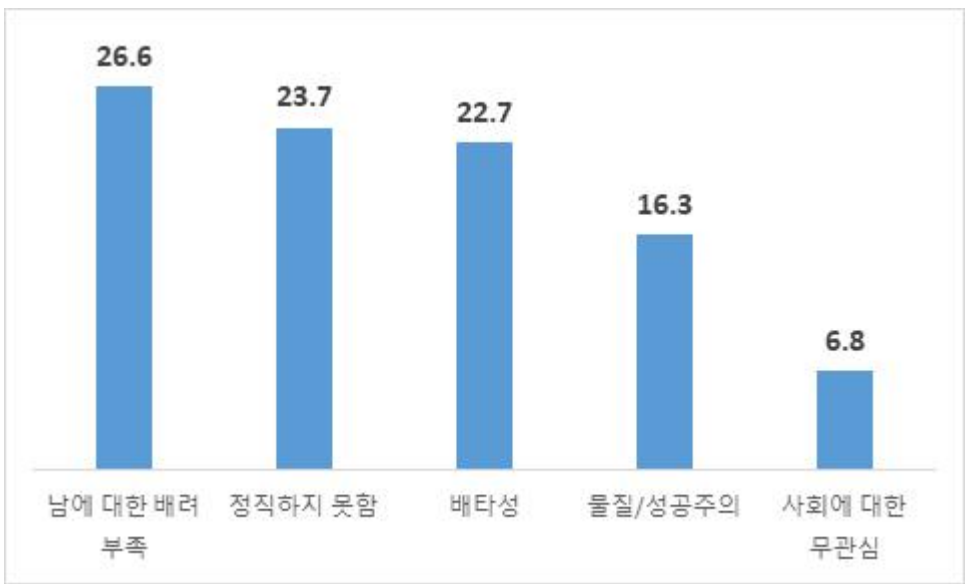
2017년에는 정직하지 못함(28.3%), 남에 대한 배려 부족(26.8%), 배타성(23.2%) 순이었으나, 2020년에는 남에 대한 배려 부족(26.6%), 정직하지 못함(23.7%), 배타성(22.7%) 순으로 1위와 2위가 바뀌었다(물론 소수 응답항목 1개가 변경되어 정확한 비교는 곤란하다). 이는 기독교인 자신의 정직성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에게 조금더 관용과 배려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물질/성공주의가 4위(16.3%)로 부상하였는데, 이는 기독교인들의 기복신앙과 황금만능주의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인식이 증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계층별로 ‘남에 대한 배려 부족’은 60대 이상 고령층, 읍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정직하지 못함’은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6〉 기독교인(개신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N=1000, %)



4. 최근 이슈에 대한 인식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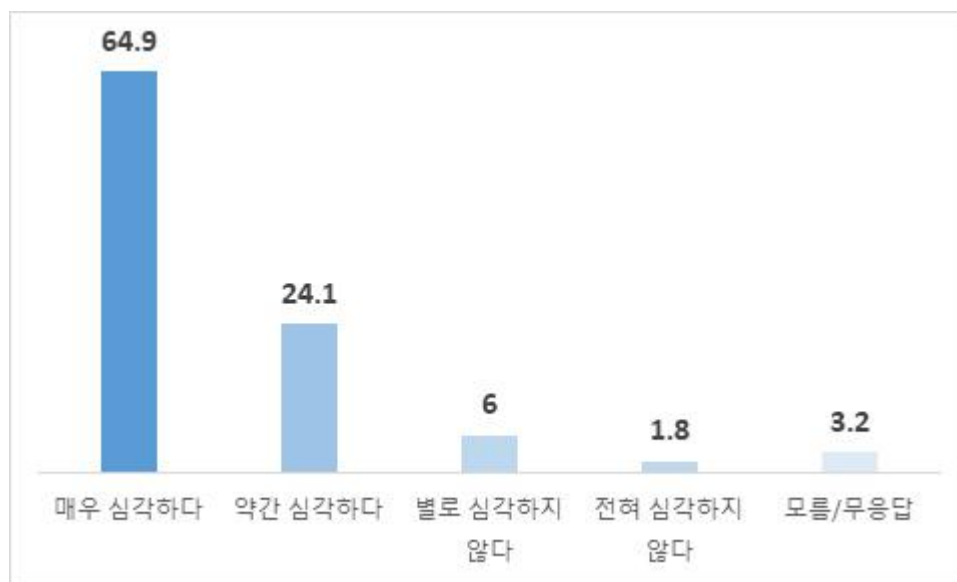
1) 가짜 뉴스의 심각성

최근 가짜 뉴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이번 조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요즈음 가짜 뉴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물어본 결과, 89%의 국민이 '심각하다(매우+약간)'고 응답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짜 뉴스가 심각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계층별로 가짜 뉴스가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은 40~50대 연령층, 기독교인 그리고 이념적으로 진보성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7〉 가짜 뉴스의 심각성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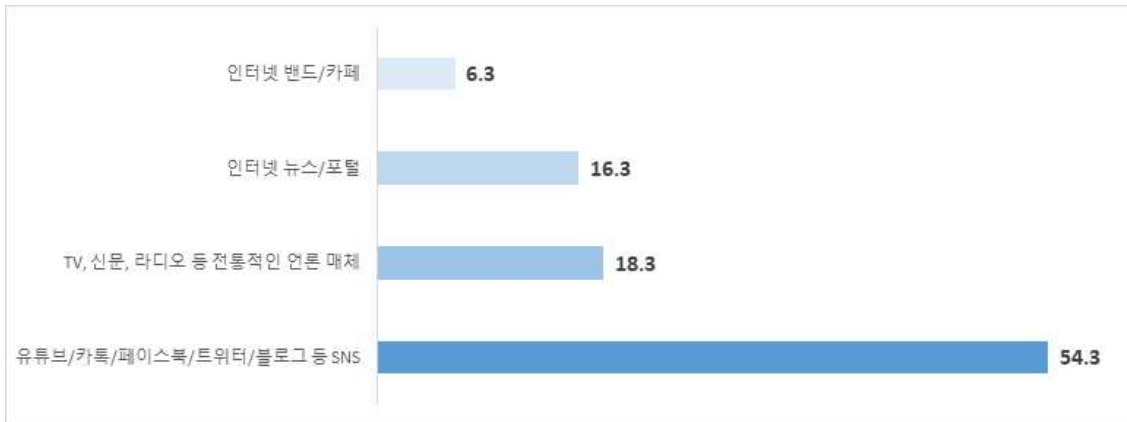
2) 가짜 뉴스의 주 유통 경로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은 가짜 뉴스를 어느 경로를 통해 전파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SNS(유튜브/카톡/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등)'를 통해 접한다는 응답이 54.3%로 압도적인 1위였고, 다음으로 '전통적인 언론매체(TV, 신문, 라디오 등)' 18.3%, '인터넷뉴스/포털'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층별에서는 이념성향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진보성향층은 'SNS'가, 보수성향층은 '전통적인 언론매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보수성향층에서는 전통적 언론매체가 진보성향에 가깝다는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진보성향층에서는 가짜뉴스가 카톡이나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 많이 확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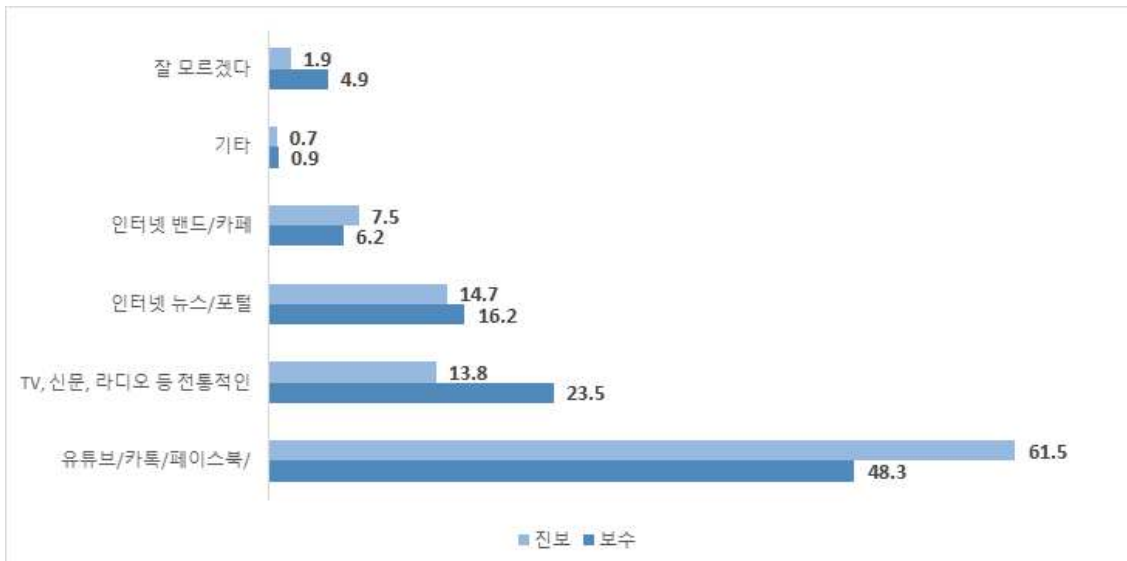
〈그림 18〉 가짜 뉴스의 주 유통 경로

(N=1000, %)



〈그림 19〉 보수성향층과 진보성향층의 가짜 뉴스의 주 유통 경로에 대한 인식 비교

(N=1000, %)



3) 목사의 정치적 참여 허용 정도

최근 한기총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활동이 기독교 내에서 이슈가 된 것과 관련, 기독교 목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의 절반 가량(47.7%)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으며, 52.3%는 사석에서는 괜찮다는 입장이고, 정치적 집회나 활동에 참여해도 된다는 의견은 16.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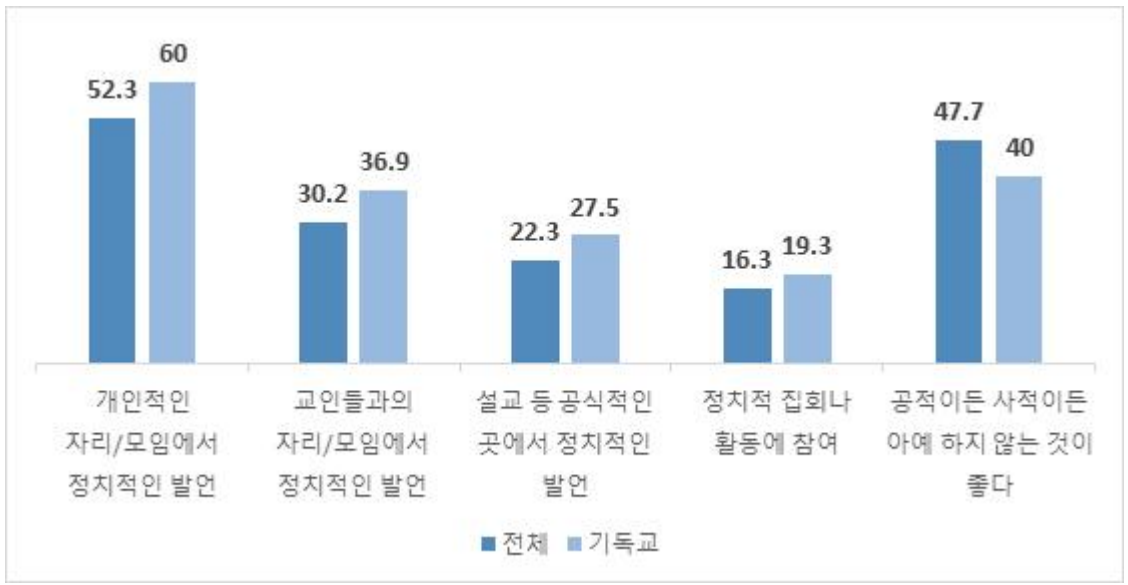
종교별로 기독교인의 60%는 목사가 사석(개인적인 자리나 모임)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인데, 전체적으로 목사의 정치적 발언 또는 활동에 대해 일반국민 보다는 다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종교인과 무종교인 중에서는 가톨릭인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54.2%)로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가톨릭인의 진보성향 비중이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목사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정치적 발언/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 읍면지역 거주자, 소득수준 하층 그리고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20〉 목사의 정치적 참여 허용 정도

(N=1000, %)



5.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음으로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4점 척도의 신뢰도를 종속변수로 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 종교, 소득, 성별, 직업, 정치성향 변수가 실제 신뢰도의 방향을 결정짓는 유의미한 변수인지와 유의미한 변수들 가운데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로지스틱회귀분석의 목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6가지 변수가 한국교회 전체 신뢰도, 기독교 목사에게 대한 신뢰도,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번 신뢰도 조사 분석에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한 이유는 설문에서 신뢰도에 해당하는 점수가 4점 척도로 변경됐기 때문에 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해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신뢰함'(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음'(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의 두 개의 카테고리로 양분해 정의한 변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로지스틱회귀를 실시하였다. 참고로 설명변수는 모두 범주형이기 때문에 가변수(dummy variable)로 변환해 분석했으며 결과 해석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래 결과표의 회귀계수를 해석하는 방법은 회귀계수가 0보다 큰 양수인 것은 각 설명변수의 기준 범주에 속한 응답자 대비 해당 범주에 속한 응답자가 '신뢰함'을 선택할 확률이 '신뢰하지 않음'으로 응답할 확률보다 높음을 뜻하고, 회귀계수가 음수인 것은 그 반대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아래 결과표의 오즈비를 해석하는 방법은 오즈비는 각 설명변수의 기준 범주에 속한 응답자 대비 해당 범주에 속한 응답자가 '신뢰함'을 선택할 확률이 '신뢰하지 않음'으로 응답할 확률의 몇 배인지를 의미한다.

먼저 아래 <표 5>의 설명변수 중에서 연령이 신뢰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연령변수가 기독교 목사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결과 중 60대 이상 범주의 회귀계수가 양수인 0.720인데, 이는 20대 이하 집단에 비해 60대 이상 집단의 신뢰도가 높은 수준인 것을 의미하며, 또 연령변수가 기독교 목사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결과 중 연령 변수의 60대 이상 범주의 오즈비값이 2.054(205.4%)인데, 이는 20대 이하 집단에 비해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목사에게 대한 신뢰도가 20대 이하 집단의 두 배 정도임을 나타낸다. 동일하게 연령변수가 기독교인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결과 중 60대 이상 범주의 회귀계수가 양수인 0.911인데, 이는 20대 이하 집단에 비해 60대 이상 집단의 신뢰도가 높은 수준인 것을 의미하며, 또 연령변수가 기독교인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결과 중 연령 변수의 60대 이상 범주의 오즈비값이 2.487(248.7%)인데, 이는 20대 이하 집단에 비해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목사에게 대한 신뢰도가 20대 이하 집단의 두배 반이 넘는 수준임을 뜻한다.

연령변수가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결과 중 30대와 40대 범주의 회귀계수가 각각 음수인 -0.711, -0.693인데, 이는 20대 이하 집단에 비해 30대와 40대의 신뢰도가 낮은 수준인 것을 의미하며, 또 연령변수가 한국교회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결과 중 30대와 40대 범주의 오즈비값이 각각 0.419(41.9%), 0.500(50.0%)인데, 이는 20대 이하 집단에 비해 30대와 40대의 한국교회 신뢰도가 20대 이하 집단의 절반 정도임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정치성향이 신뢰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교회 전체 신뢰도의 경우 정치성향 변수의 진보 범주의 회귀계수의 값이 음수인 -0.799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수 성향 응답자의 신뢰도에 비해 진보 성향 응답자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되며, 한국교회 전체 신뢰도에서 정치성향 변수의 진보 범주의 오즈비가 0.450(45.0%)인 것은, 보수 성향 응답자의 신뢰도에 비해 진보 성향 응답자의

신뢰도가 45.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성향 변수가 기독교 목사 신뢰도와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에도 각각 비슷한 수준의 영향관계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종교가 신뢰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교회 전체 신뢰도의 경우 종교 변수의 무종교인 범주의 회귀계수의 값이 음수인 -2.702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개신교인 응답자의 신뢰도에 비해 무종교인 응답자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해석되며, 한국교회 전체 신뢰도에서 종교 변수의 무종교인 범주의 오즈비가 0.067(6.7%)인 것은, 개신교인 응답자의 신뢰도에 비해 무종교인 응답자의 신뢰도가 6.7% 수준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종교 변수가 기독교 목사 신뢰도와 기독교인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무종교인 범주는 비슷한 수준의 영향관계를 보여주었다. 종교 변수의 무종교인 범주가 신뢰도 수준에 미친 영향 결과는 타종교인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무종교인이 타종교인보다 신뢰도 수준에 더 부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여주었다.

〈표 5〉 신뢰도의 결정요인 : 인구사회학적 속성

		종속변수					
		한국교회 전체 신뢰도		기독교 목사 신뢰도		기독교인 신뢰도	
설명변수		회귀계수	오즈비	회귀계수	오즈비	회귀계수	오즈비
연령	20대 이하	-	-	-	-	-	-
	30대	-0.711 *	0.419	-0.750 *	0.472	0.109	1.115
	40대	-0.693 *	0.500	-0.079	0.924	0.111	1.117
	50대	-0.251	0.778	0.071	1.074	0.479	1.614
	60대 이상	0.291	1.338	0.720 **	2.054	0.911 ***	2.487
종교	개신교인	-	-	-	-	-	-
	타종교인	-2.189 ***	0.112	-2.250 ***	0.105	-1.780 ***	0.169
	무종교인	-2.702 ***	0.067	-2.390 ***	0.092	-1.981 ***	0.138
소득	상	-	-	-	-	-	-
	중	0.535 **	1.707	0.291	1.338	0.051	1.052
	하	0.404	1.498	0.175	1.191	-0.106	0.899
성별	남	-	-	-	-	-	-
	여	-0.026	0.974	0.051	1.052	-0.142	0.868
직업	가정주부	-	-	-	-	-	-
	학생	-0.929 *	0.395	-0.417	0.659	-0.229	0.795
	블루칼라	-0.603 *	0.547	-0.545	0.580	-0.056	0.946
	화이트칼라	-0.536 *	0.585	-0.332	0.717	-0.216	0.806
	자영업	-0.427	0.652	-0.018	0.982	-0.150	0.861
	무직/기타	-0.005	0.995	0.318	1.374	0.276	1.318
정치성향	보수	-	-	-	-	-	-
	중도	-0.405 **	0.667	-0.365 **	0.694	-0.075	0.928
	진보	-0.799 ***	0.450	-0.825 ***	0.438	-0.487 **	0.614
Null deviance		1267.09 (df = 940)		1281.91 (df = 965)		1298.3 (df = 965)	
Residual deviance		923.09 (df = 924)		967.96 (df = 949)		1077.4 (df = 949)	
AIC		957.09		1002.0		1111.4	

[Note] * $p < 0.10$, ** $p < 0.05$, *** $p < 0.01$

IV. 결론 및 제언

1. 조사 결과의 요약

이번 2020년 한국교회의 신뢰도 여론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도 수준은 전 국민의 3분의 2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할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나 한국교회의 자성과 회개가 절박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 저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만성부전화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진단된다. 특히 기독교인은 75.5%가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무종교인은 78.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내부와 외부의 인식 차이가 극명해 그 심각성은 더욱 컸다. 또한 기독교 목사와 기독교인으로 구분해 조사한 신뢰도 수준도 한국교회 전체의 신뢰도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으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의 인식 차이도 동일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추세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보다는 기독교 목사에게 대한 불신이 더 크게 상승하고 있어 향후 기독교 목회자들의 윤리와 도덕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둘째,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먼저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가톨릭>불교>기독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무종교인은 가톨릭, 불교 대비 기독교를 매우 낮게 평가하였으며 추세적으로도 하향세에 있어 향후 기독교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교와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종교로는 모두 기독교와 가톨릭이 근소한 차로 1, 2위를 차지해 기독교가 사회봉사활동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다. 다만 기독교는 양적 측면에 비해 질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기여도 측면에서의 개선도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한국교회의 교회 밖 세상과의 소통과 한국교회의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60%가 넘는 국민들이 부정적 응답을 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서도 부정 응답은 증가추세였다. 심지어 기독교인과 60대 이상에서도 40%가 넘는 부정응답이 나와 두 항목 모두 많은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먼저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불투명한 재정 사용, 교회 지도자들의 삶, 타종교에 대한 태도, 교인들의 삶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였다. 특히 기독교인은 교회 지도자들의 삶, 교인들의 삶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개선을, 가톨릭인과 무종교인은 불투명한 재정사용, 타종교에 대한 태도와 같은 조직적 차원의 개선을 더 요구하였다.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으로는 계층에 상관없이 압도적으로 윤리와 도덕실천운동을 지적하였는데, 향후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윤리와 도덕실천운동의 구체적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기독교 목사의 개선점으로도 윤리/도덕성이 매우 높게 지적되었는데, 결국 향후 한국교회와 기독교 목회자는 윤리와 도덕성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으로는 남에 대한 배려 부족, 정직하지 못함, 배타성 등이 지적되었다.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에게 보다 관용과 배려를 베풀고 스스로 정직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먼저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89%의 국민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짜 뉴스의 주 유통경로로는 SNS, 전통매체, 인터넷뉴스/포털 순이었으며, 진보성향층은 'SNS'가, 보수성향층은 '전통적인 언론매체'를 주 유통경로로 지목하였다. 목사의 정치적 참여 허용 정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7.7%는 사적이든 공적이든 목사의 정치적인 발언에 부정적이었으며, 52.3%는 사석에서는 관참

다는 입장이고, 정치적 집회나 활동에 참여해도 된다는 의견은 16.3%로 나타났다.

다섯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한국교회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연령, 종교, 정치성향에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에서 기독교 목사와 기독교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고 30대와 40대에서는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타났으며, 정치성향에서는 진보성향층에서 한국교회, 기독교 목사,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에서는 무종교인, 타종교인의 한국교회, 기독교 목사,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한국교회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제언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도 수준과 외부의 인식은 2017년에 이어 2020년에도 조금씩 더 나빠졌다. 최근 10여년간 지속된 신뢰도 감소 추세로 인해 현재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으며, 이러한 신뢰도 저하현상은 만성 질환화되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재는 응급처방으로 될 일이 아니고 정확한 진단을 통한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며, 교회 전체 차원의 대책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기독교인 모두의 자성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독교 지도자와 목회자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더 많은 자성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1) 윤리와 도덕 회복만이 살 길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는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기독교인의 윤리성과 도덕성 회복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최우선 개선점으로는 ‘불투명한 재정사용’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회적 활동으로 ‘윤리와 도덕실천운동’이, 기독교 목회자의 최우선 개선점으로 ‘윤리/도덕성’이, 기독교인에 대한 최우선 개선점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정직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모든 응답에서 기독교인보다 비기독교인의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역할에 대한 세상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기독교 목사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잣대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도덕성과 윤리성 회복을 위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윤리는 어떠한 것인가? 먼저 박철 등(2018: 232p)은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경영의 원칙 중 하나로 신뢰의 원리를 들면서 ‘신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 없이 행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원리이며, 그 구성요소로는 진실성, 투명성, 일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에 거짓됨 없이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한결 같은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끄 엘월도 ‘세상속의 그리스도인’에서 기독교 윤리는 어떤 법칙이나 원리, 명령어의 나열이 아니라 임시적이고 변증법적이라고 설명하면서, 기독교 윤리운동의 핵심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화되면서 새로워지는 영적인 전투를 날마다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잠 11:1)’,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 하여도 여호와와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잠 21:2)’, ‘너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벧전 2:12)’는 말씀처럼 사람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을 속이지 않고 선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과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안겨 주셨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성경적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윤리와 도덕을 실천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은 시간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 한국교회에 문제와 갈등이 생기거나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기독교 단체와 교단 등에서는 일회성 캠페인을 벌이거나 구호를 내걸면서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신뢰는 결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지금의 신뢰 수준은 과거의 오랜 경험과 역사성을 통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해묵은 과제이며, 그러한 믿지 못함의 간극을 만든 시간만큼 더 많은 믿음 축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기독교인들이 온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진정성을 가지고 인내하며 말씀과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된다면, 결국 한국교회는 더욱 신뢰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도 더 정직하고 재정 투명성을 지켜야 하며, 교인들이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윤리 운동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2) 세상과 더 소통하고 우리는 더 통합하자

한국교회의 세상과의 소통 및 사회통합 기여 노력에 대해서 현재 60%가 넘는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독교인 자신과 기독교에 우호적인 60대 이상에서도 무려 40%가 넘는 부정적 응답이 나온다.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소통을 못하고 통합에 취약한가? 아니면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인가? 어떤 경우라도 결국은 한국교회가 개선되어야만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비기독교인과의 소통방식을 개선해야만 한다.

미국의 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교수는 <트러스트>에서 "가장 효과적인 조직은 신뢰 관계 안에서 공동체와 윤리적 가치를 공유하는 조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공유'의 실천이 바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과 눈높이를 맞추어 경청하고 소통하며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긴밀한 신뢰 관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독교인은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나 세상 속에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국교회는 변화한 시대에 걸맞는 효과적인 사회 소통 방식을 빨리 찾아서 한국교회의 신뢰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한편 기독교인의 수가 많다고 하여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오히려 겸손한 모습, 섬기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면서 교회와 기독교인에 관하여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인터넷과 SNS를 통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워낙 발달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을 사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세상도 금방 우리를 알아줄 것이다.

한국교회의 통합 노력도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하나되지 못함은 비기독교인의 불신을 불러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기독교가 종파와 교단의 이익을 위해 서로 갈라서고 서로 비방하며 세상의 법정으로까지 서스럼 없이 나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고 한국교회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다. 비기독교

인들이 기독교가 시대를 위해 해주었으면 하는 역할은 어느 쪽 편에 서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해소와 통합 그리고 치유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은 더욱 지혜를 모으고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의 통합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이념, 경제적 양극화, 세대간 갈등 등에 대한 치유, 통합, 해결하는 역할에도 앞장서야 한다. 교회가 세상과 같이 각자의 주장을 하면서 분열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통합, 중재의 역할에 보다 신경써야 한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도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개별 교회가 교인들을 교회 활동에만 몰입시키고 그 결과 교인과 일반인, 교회와 사회가 격리된다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사회와의 소통 및 통합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교회지도자들은 교인들을 너무 교회 안에만 가두려 하지 말고 오히려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 속에서 섬기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닫힌 교회가 아닌 열린 교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 약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3) 배려와 정직은 늘리고, 배타성은 줄이자

이번 조사에서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교와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종교로 모두 기독교와 가톨릭이 근소한 차로 1, 2위를 차지해 기독교가 사회봉사활동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교회가 사회봉사활동을 열심히 그리고 나름 짜임새있게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하버드대 로버트 푸트넘(Robert Putnam) 교수도 신뢰형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원봉사와 자선사업을 통해 사회적 자본인 사회적 신뢰를 얻어 왔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기독교인 개인의 개선점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을 가장 크게 지적하였으며, 정직성도 부족하고 배타성도 크다고 응답하였다. 정직성 부족은 기독교 목회자의 윤리/도덕성에 대한 개선요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국교회가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배려심이 부족하고 배타적이라고 느끼는 것일까? 이는 아마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교회의 소통 부족과 분열된 모습이 그 원인일 수 있을 것이고, 또 독단적이고 이기적이며 물질만능을 추구하는 기복신앙 등의 모습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과거 기독교가 서양에서 들어와 한국에 전파될 시대에는 기독교가 일방적으로 경제적 지원만 해도 충분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물질적 지원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정서적 차원의 지원과 공감을 통한 마음의 치유가 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배려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인의 사고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헤아리는 사랑의 능력이자 실천이며,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회에 치유를 가져올 수 있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옥중서신>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타자를 위한 교회론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면서,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하며 그들을 돕고 섬겨야 한다”고 말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분이 우리를 타자를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타자들을 더욱 섬기고 도울 책무가 있다.

성경에도 보면 과부가 된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가 나온다(룻 2:14~17). 보아스는 그의 밭에 있는 곡식을 룻이 주워가도록 배려했다. 룻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결국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축복을 받게 된다. 배려는 이처럼 타자와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타

자와 소통하고 통합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요한1서 4:11)”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죄인 되었으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우리는 타인을 포용하고 배려해야 한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모인 곳에서 배려와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커다란 위선덩어리가 될 것이다.

4) 비기독교인, 무종교인, 그리고 30대, 40대에 더 관심을 가지자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에서 특히 비기독교인, 그중에서도 무종교인의 불신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교회, 기독교 목사,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에서 무종교인들의 경우 70%가 넘는 부정적 응답을 나타내 한국교회에 대해 매우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 선호도 상대평가에서도 무종교인은 가톨릭 33.0%, 불교 23.8%, 개신교 6.1%의 응답률을 보였고, 2009년 이후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10%에서 6%로 매우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영향 분석에서도 무종교인의 신뢰도에의 부정적 영향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넘고 파급력이 높은 무종교인 그룹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반증하며 향후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심각한 자성과 고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앞에서 언급한 윤리와 도덕성 회복, 소통과 통합 노력, 배려와 정직 등일 것이나, 특별히 종교인이 아닌 무종교인에 대해서는 향후 조금 더 각별한 신경과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타종교인들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종교적 행위나 의사표현 등도 무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비상식적인 문제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종교적 영역이 아닌 사회활동과 자원봉사 등의 영역에서 기독교계의 보다 진정성 있는 노력과 헌신 등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문제들에 대해 한국교회가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나선다면 무종교인들의 인식 개선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전도도 가능해질 것이다.

추가로 인구사회학적 분석에서 30대와 40대의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30대와 40대는 주일학교 자녀들이 있는 (혹은 있을) 연령층이어서 교회의 다음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향후 기독교계와 교단/교회에서는 30대와 40대를 향한 각별한 관심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최근 기독교계를 보면 가짜 복음, 번영 복음이 진짜인 양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짝짝 찬 진짜 복음, 순복음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만 한다. 기독교의 신뢰도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결국 사회봉사와 구제 등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며,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임재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더욱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돌아보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기윤실의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는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뜻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되어 왔다. 우리가 우리의 민낯을 여과없이 내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

함과 동시에 이러한 개선점들을 더욱 철저하게 실천하고 이를 세상에 의해 다시 평가받기 위해서이다. 한국교회가 신뢰도조사를 통해 개선의 방향을 정확히 판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기윤실에서 3년 마다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는 한국교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척도이다. 2008년 처음 발표되었을 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18.4%였다. 생각보다도 너무 낮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조사 당사자 중에 하나인 필자도 많이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당시는 2007년의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도 있었고, 2008년 종교편향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일시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첫 3회의 1년 주기 조사와 이후 3회의 3년 주기 조사를 종합해 보면 이 수치는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즉 그 조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 동안 많은 고민을 해 왔던 5점 척도에서 벗어났다. 그 동안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서 5점 척도를 사용해 왔다. 즉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보통이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주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더 의견을 선명히 보기 위해서 4점 척도를 사용했다. 즉 ‘보통’이라고 하는 중간지대를 없애 버린 것이다. 이것은 이 조사를 시작할 당시인 2008년부터 내내 논의해 온 부분이었다. 한국교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관찰을까하는 불안 때문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서는 것을 보면서 교인들이 많이 불안하지 않을까, 또는 언론에서 이 부분만 너무 부각시켜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었다. 그래서 5점 척도로 시작을 했고, 내내 이러한 고민을 했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앞의 조사와 비교를 위해서 변함이 없이 진행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굳어졌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과감하게 4점 척도로 바꾸었다. 우려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왔지만, 생각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여론도 꽤 늘었다.

‘사회적 신뢰도 조사’는 3년에 한 번 한국교회의 성적표를 받아보는 것 같다. 이번에는 지난 3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큰 변화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도 아주 흥미진진하다. 실은 이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것 같다.

1. 변함없는 신뢰도, 그러나 위험한 지표

이번 조사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는 긍정 31.8%, 부정 63.9%였다. 이미 언급했듯이 지난 조사까지 5점 척도였다가 이제 4점 척도로 바꾸었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가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좀 수고롭기도 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난 조사에서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들을 반으로 나누고, 이를 양쪽으로 더해 보면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5차 조사에서는 긍정이 20.2%였고, 보통이 28.6%, 그리고 부정이 51.2%였다. 즉 보통을 반으로 나누면 14.3%가 나오는데 이를 양쪽으로 나누어 보면 긍정이 34.5%, 그리고 부정이 65.5%가 된다. 이번 조사와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긍정 의견이 조금 늘었다고 할 수 있고, 부정 의견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동안 무응답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4.4%가 나왔다는 것이다. 즉 정확한 의견을 물으니 결국 무응답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오차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변화이기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 더군다나 질문의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다른 면을 볼 수 있다. 먼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절대부정이 많이 늘어났다. 긍정 응답에서는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보통에 있던 사람들이 ‘약간 그렇다’로 몰린 것 같다. ‘매우 그렇다’의 의견은 6.4%에서 6.7%로 0.3% 상승했는데 ‘약간 그렇다’는 의견은 13.8%에서 25.1%로 상승했다. 즉 긍정 응답의 증가는 ‘약간 그렇다’는 대답의 의견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부정 응답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31.1%에서 31.5%로 별 변화가 없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20.1%에서 32.4%로 크게 늘었다. 즉 부정 응답에서는 절대부정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부정 응답의 증가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가졌던 층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몰리고, 그 빈자리를 이전에 ‘보통’에 머물렀던 사람이 채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체적인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 수준을 보면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확고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점점 의도적으로 불신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냥 감정적인 반대가 아니라 확고한 의지와 뜻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32.4%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한국교회가 확실히 적대적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종교에 대해서, 그것도 가장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사회가 이렇게 많은 적대적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정상은 아니라고 본다.

또 다른 특징은 이념성향에 따라 신뢰도의 차이가 현격하게 보이며, 동시에 지난 조사와 비교할 때 이러한 차이가 너무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념성향에 대한 질문에서 중도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긍정과 부정에서 30.2%와 64.2%로 약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보수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43.7%와 51.8%로 약 8%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진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23.2%와 74.6%로 세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념성향에 따라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가 이념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것은 가능하다. 외국에서도 종교에 따라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거나 그 종교에 근거해서 정당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그러한 면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이념성향에 따라서 한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결국 한국교회는 이념성향에 있어서 한 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이 사회에 비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념성향에 따라서 신뢰와 지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교회가 원래 이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조사만 해도 이 차이는 이렇게까지 현저하지는 않았다.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움직였다. 한국사회가 이념적으로 크게 분화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한 쪽의 지지를 얻게 되었거나, 한 쪽을 지지했기에 이런 이념적 친화성을 보였다. 뒤쪽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문제제기만 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이념이 이렇게 한 종교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2. 떠나는 30,40대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 대한 질문에서 기독교는 가톨릭과 불교에 이어 3위에 그쳤다. 물론 이전에도 이러한 순위는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눈에 띄는 부분은 연령대 별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30대와 40대의 감소가 눈에 띈다.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늘어난 반면에 50대를 포함한 이 세대에서는 줄어들었다. 지난 조사에서 30대와 40대의 신뢰 응답은 각각 18.8%와 18.0%였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각각 15.8%와 14.3%로 3%와 3.7%가 줄어들었다.

30대와 40대는 이 사회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세대이다. 이들은 이제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40대의 입장에서 회사에서 중역으로 올라가는 시기이다. 요즘은 30대에 회사의 대표를 하거나 대기업의 임원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니 이제는 이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고 아주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불신을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점점 더 해지고 있다면 한국교회의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세대의 자녀들이 바로 주일학교의 아이들이다. 한국교회는 가정종교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성장했고 그나마 이 시기에 교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편이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40대부터 사라지고 있다. 몇 년 전 중형교회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40대 초반부터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제 그 몇 년 동안 이들은 40대 중반이 되었을 것이다. 이들이 교회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기 어렵고, 자신들이 원하는 종교적 필요를 얻지 못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변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고 만다. 특히 교회의 정치적 표현들이 이들을 교회에서 내몰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이번 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담겼다고 본다. 30대와 40대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가 유난히 적고 그 경향이 점점 더해진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조사에서도 이념성향은 영향을 끼치어서 진보성향은 가톨릭이 41.5%로 월등히 높았고, 보수쪽에서는 25.5%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 평가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그렇다는 의견이 31.6%이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64.7%가 나왔다. 이 비율은 지난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현 시대를 초강대국시대라고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적다는 것이다.

종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사회통합의 기능이다. 사람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역할이나, 사회의 약자들을 돌아보아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등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사회가 교회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은 약 30% 수준이다. 그러면 분명 우리의 대사회적인 역할에 문제가 있다.

작년에 3.1 운동 100주년을 지냈다. 그 동안 우리는 한국교회가 100년 전에 위대한 일을 했음을 기억하고 있다. 인구의 2% 밖에 안 되었던 한국교회가 민족의 구심점이 되었던 것에 대한 자부심이다. 분명 한국교회는 그 당시 사회통합에, 물론 일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갈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여했다. 민족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사회통합이다.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사회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주간 서초동에 200만 명이, 광화문에 300만 명이 모임

적도 있다. 주최 측의 추산이기는 하지만 전 국민의 10%가 한 주간에 이 두 곳에 모여 정치적인 주장을 하였다. 이념적 양극화는 이렇게 거의 직접민주주의의 수준으로까지 나아갔다. 국가가 두 개로 쪼개지는 듯한 분열이다. 머지않아 폭력도 나올 것이고 테러도 나올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지만 누구도 이들을 수렴해 내지 못한다. 정치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때에 종교가 그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종교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었다. 사회통합의 기능에서 한국교회에 대해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30% 정도 밖에 안 된다. 한국교회가 선지자적 기능을 회복하여 이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4.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할 일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물었다. 이에 재정투명성, 지도자들의 삶, 타종교에 대한 태도 등으로 나타났다. 유독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지난 2번의 조사에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조사에서 지난 조사 대비 5.6%가 올랐다(17.2% - 22.8%). 최근 신옥주나 정명석 등과 같은 이단들에 대한 보도가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나왔고, 명성교회 사태 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기존 교회의 문제도 자주 방송에 나온 것이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하루이틀의 일은 아니어서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또 특이한 것은 타종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특히 불교인(-7.8%), 기독교인(-5.9), 그리고 기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4.9%) 중에 한국교회가 타종교에 대한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분명 추세로 보아서 한국교회의 태도가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불교의 경우 갑자기 많이 줄어든 것이 특이하다. 이 기간 동안 불교와의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독교인들 스스로도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워졌음을 볼 수 있다.

사회적 활동 가운데 중요시해야 할 점은 순위 상 변화는 없지만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과 ‘봉사 및 구제 활동’에 대한 비율이 더욱 벌어지고 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활동 가운데 중요시해야 할 부분은 2008년과 2009년 조사에서는 ‘봉사와 구제활동’이 월등히 높았다. 윤리와 도덕 문제와는 거의 20%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2010년부터 순위가 바뀌더니 그 격차가 크게 벌어져 이제는 거꾸로 윤리와 도덕이 봉사와 구제보다 2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점점 더 이러한 기대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봉사와 구제는 국가나 전문 기관이 잘 하고 있으니 교회는 윤리와 도덕 문제를 다루어 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양상을 더욱 더 보이며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반영해 주는 결과이다.

5.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 가짜 뉴스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 동안 가짜 뉴스의 폐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특히 기독교가 가짜 뉴스의 온상지라는 지적도 받아왔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가 심각한가를 물었는데 국민의 89%가 우려를 표실했다. 특히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4.9%로 국민들은 현재 가짜 뉴스의 심

각성에 대해서 거의 모두, 그리고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념적 진보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95.2%가 심각하다고 응답을 했는데 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거의 피해의식이라고 할 정도로 가까 뉴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매체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짜 뉴스의 통로에 대한 질문에서도 54.3%가 SNS를 지적했고, 18.3%가 소위 올드 미디어라고 하는 전통 언론 매체를 지적했다. 요즘 뉴스의 경로는 다양해졌다. 기존 신문과 방송 3사 등에서 종편을 통한 다양한 뉴스 채널들이 나왔다. 하루 종일 뉴스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여러 패널들이 등장하여 뉴스를 해석해 준다. ‘패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익숙한 직업군처럼 인식될 정도로 이들의 활약은 대단하다. 공식 뉴스에서 책임질 수 없는 선정적이거나 선동적인 이야기를 이들이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많은 시청자들은 이들의 현란한 이야기들 속에서 뉴스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은 내려놓고 이들의 의견을 복제하고 있다.

여기에 요즘은 방송 상황이 바뀌면서 유튜브 등을 통한 개인 방송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다수가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제작자로서, 또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적지 않은 정치, 사회 등의 주제로 활동하는 이들이 있다. 요즘 정치 집회를 가보면 수많은 개인방송가들이 실시간 방송이나 녹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모두가 뉴스를 만들어내는 주체들이다. 그러다 보니 뉴스의 통로가 많아졌다.

이렇게 다양해진 뉴스의 통로는 결국 뉴스의 다양화를 가져왔다.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의견, 내지는 정론을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뉴스를 생산해 낸다. 그러다 보니 의도적이었던, 비의도적이었던 간에 다양한 가짜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가짜 뉴스들은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고 사람들에게 공급된다. 실은 이런 뉴스들의 사실 검증은 결국 조회수에서 결정된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동의에서 사실이 된다. 그러니 뉴스는 더욱 자극적이 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이 되고 만다.

이런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은 결국 가짜 뉴스의 동조자가 된다. 가짜 뉴스의 제작자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동의하고 지지해 주며 가짜 뉴스를 돌려해 준 측면이 있다. 더 나아가 이를 공유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가짜 뉴스의 매체 역할을 해 주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우리 모두가 이런 가짜 뉴스의 동조자요, 공동 참여자가 된다.

교회가 이런 과정에서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한다.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집단으로서 이런 가짜 뉴스의 참여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수 있는 필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한다. 아니 오히려 침묵으로서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6. 결론

이번 조사의 특징은 이념적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유래 없이 이념성향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큰 차이를 보였고 여타 다른 질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이념적 분화가 커졌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이런 이념적 척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한국교회에 대한 입장에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결국 한국교회 역시 이런 사회적 경향에 편승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통합의 역할이나 윤리 도덕 운동의 역할이 기대될 수 없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으로 보이는 종교에 대해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기대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이 시대

에 맡겨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시대가 이념적 극심한 분화의 상황에서 다시 사회통합을 논하는데 한국교회는 편향된 이미지로 이미 그 역할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것은 지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본다.

특히 이제는 정치의 한 축으로 기독교가 비춰지고 있고, 심지어 원내에 진출하여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교회가 종교 집단이 아니라 정치 집단으로 역할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인식될 때 나오는 결과는 이 사회와 대립되어지는 집단으로, 여타 정당과 같이 지지자와 반대자로 나뉘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코 이것은 종교의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본 받아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며,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 세상을 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드러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해 보인다. 

한국교회 신뢰도 저하의 원인에 대한 분석

- 빅데이터 및 기타 설문조사 분석에 터하여 -

김진양 지앤컴리서치 부대표

1. 들어가는 말

한 해를 마감할 때면 으레 다사다난했다고 말을 하는데 2019년 한국교회는 정말로 다사다난한 해였다. 2020년을 열면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아래부터 '기윤실'로 표기)은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사회에서 '기독교'가 사회적 기관으로서 어느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본 조사 결과 한국인 10명 가운데 약 3명 정도만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있었고, 나머지 7명은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그다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체감하고 있었지만 막상 수치로 그 결과를 접했을 때, 충격과 실망감은 너무나 컸다.

한국교회의 낮은 신뢰도는 다른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18년 만 15세~69세 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사회통합조사'에서 보면 종교기관을 신뢰한다 42.7%, 신뢰하지 않는다 57.4%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0%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²⁾ 한국의 종교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도대체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기에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 다른 어떤 사회기관보다 믿을 만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불신하게 되었을까? 이 글에서는 한국교회가 사회에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다른 조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낮은 신뢰도의 배경은 무엇인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1) 통계청의 종교 조사에서는 기독교와 개신교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본 글에서는 기독교는 개신교를 의미하며 기독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신교와 기독교를 혼용함.

2) 한국행정연구원, '2018사회통합실태조사'(201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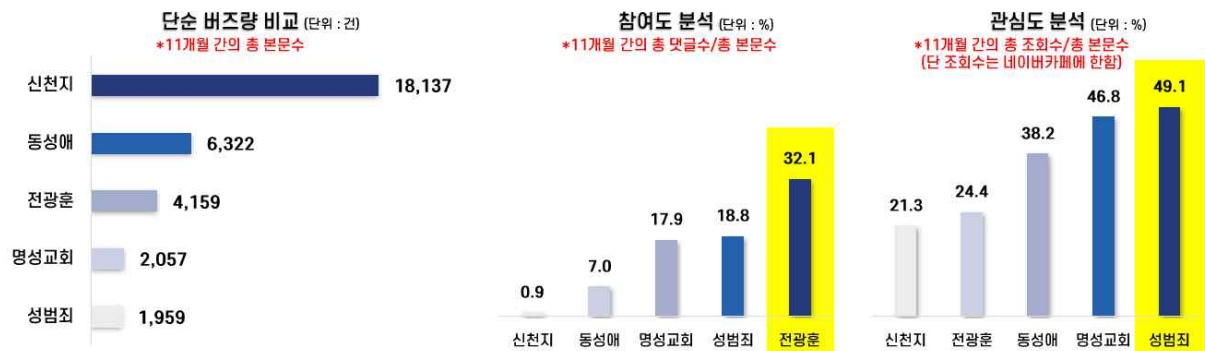
2. 한국교회의 이슈

현재 한국사회에 보인 한국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최근 한국교회탐구센터가 한국교회에 대한 온라인 여론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 2019년 1월~11월까지 ‘기독교, 교회, 목사’를 키워드로 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2019년 한국교회의 이슈를 ‘신천지’, ‘전광훈 목사’, ‘목회자 성범죄’, ‘명성교회 세습’, ‘동성애’ 5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³⁾.

이 5가지 이슈 가운데 우선 ‘버즈량’을 보았다. 단순 ‘버즈량’은 ‘신천지’가 18,13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동성애’(6,322건), ‘전광훈’(4,159건), ‘명성교회’(2,057건), ‘성범죄’(1,959건)가 신천지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그 뒤를 잇고 있다. ‘버즈량’이 온라인 여론에서 특정 이슈가 어느 정도 확산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므로 2019년에 온라인에서 가장 확산이 많이 된 이슈는 ‘신천지’이며, 가장 확산이 덜 된 이슈는 ‘성범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천지 버즈량은 단순히 내부 행사 알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사회적 이슈성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일반인들의 참여도를 볼 수 있는 본문 수 대비 댓글 수 분석에서는 ‘전광훈’이 32.1%, ‘성범죄’ 18.8%, ‘명성교회 세습’ 17.9%로서 ‘전광훈’이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일반인들의 관심도를 볼 수 있는 본문 수 대비 조회 수 분석에서는 ‘목회자 성범죄’가 49.1%로 1위, ‘명성교회 세습’이 46.8%로 큰 차이가 없는 2위로 나타났다. ‘전광훈’과 ‘신천지’는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하였다.⁴⁾ 이러한 결과는 소수의 적극적 참여 열의를 가진 관심자들에게 ‘전광훈’이 매우 중요한 이슈일 수 있으나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목회자 성범죄’와 ‘명성교회 세습’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19 한국교회 주요 5대 이슈〉



한국교회와 관련된 5대 이슈 가운데 단순히 종교적 행사 내용이 많고 그 성격이 사회적이라기보다 종교 내부적인 것이 많은 신천지를 제외하고 목회자 성범죄, 명성교회, 동성애, 전광훈 4개 이슈가 국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만한 임팩트 있는 이슈였다고 볼 수 있다. 아래부터는 이 4가지 이슈가 한국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교회의 낮은 신뢰도 원인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3) 한국교회탐구센터, ‘(분석 보고서)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교회 주요 5대 이슈’(20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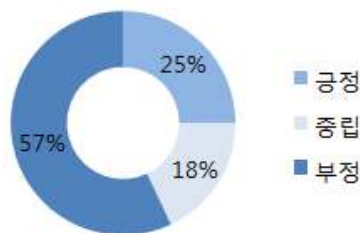
4) 한국교회탐구센터, ‘(분석 보고서)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교회 주요 5대 이슈’(2020.1)

3. 한국교회 신뢰도 저하를 불러온 이슈

3-1. ‘전광훈’ 현상에 대해

한국교회탐구센터의 빅데이터 분석에서 ‘전광훈 목사’가 언급된 본문에 대한 감성 분석⁵⁾을 한 결과, 긍정적 본문은 25%, 중립적 본문은 18%였으며, 부정적 본문은 57%로 나타났다.⁶⁾ 온라인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긍정적 여론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감성 분석〉



전광훈 목사에 대한 긍정적 댓글을 보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현 정부를 비판하며 문재인 해야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이었다.⁷⁾

〈전광훈 목사 관련 긍정적 댓글〉

“문재인 해야하든가 탄핵 하든가,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 망한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전광훈 목사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에서 그치지 않고 아래의 댓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교회 더 나아가 기독교 자체를 비난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다.⁸⁾

〈전광훈 목사 관련 부정적 댓글〉

*“크리스천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 거짓 장로와 가짜 목사가
주님의 이름과 신자들을 욕되게 하고 있으니...”
“역시 사이비 종교”*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행위가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을 정치적으로 결집시키고 대 정부 투쟁에 동원한 효과를 낳기는 했지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 저하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 것이다.

5) ‘감성 분석’은 게시글 혹은 댓글의 본문을 형태소 단위로 구분하여 형태소 별로 긍정, 중립, 부정을 분석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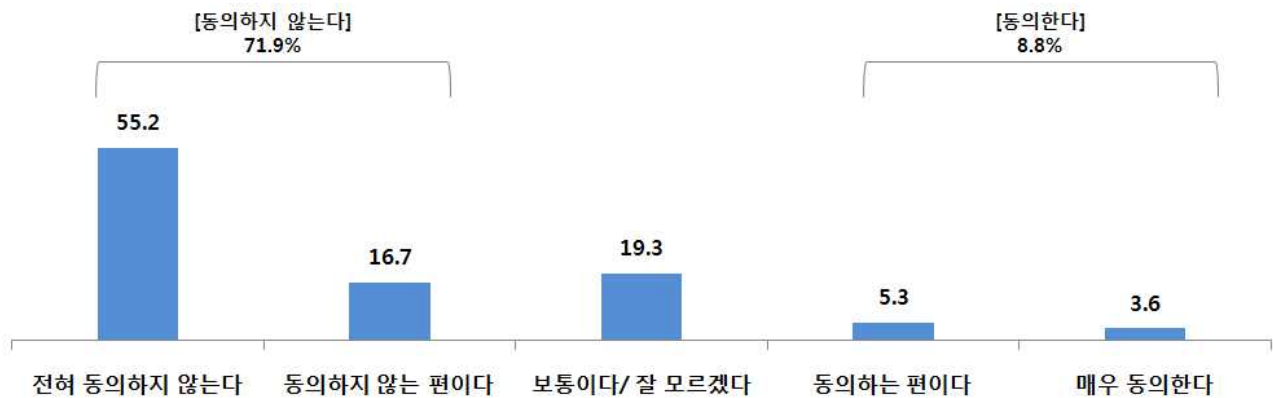
6) 한국교회탐구센터, ‘(분석 보고서)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교회 주요 5대 이슈’(2020.1)

7) 한국교회탐구센터, ‘(분석 보고서)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교회 주요 5대 이슈’(2020.1)

8) 한국교회탐구센터, ‘(분석 보고서)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교회 주요 5대 이슈’(20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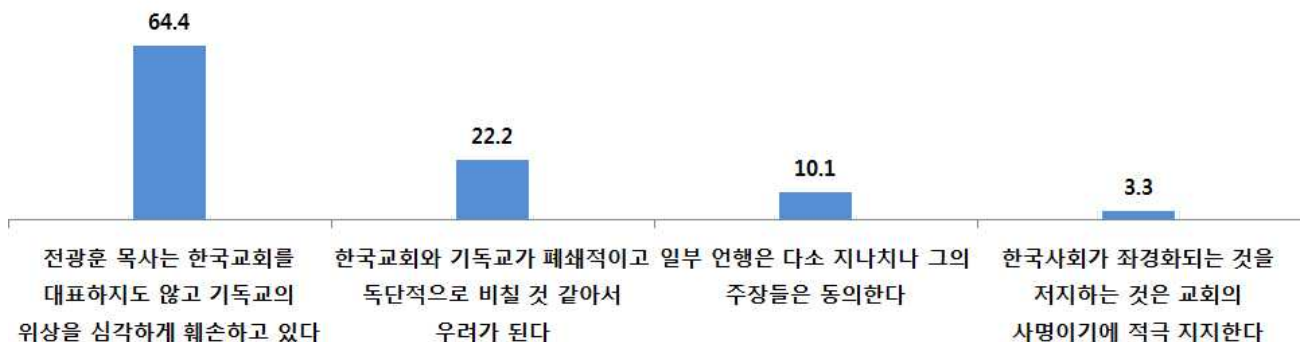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원인은 우선 국민들이 전광훈 목사가 목사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적정선을 지나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에서 국민들은 목사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목사가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의견은 47.7%였고, ‘목사가 정치적 집회나 활동에 참여해도 된다’는 의견은 16.3%로 소수에 그쳤다⁹⁾. 둘째로 현 정권에 반대하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 내용이 너무 편향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교회 신뢰도 저하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만20세 이상의 기독교인 1,000명과 비기독교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조차도 전광훈 목사의 언행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 전광훈 목사의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해 기독교인들의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8.8%만이 동의한다고 하였다.¹⁰⁾

〈전광훈 목사의 ‘문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한 의견 (기독교인 1,000명)〉



또한 기독교인 3명 중 2명인 64.4%는 ‘전광훈 목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지도 않고 기독교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2.2%는 ‘기독교가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비칠 거 같아서 우려가 된다’고 하였다. 이 두 입장을 합해 86.6%의 기독교인이 전광훈 목사의 언행은 기독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¹¹⁾

〈전광훈 목사의 최근 언행에 대한 의견 (기독교인 1,000명)〉



9)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2020년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20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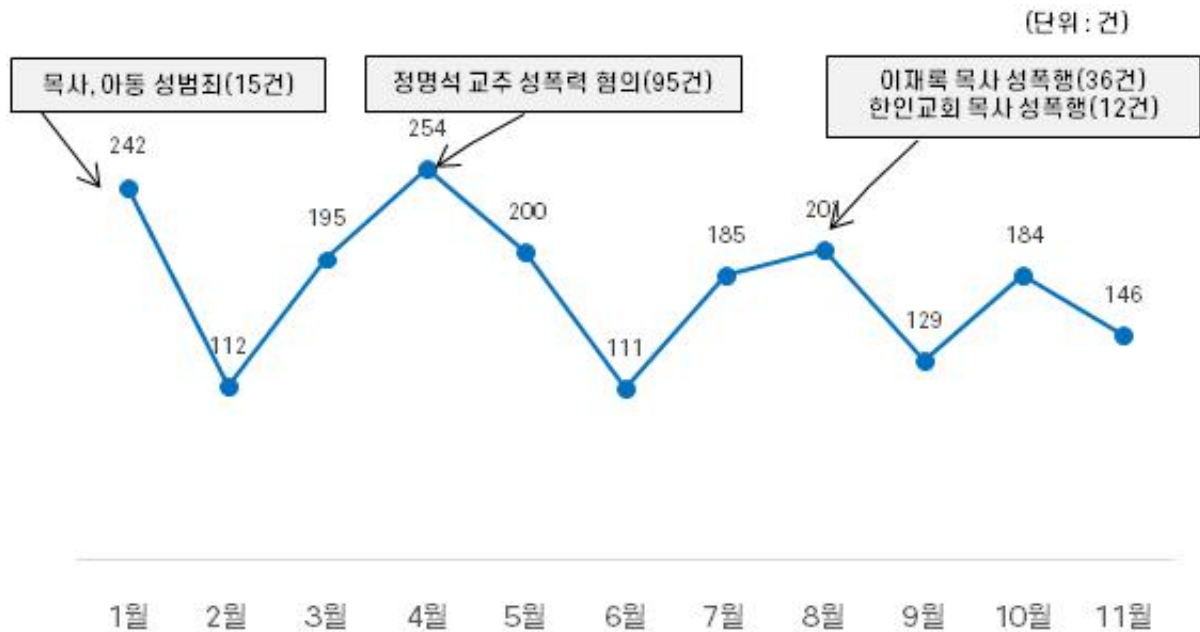
10)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자료집’(2019. 10)

1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자료집’(2019. 10)

3-2. ‘목회자 성범죄’ 현상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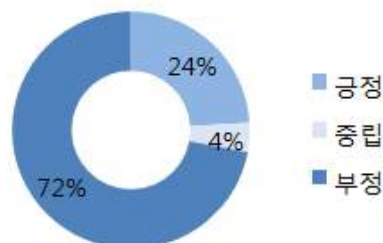
한국교회탐구센터의 빅데이터 분석에서 아동 성범죄, 신도 성폭행 등 목사의 성범죄 관련 본문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정명석 JMS 교주, 이재록 목사, 미국 및 파리 한인교회 목사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꾸준히 이슈화되었다.¹²⁾ 성 범죄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국민들에게 성범죄와 관련해서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인다.

〈목회자 성범죄 관련 버즈량 추이〉



감성 분석을 한 결과, 긍정적 본문은 24%, 중립적 본문은 4%, 부정적 본문은 72%로서 목회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긍정적 여론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¹³⁾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지지자가 갈리기는 하지만 목회자의 성범죄 문제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목회자 성범죄’ 관련 감성 분석〉



12) 한국교회탐구센터, ‘(분석 보고서)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교회 주요 5대 이슈’(2020.1)

13) 한국교회탐구센터, ‘(분석 보고서)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교회 주요 5대 이슈’(2020.1)

목회자 성범죄가 반복되다 보니 비난의 화살은 성범죄를 막지 못한, 어쩌면 성범죄가 쉽게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한 기독교로 향하고 있다. 기독교를 ‘개독교’로 모욕을 주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¹⁴⁾

〈목사 성범죄 관련 댓글〉

"한국 성폭행 1위 직업 - 목사", "신이 없는 이유"
"개나 소나 목사가 되니 개독교라고 하는 것...교단 스스로 자격관리, 정리 좀 해라"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저것들에게 왜 천벌을 안 주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성폭력¹⁵⁾과 관련된 문제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 한국교회탐구센터가 2018년 6월에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의 만20세~69세 남녀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성평등에 대한 개신교 인식’ 조사 결과에서 보면, ‘과거 출석했거나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서 언어적 성희롱(신체적 폭력이 아닌 언어적 폭력/희롱), 신체접촉에 의한 성추행/성폭행이 일어난 것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성희롱은 13%, 성추행/성폭행은 9%가 있다고 응답하였다.¹⁶⁾ 이 질문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을 전해들은 것, 즉 간접 경험까지 포함한 것이므로 성폭력 발생률 지표는 아니지만 한국교회에서 성폭력이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성폭력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희롱 12.7%, 성추행/성폭행 8.7%는 결코 적은 수는 아니라고 본다.

〈성희롱 직/간접 경험(n=1,000)〉 〈성추행/성폭행 직/간접 경험(n=1,000)〉



성폭력 가해자 가운데 목회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에서 2018년 발표한 성폭력 관련 상담통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본 통계에 의하면 목회자-교인 간에 성폭력이 벌어진 비율이 59%로서 교회에서 성폭력이 주로 목회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⁷⁾

14) 한국교회탐구센터, ‘(분석 보고서)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교회 주요 5대 이슈’(2020.1)

15) 본 글에서는 성폭력'을 성희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 '나무위키'를 따른다.

(<https://namu.wiki/w/성폭력> 참고할 것)

16) 한국교회탐구센터, ‘페미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 자료집’(2018.6)

17) 가스펠투데이, ‘기독교반성폭력센터 2018년 상담 통계, 목회자(리더)-교인 간 성폭력 접수 가장 많아’(2019.1.7.)

〈성폭력 가해자 직분 현황〉

	목회자 -교인	교수 -학생	목회자 간	선후배 간	교인 간	기타	미상	총계
건수	51	4	3	2	11	15	1	87
비율	59%	5%	3%	2%	13%	17%	1%	100%

목회자의 성 폭력 문제는 그 역사가 매우 길다. 그리고 목회자의 성 범죄는 선정성이 커서 이슈의 관심도와 파급력이 크다. 그러므로 목사의 성 범죄 문제가 한국교회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3-3.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세습 문제에 관심이 모아진 것은 꽤 오래 전이었지만,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2017년 3월 명성교회가 담임목사인(당시에는 은퇴 상태인) 김삼환 목사 후임으로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면서부터다. 이 이슈는 교계에서는 뜨거운 감자였으나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모으지 못하다가 여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2019년 9월 통합교단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결정을 하고 나서다. 아래 한국교회탐구센터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총회 결정이 이루어진 9월에 버즈량이 6월 이전보다는 5배, 총회를 앞두고 관심이 모아진 7,8월보다는 2배 정도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관심이 컸음을 반증한다.¹⁸⁾

〈명성교회 세습 관련 버즈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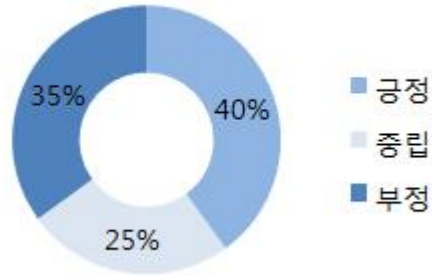


명성교회 관련 감성 분석을 한 결과, 긍정적 본문은 40%, 중립적 본문은 25%였으며, 부정적 본문은 35%로 긍정적 본문이 부정적 본문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¹⁹⁾ 목회자의 성 범죄와 달리 명성교회 세습 이슈는 찬반양론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18) 한국교회탐구센터, ‘(분석 보고서)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교회 주요 5대 이슈’(2020.1)

19) 한국교회탐구센터, ‘(분석 보고서)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교회 주요 5대 이슈’(2020.1)

〈명성교회 세습 관련 감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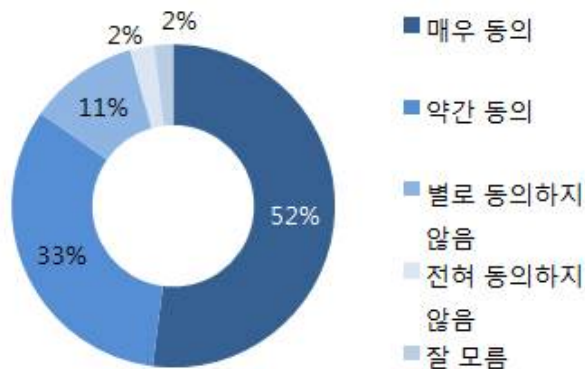
교회 세습 허용 기사에 달린 부정적 댓글을 보면 명성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타겟으로 한 비판이 많았다. 국민들은 명성교회 세습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사유화하고 배타적으로 대물림함으로써 사랑과 나눔이라는 기독교 본연의 정신이 사라졌다고 비판한다.²⁰⁾ 그러므로 명성교회 세습 문제도 명성교회에 대한 비판에 머물지 않고 한국교회가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명성교회 세습 관련 댓글〉

"한국교회는 죽었다"
 "이제 교회는 종교가 아니다. 돈 벌기 좋은 사업일 뿐...목사 직함을 사장으로"
 "교회를 재산으로 여기고 세습에 부자와 권력에 관대한 교리에...
 나눔과 사랑의 예수님은 사라졌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왜 반감을 낳는지는 세습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시사저널이 2019년 9월에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가 부와 지위 등이 대물림되는 세습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90%)²¹⁾ 또한 세습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데에 85%가 동의(매우+약간)하고 있고, 13%만이 동의하지 않고(별로+전혀) 있어서 우리나라의 세습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²²⁾

〈우리사회의 세습은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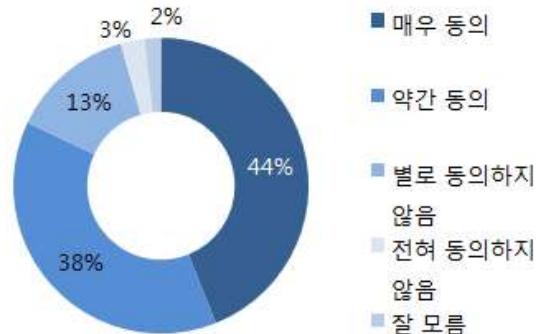
20) 한국교회탐구센터, 「(분석 보고서)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교회 주요 5대 이슈」(2020.1)

21) 시사저널, 「(시사저널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9명 "한국은 세습사회"」(2019. 9.24)

22) 시사저널, 「(시사저널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9명 "한국은 세습사회"」(2019. 9.24)

또한 ‘한국사회는 개인이 노력해도 계층이동이 어렵다’에 82%가 동의(매우+약간)하고 있으며, 16%가 비동의(별로+전혀)한다고 해서 한국사회의 계층 고착화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²³⁾

〈한국사회는 개인이 노력해도 계층이동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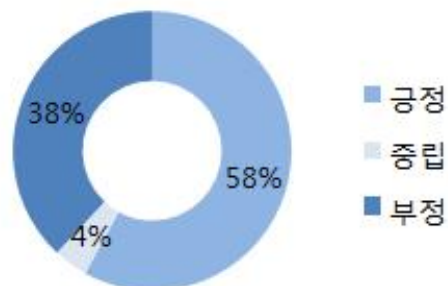
이렇게 세습이 한국사회 계층 구조를 경직시켜서 신분상승에 대한 개인의 희망을 뺏기 때문에 국민들은 세습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유화로부터 가장 멀어야 할 것 같은 교회에서 세습이 벌어지는 것을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세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용납하는 교단과 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3-4. ‘동성애’에 대해

동성애는 기독교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동성애 문제는 일종의 사상 검증처럼 작동해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교계에서 자유로운 발언이 쉽지 않다.²⁴⁾ 그렇지만 동성애 문제를 비기독교인에게 까지 넓히면 교회와 다른 양상이 보인다.

한국교회탐구센터의 빅데이터 분석에서 동성애에 대한 감성 분석을 한 결과, 긍정적 본문은 58%, 중립적 본문은 4%, 부정적 본문은 38%로 긍정적 여론이 부정적 여론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⁵⁾ 전체 온라인 여론 시장에서는 동성애 반대가 오히려 소수로 보인다.

〈동성애 관련 감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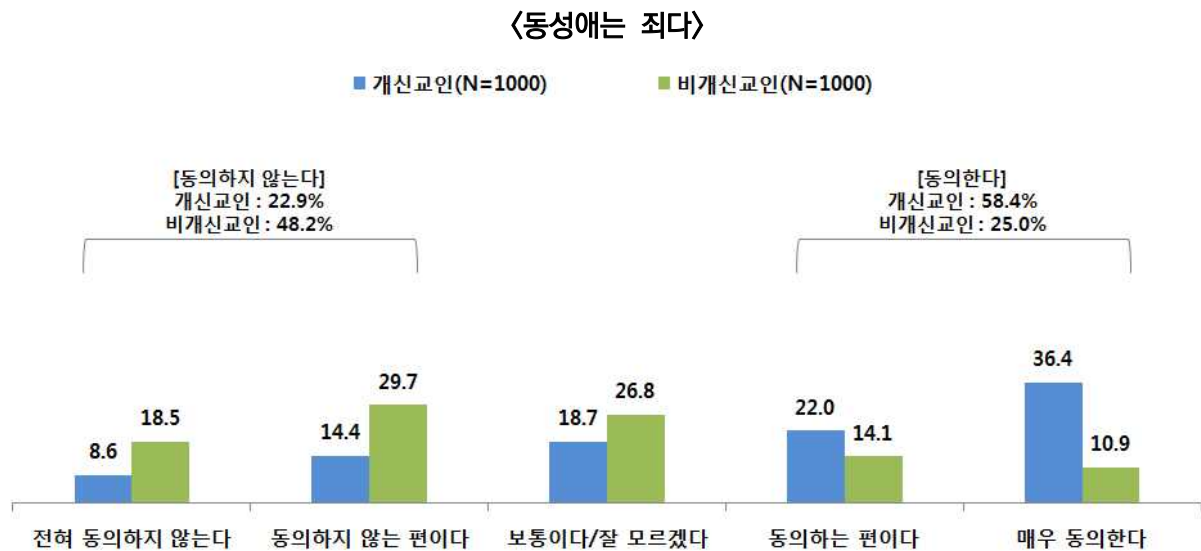


23) 시사저널, ‘(시사저널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9명 "한국은 세습사회"'(2019. 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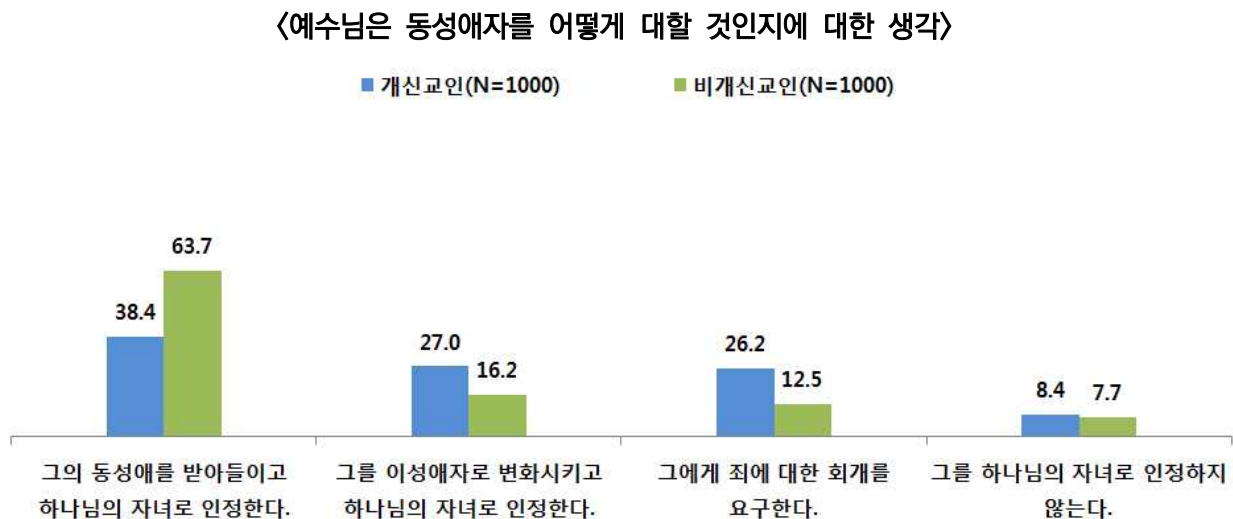
24) 2019년 6월 전후로 빚어진 분당우리교회 설교에서의 동성애 발언과 관련하여 해당 목사와 교회에 대한 공격을 보라

25) 한국교회탐구센터, ‘2019(분석 보고서)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교회 주요 5대 이슈’(2020.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조사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명제에 대해 기독교인은 58.4%가 동의, 22.9%는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비기독교인은 25.0%가 동의하고, 48.2%는 동의하지 않았다.²⁶⁾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인식의 큰 차이가 있다.



같은 조사에서 ‘예수님이라면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기독교인은 38.4%만이 ‘동성애를 받아들인다’고 응답하였는데 비기독교인은 63.7%가 ‘동성애를 받아들인다’고 응답하여 동성애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엇갈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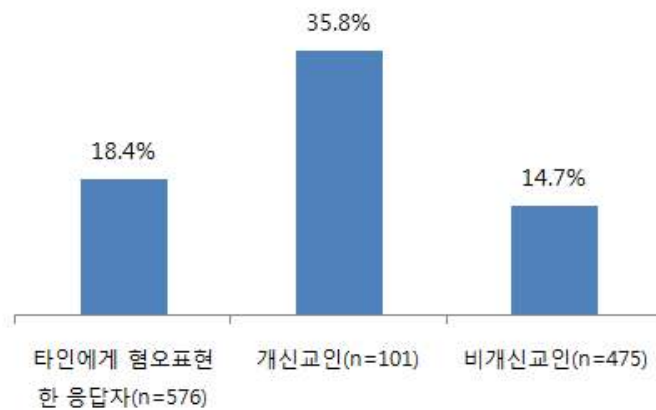
이처럼 동성애 문제에 대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의 인식의 차이는 교회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탐구센터가 2019년 4월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의 만15~69세 남녀 12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성소수자에게 혐오 표현을 한 적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타인에게 혐오표현을 한 적이 있는 기독교인 가운데 35.8%가 성소수자에게 혐오 표현을 하였다고 한 반면, 비기독교

26)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자료집’(2019. 10)

27)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자료집’(201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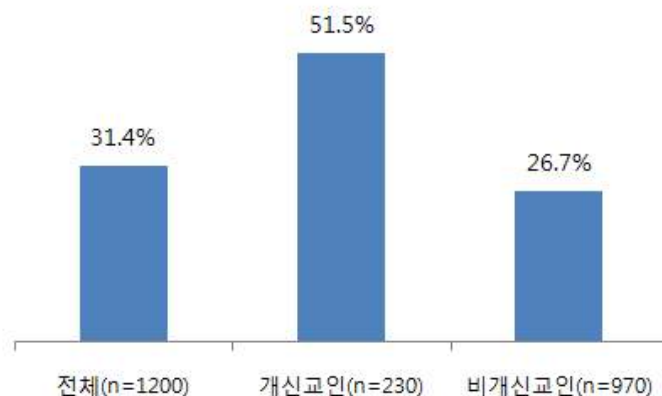
교인은 14.7%만이 한 적이 있다고 하여 기독교인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비기독교인보다 2배 이상 높았다.²⁸⁾

〈성소수자에게 혐오표현 한 경험〉



또 성소수자가 혐오 표현을 받을만한 근거가 있는지 질문했을 때, 기독교인은 51.5%가 근거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기독교인은 26.7%만이 근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²⁹⁾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혐오의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성소수자가 혐오표현을 받을만한 근거 존재가 있다(동의율)〉



동성애에 대한 인식,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표현 경험 및 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 보면, 비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혐오 표현을 혐오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동성애에 보다 수용적인 비기독교인이 보기에 기독교인의 동성애에 대한 비판은 혐오와 배제의 표현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상당수 기독교인이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한 동성애에 대한 비판 혹은 혐오 표현이 오히려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독교인의 동성애 비판이 비기독교인에게 비난 받을 만한 소지는 또 있다. 한국교회탐구센터의 빅데이터 분석에서 보면 동성애 비판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지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대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³⁰⁾ 동성애 반대가 정치성을 띠면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한국교회의 행위가

28) 한국교회탐구센터, '혐오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자료집'(2019. 6)

29) 한국교회탐구센터, '혐오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자료집'(2019. 6)

기독교 옹호에서 벗어나 정쟁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가 생기고 그것이 교회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 관련 댓글〉

"멋지다 황교안! 황교안 대통령확정..."

"에이즈 창궐의 주범인 동성애...그걸 옹호하는 좌파 정치인은 물러가라"

"성경에 동성애는 죄악이고 돌로 쳐죽이라고 했다. 틀린 거 하나없다"

"문재인 종교가 천주교라더니 사이비인가보군..."

4. 맺는 말

기독교인들은 종종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일 뿐, 객관적 상황은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란 대상이 기대에 부응했을 때 생긴다. 이 말은 한국교회가 세상의 교회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상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양하겠으나 이 글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과 몇 가지 다른 조사 결과만을 근거해서 분석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2019년 한국교회의 이슈는 신천지 논란, 전광훈 목사, 목회자 성범죄, 명성교회 세습, 동성애 비판이었다. 이 가운데 신천지 논란은 종교 내부의 문제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이슈에 대해 각각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다른 조사 결과를 분석했을 때 4가지 이슈가 한국교회의 신뢰도 및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목사의 언행은 그의 발언 내용과 목회자의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목회자 성범죄는 더 이상 설명할 것 없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이므로 비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길이 없다. 명성교회 세습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사라진 한국사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에게도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는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인식 차이가 너무 커서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한 동성애 비판이 사랑과 포용의 아이콘이어야 할 기독교가 혐오와 배제, 그리고 차별에 앞장서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특히 전광훈 목사 문제와 동성애 문제는 단순히 종교적 이슈에서 벗어나 이슈의 정치화가 이루어져서 두 이슈를 둘러싼 갈등 관계가 만만치 않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윤리를 되찾아야 한다. 목회자 성범죄, 교회 세습 같은 문제로 빚어진 교회의 위상 저하는 기본적 윤리만 준수해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복잡해서 개인이나 개교회 차원에서의 윤리 문제만으로는 잃어버린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 전광훈 목사, 교회 세습, 동성애는 교리와 사회 구조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참여의 관점에서 숙고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이다. 바라건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교회와 선교단체, 기독교 시민단체간에 열린 마음으로 깊은 토론을 통해 우리 내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연대와 운동으로 해결책을 추구하여 교회가 제자리를 찾기를 기대해 본다.³⁰⁾

30) 한국교회탐구센터, ‘2019(분석 보고서)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교회 주요 5대 이슈’(2020.1)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세미나

조직구성

- 책임연구원 : 정연승(단국대학교 교수)
- 검토위원회 : 류지성(기독교경영연구원 운영위원, 검토위원장)
고석표(CBS 교계뉴스부 선임기자)
구자창(국민일보 사회부 기자, 기윤실 청년위원)
박선영(한국체대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기윤실 청년운동본부장)
배종석(고려대학교 교수, 기윤실 공동대표)
신동식(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본부장)
조성돈(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 활 동 가 : 윤신일(기독교윤리실천운동 간사)
- 여론조사 수행기관 : 지앤컴리서치 - 지용근 대표, 김진양 부대표

진행일정

- 검토위원회 : 1차 2019년 10월 23일(수)
2차 2019년 11월 19일(화)
3차 2019년 12월 11일(수)
- 여론조사 : 2020년 1월 9일(목) ~ 11일(토) - 3일간 진행
- 결과발표세미나 : 2020년 2월 7일(금) 오전10시, 여전도회관 제1강의실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우리들교회(김양재 목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시민운동**입니다.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 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기윤실은 지난 30년 간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공명선거운동,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크리스천라이프센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울러, 기윤실은 네트워크운동으로 기독교윤리를 각 지역 현안에 맞게 전개하기 위해 지역기윤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2020년 기윤실 주요운동

기윤실은 <정직>, <책임>, <정의>를 핵심가치로 합니다. 2020년에는 '이념을 초월하는 복음, 사랑으로 실현하는 정의'를 표어로 정하여 ▲자발적불편운동, ▲교회신뢰운동, ▲좋은사회운동, ▲바른가치운동, ▲청년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약자와 함께하며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안내

- 후원문의 : 02-794-6200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37-01-0504-979(예금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직접 후원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Tel: 02-794-6200 Fax: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 트위터, 페이스북: @giyunsil / www.cemk.org



기윤실
홍보영상

